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11-10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2021. 5. 31.

연구용역책임자 :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문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용역 의뢰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5. 31.

연구용역책임자 김동준 이사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평가위원

김준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평가단장)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노민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이상휘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송영출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정아 숭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

양진명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현수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원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배한형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강나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전임연구원



I .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1
1.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3
2.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4
3. 경영실적 평가방법	8
II .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1
1. 종합 평가결과	13
2. 평가범주별 결과	17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38
III .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53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5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89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27
4. 한식진흥원	163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7
IV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245
1. 정책제언	247

I .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개요

I.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1.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1) 연구 배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기타공공기관도 경영 개선과 부채관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주무 부처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해왔다.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부터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한식진흥원(구 한식재단)이 추가되었고,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추가된 이후 2021년 현재 7년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 평가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포괄적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연구용역 수행 기간 및 일정

- 경영평가단은 2021년 3~5월에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2020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공공기관이 작성·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사전 서면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가대상 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경영실적평가 주요 일정 >

■ 2020년 3월 03일	계약체결
■ 2020년 3월 12일	경영평가단 운영 일정협의 및 착수보고
■ 2020년 3월 29일	피평가기관 대상 평가설명회
■ 2020년 4월 02일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평가위원 배부
■ 2020년 4월 05일 ~ 4월 12일	서면평가
■ 2020년 4월 12일 ~ 4월 19일	현장평가 확인사항 도출
■ 2020년 4월 27일 ~ 4월 29일	현장평가
■ 2020년 4월 27일 ~ 5월 07일	평가결과의 종합 및 검토
■ 2020년 5월 10일 ~ 5월 19일	평가결과 초안 도출
■ 2020년 5월 12일 ~ 5월 20일	기관별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2020년 5월 21일 ~ 5월 26일	평가위원별 이의신청 조정 여부 검토
■ 2020년 5월 27일	이의신청 사항 조정결과 회신 및 결과 확정
■ 2020년 5월 31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2.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1) 경영평가단 구성

- 2020년 대비 2021년 평가단 구성과 평가방법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총 12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관리 부문(3인) 및 주요사업 부문(10인/기관별 2인, 공통 1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평가위원은 (前)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교수, 박사 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였으며, 평가단은 사전모임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지표(계량·비계량)는 담당 평가위원 3인이 5개 기관을 공통으로 평가하고, 주요사업지표(계량)는 각 기관의 세부분야 관련 전문 평가위원 2인이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주요사업지표(비계량)는 각 기관의 세부분야 관련 전문 평가위원 2인과 경영관리지표를 담당할 위원 중 경영관리 전문 평가위원 1인이 평가하였다.
 - 2021년 현장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 및 전화 통화를 활용하여 원격평가로 진행되었다.
- 현장평가에서는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을 지표별 담당자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평가의견서는 각 피평가기관에 회람시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평가위원 경력 및 역할 분담>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1	평가 단장	김준식	공공정책 성과평가 연구원	연구 위원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2020) - 고양시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위원(2010~2019) - 국방부 운영심의회 위원(2016~2019)	- (경영관리, 5개 기관 공통)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구현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2	연구 책임 (평가 위원)	김동준	공공정책 성과평가 연구원	이사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20)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2019~2021)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본위원(2018~2020) -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영평가위원(2020)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2018~2022)	- (경영관리, 5개 기관 공통) 국민소통 및 혁신, 재무예산관리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 (주요사업, 5개기관 공통)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3	평가 위원	노민택	공공정책 성과평가 연구원	연구 위원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2020) - 인천시 자체평가위원(2019) - 국방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위원(2015~2019) - 경기도 지역발전사업 자체 평가위원(2015~2017)	- (경영관리, 5개 기관 공통) 윤리경영, 보수 및 복리후생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4	평가 위원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20) -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위원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AI백신협의회 위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장	-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방역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5	평가 위원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0)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2014~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2020~2022)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위원(2020~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위생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6	평가 위원	이상휘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 융투자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0) -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임이사(2015~2019) - 한국기업경영학회 상임이사(2015~2019)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2009~2010, 2013~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7	평가 위원	송영출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0) - 우체국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2015~2017) -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 관리위원 (2012~2014)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2009~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업재해보험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8	평가 위원	서정아	송실대학교 의생명시스 템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0)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2015~2016) - 농림축산식품부 5급 과학 기술박사특채 사무관(2007~2013) -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 연구소 전임연구교수(2006~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 아시아메미나방 검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9	평가 위원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 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0) - 환경부 LMO 위해성 심사 위원(2014~현재)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2013~현재) - (사)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AGM 예찰 방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10	평가 위원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 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0)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2021.01 ~현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이사(2021)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 (2020.07 ~현재)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2010~2011, 2013,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한식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 실적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 (주요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新인프라 구축 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11	평가 위원	황윤재	한국농촌경 제 연구원	연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부 연구위원 (2006~현재)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분과위원(2020~현재) - 한국식생활교육학회 이사 (2018~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한식문화관 운영성과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12	평가 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상청 자체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성장지원 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3. 경영실적 평가방법

-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및 최근 몇 년간 경영 개선 추세와 비교하여 2020년도 경영 개선 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범주는 경영관리(45점)와 주요사업(55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구현, 국민소통 및 혁신, 재무예산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의 5개 하위 평가요소로 구분하였다. 경영전략 및 리더십 하위요소는 전략기획(비계량), 경영개선(비계량), 리더십(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가치구현 하위요소는 일자리 창출(계량 및 비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및 비계량), 안전 및 환경(비계량),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윤리경영(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민소통 및 혁신 하위요소는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국민소통(계량)에 대해 평가하였고, 재무예산관리 하위요소는 재무예산 운영·성과(계량 및 비계량),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하위요소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총인건비 관리(계량), 노사관계(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등의 종합평가 및 기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평가하되, 주요사업 종합평가는 비계량평가를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계량평가를 시행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3),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1),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2)), 국민소통 및 혁신(국민소통(2)), 재무예산관리(재무예산 운영성과(2)), 보수 및 복리후생(총인건비 관리(2))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 대 실적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전략기획(3), 경영개선(1), 리더십(1)),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 안전 및 환경(5),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1), 윤리경영(3)), 국민소통 및 혁신(혁신 노력 및 성과(3)), 재무예산 관리(재무예산 운영·성과(1), 조직·인사 일반(2)), 보수 및 복리후생(보수 및 복리후생(4), 노사관계(2))로 구성되었으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경우 5개 기관의 개별 사업단위별로 추진 계획·활동·성과·환류 과정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는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5	5	-
	(1) 전략기획	3	3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2. 사회적 가치구현	22	16	6
	(1) 일자리 창출	8	5	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국민소통 및 혁신	5	3	2
	(1)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2) 국민소통	2	-	2
	4. 재무예산관리	5	3	2
	(1) 재무예산 운영·성과	3	1	2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2	-
	5. 보수 및 복리후생	8	6	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총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소 계	45	33	12
주요 사업 (55)	주요사업 계량지표	28	-	28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5	-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소 계	55	27	28
합 계		100	60	40

○ 기관의 종합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종합평가 결과 산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

<평가결과 종합점수 기준 및 수준 정의>

등급	종합점수	수준 정의
탁월 (S)	100점~90점 이상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A)	90점 미만~8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B)	80점 미만~7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C)	70점 미만~6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D)	60점 미만~50점 이상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5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평가지표 세부 내용은 5개 평가대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기관별 주요사업 세부지표 내용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20.12)」에 의거한다.

Ⅱ.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II.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종합 평가결과

-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된 “농림축산식품부 (2020.12) 「2020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준거하여 경영관리 범주(45점)와 주요사업 범주(55점)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각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각각 가중치 40:60로 평가하였다. 계량지표는 산식에 실적치를 적용하고 가중치에 따라 평가점수를 계산하였으며,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A+’에서 ‘E0’까지 총 9단계로 평가하였다.
 - 2020년도 기타공공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기관 간의 경영성차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평가하였다.
- 기관별 총점 결과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1.24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79.96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79.72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9.62점) > 한식진흥원(55.92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범주의 득점 결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32.95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31.53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31.28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31.27점) > 한식진흥원(27.34점)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의 득점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8.97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47.83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47.34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45.77점) > 한식진흥원(28.58점)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B등급, 한식진흥원 D등급으로 나타났다.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의 경우 평가편람상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해당사유 발생(폭행, 성폭행, 음주운전)’으로 등급을 B로 하향 조정하였다.

<2020년도 기타공공기관 지표별 평가 총괄>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경영관리	경영전략과 리더십	5	3.90 (78.0)	3.10 (62.0)	3.2 (64.0)	2.5 (50.0)	3.90 (78.0)
	사회적 가치구현	22	15.20 (69.1)	17.21 (78.2)	16.48 (74.9)	15.65 (71.1)	15.85 (72.0)
	국민소통 및 혁신	5	3.09 (61.8)	3.8 (76.0)	3.48 (69.6)	2.63 (52.6)	2.98 (59.6)
	재무예산 관리	5	4.08 (81.6)	4.24 (84.8)	3.12 (62.4)	3.36 (67.2)	4.00 (80.0)
	보수 및 복리후생	8	5.00 (62.5)	4.60 (57.5)	5.00 (62.5)	3.20 (40.0)	4.80 (60.0)
경영관리 득점	45	31.27	32.95	31.28	27.34	31.53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계량지표	28	27.83 (99.4)	28 (100.0)	27.18 (97.1)	16 (57.1)	27.43 (98.0)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2.44 (82.9)	9.37 (62.5)	11.46 (76.4)	8.08 (53.9)	11.7 (78.0)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8.7 (72.5)	8.4 (70.0)	8.7 (72.5)	4.5 (37.5)	8.7 (72.5)
주요사업 득점	55	48.97	45.77	47.34	28.58	47.83	
혁신성장 가점	1	0.5	0.5	0.5	0	0.1	
코로나19 대응 가점	3	0.5	0.5	0.5	0	0.5	
총점	100	81.24	79.72	79.62	55.92	79.96	
등급		B*	B	B	D	B	
순위		1	3	4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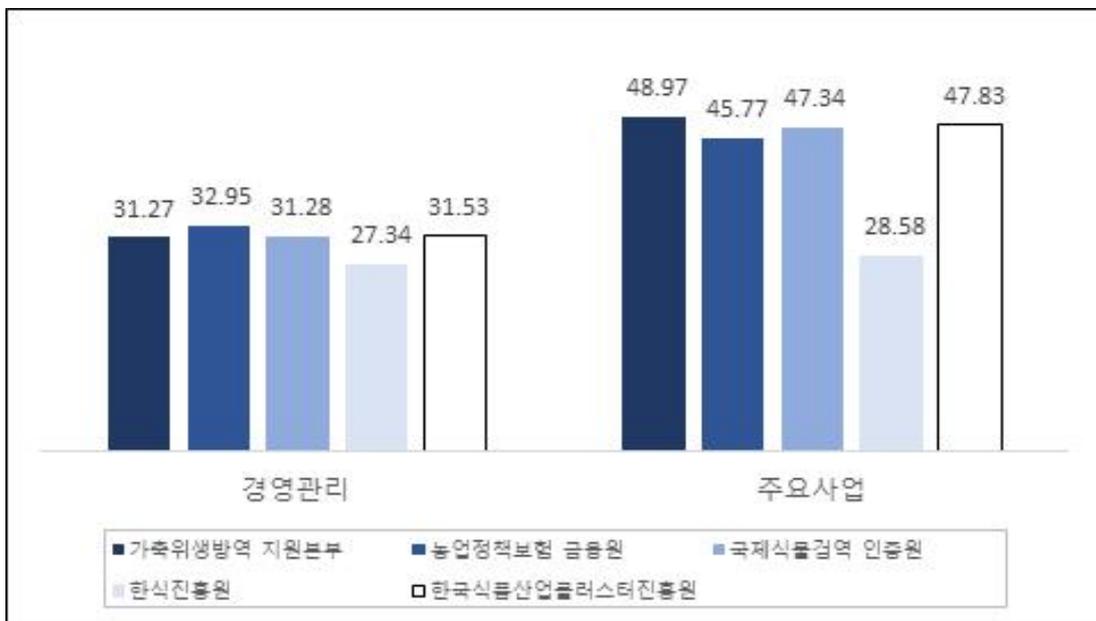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평가편람상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해당사유 발생’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함.

- 경영관리(45점 만점) 범주와 주요사업(55점 만점) 범주의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2.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한식진흥원이 27.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48.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한식진흥원이 28.5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평가범주별 종합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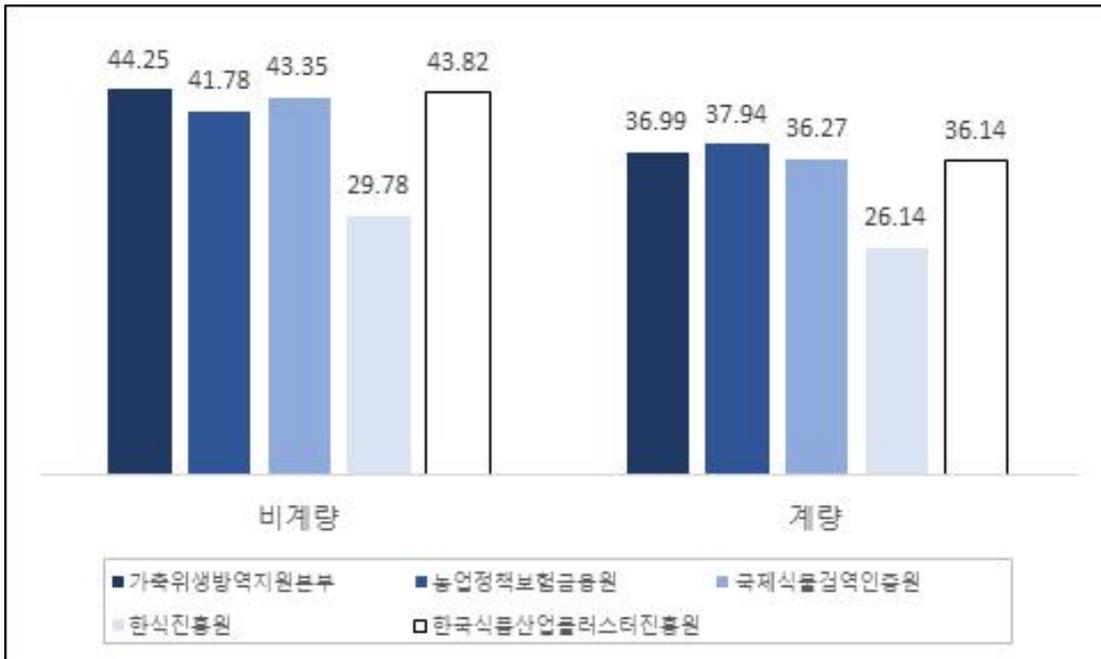
(단위 : 점)



- 계량지표(40점 만점) 평가와 비계량지표(60점 만점) 평가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계량지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7.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36.99점,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이 36.27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36.14점, 한식진흥원이 26.14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계량지표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44.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43.82점,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이 43.35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41.78점, 한식진흥원이 29.78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계량 및 비계량지표 평가결과>

(단위 : 점)



2. 평가범주별 결과

-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경영관리 신규지표인 경영전략 및 리더십(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성과지표는 올해 경영평가에 처음 도입되는 지표임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지표 중 사회적 가치구현의 안전과 환경 지표의 환경보전 지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재무예산 관리의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지표, 조직인사 일반 지표 또한 기존 분야에 신규지표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평가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경우 세부평가 기준이 평가편람상 제시되고 있으나,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만점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 평가에 있어 기관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평가위원의 평가 의견과는 별개로 점수가 부여되는 지표로 최소한의 기관 간 차별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목표치 및 산출방법에 따라 기관별 유불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기관의 경우 계량지표의 세부 내용 및 기준을 살펴보면 기관의 주요사업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며, 올해 수정된 신규지표의 경우 목표치 설정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식진흥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모든 항목이 신규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치를 새로 설정하였으나 목표치 설정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지표의 한식 인지도 확산 추진성과, 한식 정보분석 조사·연구 결과 활용도, 한식 해외확산 실적 지표의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의 경우 총괄위원회 운영 결과 고의적인 허위 경영실적 자료 제출이 인정되어 0점 처리되었다.

1 경영관리 범주

(1) 종합 득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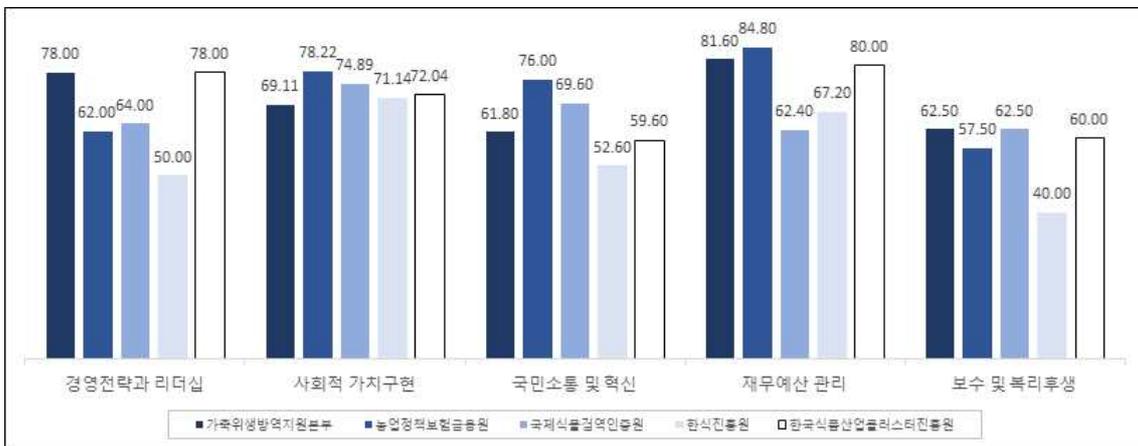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45점 만점)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2.95점(73.22%)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31.53점(70.06%)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1.28점(69.5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1.27점(69.50%) > 한식진흥원 27.34점(60.76%) 순으로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에서 9.94점, 비계량지표에서 23.01점, 합계 32.9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계량지표에서 8.71점, 비계량지표에서 22.82점, 합계 31.53점을 획득하였으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지표 9.09점, 비계량지표 22.19점, 합계 31.28점을 획득하였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지표 9.16점, 비계량지표 22.11점, 합계 31.27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 10.14점, 비계량지표 17.20점, 합계 27.34점을 획득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중 경영전략 및 리더십의 총점(5점 만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3.90점(78.00%)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20점(64.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10점(62.00%), 한식진흥원이 2.50점(50.0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사회적 가치구현의 총점(22점 만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7.21점(78.23%)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16.48점(74.9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15.85점(72.05%), 한식진흥원이 15.65점(71.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5.20점(69.09%)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국민소통 및 혁신의 총점(5점 만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80점(84.67%)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48점(69.6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3.09점(61.8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2.98점(59.60%), 한식진흥원이 2.63점(52.6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재무예산관리의 총점(5점 만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4.24점(84.80%)으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4.08점(81.6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4.00점

(80.00%), 한식진흥원이 3.36점(67.20%),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12점(62.4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보수 및 복리후생의 총점(8점 만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5.00점(62.50%)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4.80점(6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4.60점(57.50%), 한식진흥원이 3.20점(40.00%)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경영관리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

(단위 : %)



-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한식진흥원(84.5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82.83%)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6.33%)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5.75%)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72.58%)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 보다 감소한 12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는 불가능하여 취득 총점의 백분율을 비교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백분율은 2019년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기관은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를 제외한 4개 기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하락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3.92%→76.33%)로 나타났으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90.20%→75.75%), 한식진흥원(93.32%→84.50%), 농업정책보험금융원(87.72%→82.8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점수>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3	1.44 (48.00)	1.60 (53.33)	1.50 (50.00)	1.75 (58.33)	1.68 (56.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	0.85 (85.00)	0.70 (70.00)	0.79 (79.00)	1.00 (100.00)	0.15 (15.00)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2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국민소통 및 혁신	국민소통	2	0.89 (44.50)	1.70 (85.00)	1.38 (69.00)	1.53 (76.50)	0.98 (49.00)
재무예산 관리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98 (99.00)	1.94 (97.00)	1.42 (71.00)	1.86 (93.00)	1.90 (95.00)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 관리	2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총점		12	9.16 (76.33)	9.94 (82.83)	9.09 (75.75)	10.14 (84.50)	8.71 (72.58)
순위			3	2	4	1	5

* 한식진흥원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세부지표로 인하여 0.5점 만점으로 계산 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 해당 가중치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69.72%)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69.15%) > 국제식물검역인증원(67.23%)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7.01%) > 한식진흥원(52.12%)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33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는 불가능하여 취득 총점의 백분율을 비교 수행하였다. 대체적으로 백분율은 2019년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62.50%→69.7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한식진흥원(68.50%→52.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6.00%→67.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00%→67.23%)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 러스터진흥원
경영전략과 리더십	전략기획	3	2.40 (80.00)	1.80 (60.00)	2.10 (70.00)	1.50 (50.00)	2.40 (80.00)
	경영개선	1	0.80 (80.00)	0.70 (70.00)	0.60 (60.00)	0.50 (50.00)	0.80 (80.00)
	리더십	1	0.70 (70.00)	0.60 (60.00)	0.50 (50.00)	0.50 (50.00)	0.70 (70.00)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5	4.00 (80.00)	4.00 (80.00)	3.50 (70.00)	3.00 (60.00)	4.00 (80.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60 (80.00)	1.60 (80.00)	1.60 (80.00)	1.40 (70.00)	1.00 (50.00)
	안전 및 환경	5	4.31 (86.27)	4.71 (94.17)	4.49 (89.74)	4.60 (92.00)	4.42 (88.38)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0.40 (40.00)	0.80 (80.00)	0.80 (80.00)	0.70 (70.00)	0.80 (80.00)
	윤리경영	3	0.60 (20.00)	1.80 (60.00)	1.80 (60.00)	1.20 (40.00)	1.80 (60.00)
국민소통 및 혁신	혁신 노력 및 성과	3	2.20 (73.33)	2.10 (70.00)	2.10 (70.00)	1.10 (36.67)	2.00 (66.67)
재무예산 관리	재무예산 운영·성과	1	0.90 (90.00)	0.90 (90.00)	0.50 (50.00)	0.70 (70.00)	0.70 (70.00)
	조직·인사 일반	2	1.20 (60.00)	1.40 (70.00)	1.20 (60.00)	0.80 (40.00)	1.40 (70.00)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4	2.00 (50.00)	2.00 (50.00)	2.00 (50.00)	0.80 (20.00)	1.60 (40.00)
	노사관계	2	1.00 (50.00)	0.60 (30.00)	1.00 (50.00)	0.40 (20.00)	1.20 (60.00)
총점		33	22.11 (67.01)	23.01 (69.72)	22.19 (67.23)	17.20 (52.12)	22.82 (69.15)
순위			4	1	3	5	2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2) 지표별 평가결과

- 경영전략과 리더십(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지표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가치체계 진단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핵심가치 재해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지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사회형평적 활동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윤리경영 측면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 지표의 비계량 지표인 혁신 노력 및 성과의 경우 한식진흥원은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였으나, 한식진흥원을 제외한 4개 기관은 세부항목 전체에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5개 기관 모두 사업비 집행률은 양호하나 한식진흥원은 사업비 집행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에서는 계량지표인 총인건비 관리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기준 2.80% 이하를 준수하여 만점(2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1.80%이나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3.80% 이하인 기준에 따라 3.80% 이하를 준수하여 만점(2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비계량지표인 보수 및 복리후생, 노사관리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모두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한식진흥원의 경우 보수 및 복리후생 세부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경영전략과 리더십(5점 만점)

○ 5개 기관 모두 ‘경영전략과 리더십’ 편람상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전략기획(3점)

- 전략기획 비계량 지표의 경우 평가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각각 B+(2.4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0(2.1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C(1.80점), 한식진흥원이 D+(1.5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모두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는 기관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핵심가치의 내재화 및 실질적인 구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식진흥원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개선(1점)

- 경영개선 비계량 지표의 경우 평가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각각 B+(0.8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0(0.7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C(0.60점), 한식진흥원이 D+(0.5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의 분야에서는 다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환경분석, 조직진단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식진흥원의 경우 한식에 대한 정책환경 및 기관의 고유사업과 연계한 환경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더십(1점)

- 리더십 비계량 지표의 경우 평가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각각 B0(0.7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C(0.6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한식진흥원이 D+(0.5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모두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노력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기관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한식진흥원의 경우 평가편람에서 제시하는 평가내용에 따른 성과제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사회적 가치구현(22점 만점)

- 5개 기관 모두 ‘사회적 가치구현’ 편람상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일자리 창출(8점)

- 일자리 창출 비계량 지표의 경우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각각 B+(4.0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0(3.50점), 한식진흥원이 C(3.0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 계량지표는 한식진흥원 1.75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1.68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6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1.5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44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5개 기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없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2019.11) 「2020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준거하여 연도별 계획(누적)대비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100% 전환 (누적)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자리로 적합한 업무의 식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3점)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1.60), 한식진흥원이 B0(1.40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

터진홍원이 D+(1.0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지표의 경우 한식진홍원이 1.0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0.85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0.79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0.70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0.15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한식진홍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세부지표로 인하여 0.5점 만점의 0.5점을 획득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를 0.5점 만점으로 계산 후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1.00점으로 나타났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었지만, 여성 관리자 목표 비율 설정 타당성 제고가 요구되었으며, 사회형평적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 대상별 적합 업무 발굴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특히, 고졸자,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별 설문/의견 조사 활동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및 환경(5점)

- 안전 및 환경의 환경보전 비계량 지표 중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항목의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0.40점)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홍원이 B0(0.35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C(0.3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D+(0.25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 제품 구매실적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0.46점, 한식진홍원이 0.25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0.12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0.09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0.06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안전 및 환경의 재난 및 안전관리 비계량 지표의 경우 5개 기관 모두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아 만점(4.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노력 및 성과가 지표의 세부 평가내용과의 지표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은 제시되고 있었으나, 근로자 피해방지를 위한 내부 제안제도의 도입 가능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3점)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지표의 경우 5개 기관 모두 만점(2.00점 만점)을 평가 득점으로 획득하였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B+(0.80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이 B0(0.7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D0(0.4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모든 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여러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윤리경영(3점)

- 윤리경영 비계량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C(1.80점)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이 D0(1.2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E0(0.6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특정감사에서 폭행, 성폭행, 음주운전 등 9건의 사건사고가 적발된 점이 반영되어 최저점을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윤리경영체계 구축 개념 및 추진 방향 설정의 체계성 부분에서는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기관 모두 다양한 자체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특정감사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 4개 기관 또한 타 기관의 사례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5점 만점)

- 5개 기관 모두 ‘국민소통 및 혁신’ 편람상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혁신 노력 및 성과(3점)

- 혁신 노력 및 성과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편람에 따라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 중점추진과제의 성과 1.00점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기관별 평가 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B+(0.80점), B0(0.70점), B0(0.70점)로 총점 2.2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0(0.70점), B0(0.70점), B0(0.70점)로 총점 2.10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B0(0.70점), B0(0.70점), C(0.60점)로 총점 2.00점, 한식진흥원이 D+(0.50점), D0(0.40점), E0(0.20점)로 총점 1.1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모두 나름대로 혁신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다만, 적극행정의 경우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규정의 해석(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 등) 해 직원에 전파하기를 권장하며, 소극행정 또한 유형(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을 구분해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민소통(2점)

- 국민소통 계량지표의 고객만족도 지표(1점 만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농림축산식품부 (2020.12) 「2020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기관별 고객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및 평가 득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85.7점으로 1.0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89.6점으로 0.98점, 한식진흥원은 84.0점으로 0.93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84.7점으로 0.89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78.3점으로 0.78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국민소통 계량지표의 경영정보공시 지표(1점 만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기재된 기관별 공시 종합 별점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의 배점 기준에 따라 가중치 1점에 적용하였다. 기관별 경영정보 공시 평가결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별점 2.5점으로 0.7점, 한식진흥원의 경우 별점 3.1점으로 0.6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별점 10점으로 0.4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별점 19.5점으로 0.2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별점 21.5점(기관주의)으로 0점의 순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5점 만점)

○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의 사업비 집행률은 모두 90% 이상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식품검역인증원(64.00%)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므로 이월금을 만들어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3점)

-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 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A0(0.90점)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B0(0.70점), 식물검역인증원이 D+(0.5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지표의 경우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액/사업비 예산현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비 집행률은 98.78%로 가장 높아 1.98점을 취득하였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6.33%로 1.94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93.86%로 1.90점, 한식진흥원은 91.09%로 1.86점,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은 64.00%로 1.42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양호하나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비교적 연간 계획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식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4/4분기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의 경우 기관의 예산운영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은 있으나, 5년 연속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며, 전년 74.5%에 비해 10%p 이상 감소하였다.

○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2점)

- 조직·인사 일반 비계량 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B0(1.40점)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이 C(1.20점), 한식진흥원이 D0(0.8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직원들의 니즈 파악 및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실적보고서상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수치가 어떠한 근거로 유의미한 실적인지 제시가 부족하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8점 만점)

- 5개 기관 모두 ‘보수 및 복리후생’ 편람상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보수 및 복리후생(4점)

- 보수 및 복리후생 비계량 지표의 경우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D+(2.00점)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D0(1.60점), 한식진흥원이 E0(0.8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모두 복리후생비는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유사기관 대비 낮은 복리후생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낮은 복리후생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총인건비 관리(2점)

- 총인건비 관리 계량지표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2.80% 이하/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3.80%)를 평가하는 지표로, 5개 기관 모두 2.00점 만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2.73%, 한식진흥원이 2.5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08%,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2.0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7.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모든 기관이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 2.80%(8.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사관계(3점)

- 노사관계 계량지표의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C(1.20점)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D+(1.0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E+(0.60점), 한식진흥원은 E0(0.4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법령 기준에 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분기 내 운영을 위한 시점 준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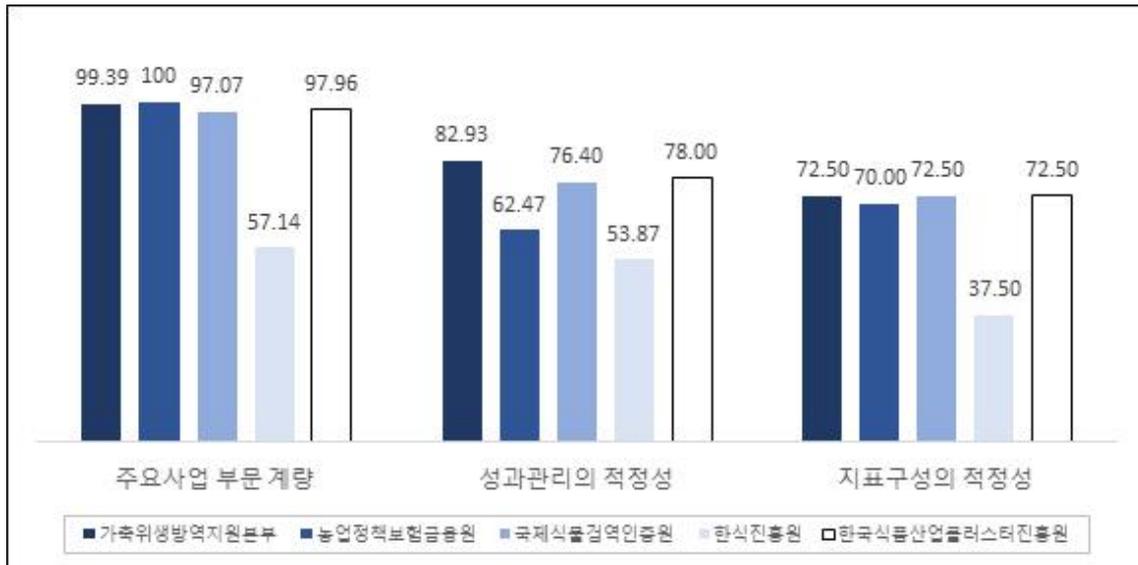
② 주요사업 범주

(1) 종합 득점 결과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55점 만점)을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8.97점(89.04%)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7.83점(86.96%)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7.34점(86.0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5.77점(83.22%) > 한식진흥원 28.58점(51.96%)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5개 기관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계량지표 27.83점, 비계량 지표 21.14점, 합계 48.9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계량지표 27.43점, 비계량 지표 20.40점, 합계 47.83점을 획득하였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지표 27.18점, 비계량 지표 20.16점, 합계 47.34점을 획득하였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 28.00점, 비계량 지표 17.77점, 합계 45.77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에서 16.00점, 비계량지표에서 12.58점으로 합계 28.58점을 획득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중 주요사업 부문(계량지표) 총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8점(100.00%)으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27.83점(99.39%),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27.43점(97.96%),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27.18점(97.07%), 한식진흥원이 16.00점(57.14%)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전체 7개 주요사업 지표 중 3개 지표에서 고의적 허위 경영실적을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총괄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해당 지표를 0점 처리하였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의 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2.44점(69.11%)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11.70점(65.00%),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11.46점(63.6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9.37점(52.06%), 한식진흥원이 8.08점(44.89%)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의 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8.70점(72.5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8.40점(70.00%), 한식진흥원이 4.50점(37.50%)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주요사업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

(단위 : %)



○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100.0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9.39%)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97.96) > 국제식품검역인증원(97.07%) > 한식진흥원(57.14%) 순으로 나타났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체 계량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여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한식진흥원은 전체 7개 주요사업 지표 중 3개 지표에서 고의적 허위 경영실적을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총괄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해당지표를 0점 처리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 보다 하락한 28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는 불가능하여 취득 총점의 백분율을 비교 수행하였다. 대체적으로 점수는 2019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97.10%→100.0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한식진흥원(99.93→57.14%), 국제식품검역인증원(98.00%→97.1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00.00%→99.39%)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계량지표) 점수 종합>

(단위 : 점, %)

구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8.00 (100.00)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	10.00 (100.00)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4.63 (97.53)	한식 인지도 확산 추진 성과	0.00 (0.00)	분양기업 유치 성과	8.00 (100.00)
2	시료채취(AI) 달성률	4.00 (100.00)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6.00 (100.00)	안전사고 예방률	4.92 (98.40)	한식정보분석 조사·연구 결과 활용도	0.00 (0.00)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6.00 (100.00)
3	농장 예찰(예찰 실시 결과보고) 달성률	4.00 (100.00)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4.00 (100.00)	AGM 예찰 활동률	3.81 (95.25)	한식당 지원 성과	4.00 (100.00)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5.00 (100.00)
4	축산물 위생사업	7.00 (100.00)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4.00 (100.00)	수입계식용식품 검역 장소 관리 성과	3.82 (95.50)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국내 내수경제 촉진	3.00 (100.00)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3.00 (100.00)
5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4.83 (96.60)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4.00 (100.00)	-	-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 성과	4.00 (100.00)	기업지원 新 인프라 구축 성과	4.43 (88.60)
6	-	-	-	-	-	-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	5.00 (100.00)	안전사고 예방 실적	1.00 (100.00)
7	-	-	-	-	-	-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0.00 (0.00)	-	-
총점 (28)	27.83 99.39%	28 100.00%	27.18 97.07%	16 57.14%	27.43 97.96%					
순위	2	1	4	5	3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8.30%)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75.56%)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4.6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65.81%) > 한식진흥원(46.59%)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 보다 상승한 27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는 불가능하여 취득 총점의 백분율을 비교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9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1.00%→78.30%),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00%→74.67%)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67.33%→65.81%), 한식진흥원(56.00%→46.59%)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2.44 (82.9)	9.37 (62.5)	11.46 (76.4)	8.08 (53.9)	11.70 (78.0)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8.70 (72.5)	8.40 (70.0)	8.70 (72.5)	4.50 (37.5)	8.70 (72.5)
총점	27	21.14 (78.30)	17.77 (65.81)	20.16 (74.67)	12.58 (46.59)	20.40 (75.56)
순위		1	4	3	5	2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2) 지표별 평가결과

- 5개 기관이 공통으로 계량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나, 비계량지표 중 지표구성의 적정성의 경우 기관별 득점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제외한 4개 기관 모두에서 지표구성의 적정성이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와 비교하여 득점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한식진흥원의 경우 평균 이하의 득점을 취득한 바, 기관의 비전과 전략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의 선정, 목표치의 도전성 확보 등이 더욱 심도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주요사업 계량평가(28점 만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8점 만점), 시료 채취(AI) 달성률(4점 만점), 농장예찰(예찰실시 결과보고) 달성률(4점 만점), 축산물위생사업(7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수입식용축산물 현물 검사사업은 4.83점(96.60%)을 획득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10점 만점),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6점 만점),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4점 만점), 모태펀드 출자 승수 비율(4점 만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4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은 14.63점(97.53%), 안전사고 예방률은 4.92점(98.40%), AGM 예찰 활동률 3.81점(95.25%), 수입재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는 3.82점(95.500%)을 획득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 결과, 한식당 지원 성과(4점 만점), 음식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 내수 경제 촉진(3점 만점),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 성과(4점 만점),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한식 인지도 확산 추진 성과(3점 만점), 한식정보분석 조사·연구 결과 활용도(3점 만점),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6점 만점)의 경우 허위 경영실적 보고 시 조치에 해당하여 해당 지표 0점 처리되어 0점을 획득하였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분양기업 유치 성과(8점 만점),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6점 만점),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5점 만점),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3점 만점), 안전사고 예방 실적(1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는 4.43점(88.60%)를 획득하였다.
- 전체 기관이 다양한 환경적 제약이 발생함에도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여 높은 달성률이 나타났으나, 지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주요사업 지표가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할지에 대한 내용 및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성과관리의 적정성(15점 만점)

-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2.44점(82.93%)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11.70점(78.00%),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은 11.46점(76.46%),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37점(62.47%), 한식진흥원은 8.08점(53.87%)의 순으로 획득하였다. 한식진흥원을 제외한 4개 기관은 주요사업의 성과관리가 대체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각 기관의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였으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미흡점이 나타나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매해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를 상회하

여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의 하나인 ‘HACCP운용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HACCP 관련 기초 및 도축장에서의 실무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년도 경영평가단이 SWOT 분석과 실행계획의 연계성이 분명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기관은 사업관리부서 자체 회의와 경영실적TF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조치하였다. 기관은 SWOT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이 서로 연결되도록 넘버링하여 연계성을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SWOT분석과 실행계획의 연계성 및 그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AGM 대발생이 지속되는 환경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개정 및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의 도입은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늘어나는 업무량 및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정규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식진흥원은 성과관리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성과지표개발, 주요사업 도출 및 선정 process가 미흡하므로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목표치 설정의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며, 자원배분 계획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020년 세부 사업별 실행과제의 경우, SWOT분석의 내용과 추진 전략 그리고 세부 사업간 매칭이 잘되고 있으나,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동하면서 예산 일부가 감축되었고, 동시기에 인력은 증가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조직 운영상의 밸런스를 조정하여, 조직의 운영 합리성이 예산과 업무량으로 연계되는 것이 제시될 필요성 있다. 당장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기 보다 탄력적 운용을 하는 점을 제시하는 것을 권한다.

③ 지표구성의 적정성(12점 만점)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8.70점(72.50%)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8.40점(70.00%), 한식진흥원이 4.50점(37.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5개 기관 공통으로 주요사업 대표지표 선정을 위해 SMART 분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현재의 계량지표가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격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존재했다.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격에 맞는 계량지표 개발 및 선정 방식에 대해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매년 축산물위생사업 관련 성과지표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외부기관의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개체선별 과학화 반영지표(중장기계획)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 니즈 파악, 전문가 자문, 실현 가능성 등이 모두 종합되어야 한다. 차년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현재 제시한 지표 내용은 전년도 평가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지표 pool을 차년도 경영평가 시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현 제시한 몇 개의 지표로는 대표지표의 적절성 등 파악에 한계가 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대표지표는 사업과 직결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임계치에 다다른 지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되고 있는 예비, 보조지표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식진흥원은 전년도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이 핵심성과지표를 SMART분석을 통해 뽑았다고 했으나 의문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 평가 또한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성과지표는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지표 pool을 제시한 후, 최종성과지표를 선정한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산출, 되도록 결과단계에서 제시해야 한다. 지표의 가중치 또한 사업규모, 목적 등을 고려하고 AHP, 기타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성과지표 검토결과, 안전사고 예방실적의 산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 제시한 지표도 타 공공기관의 유사사례를 적용해 문제는 없으나, 실적점수(건별)로 안전사고를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건수와 발생인원 등이 종합된다면 더 좋은 산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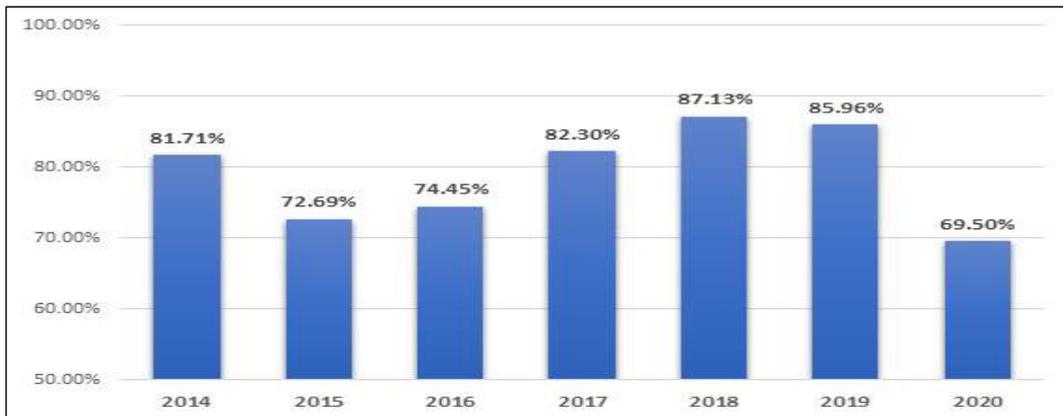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1.24점으로 '19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5년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며 '19년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4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사업 범주 또한 '14년 첫 평가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평가편람상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해당사유 발생(폭행, 성폭행, 음주운전)' 으로 등급을 B로 하향 조정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근 7개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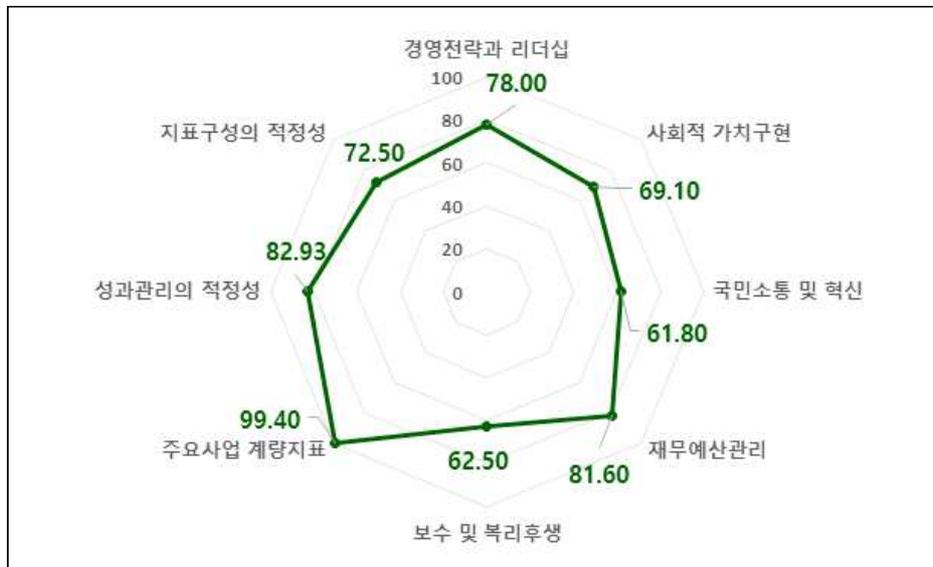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근 7개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소통 및 혁신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5대 지표 전체에서 모두 고른 성과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국민소통 및 혁신이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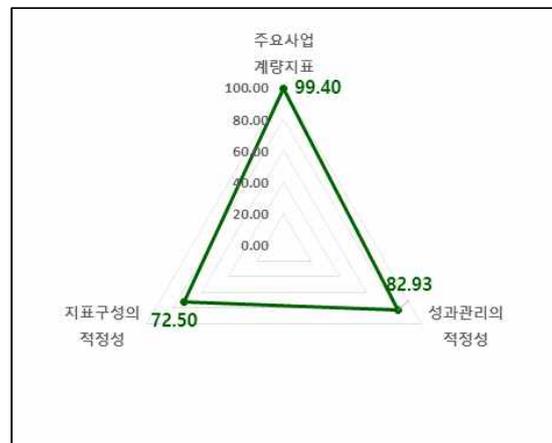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1.27/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 결과 핵심가치 타당성 발전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노력이 대체로 타당하며,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발전노력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집/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비전 및 혁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4차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적극 행정 정착 및 체계고도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내세웠다. 이는 기관이 이루어야 할 비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가시적인 성과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최근 4년 예산집행률은 모두 98% 이상으로 우수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환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에 가까운 예산집행률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인사평가제도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이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② 주요사업(48.97/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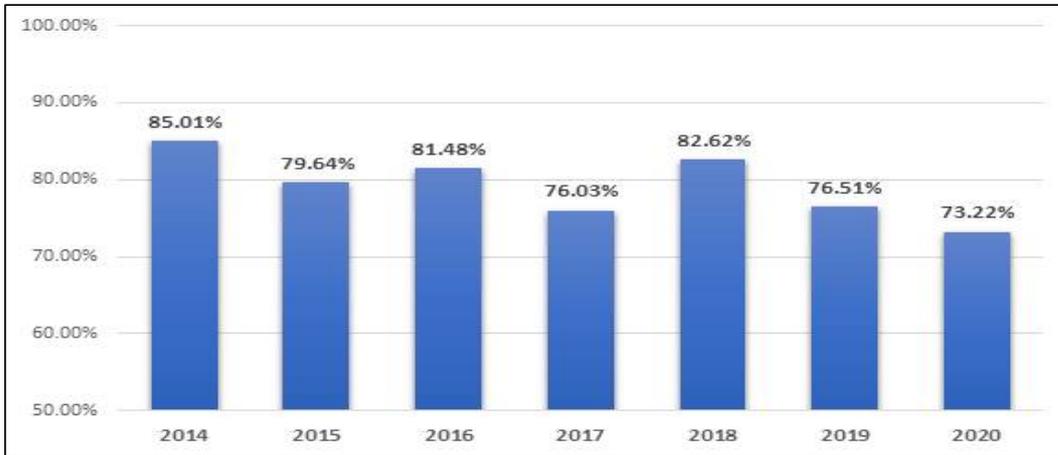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치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식용축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현행 평가지표에 근거하면 업무수행은 양적으로 우수하며, 업무효율 또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가축방역사업, 축산물위생사업 모두 산출 또는 결과단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제시한 지표를 대표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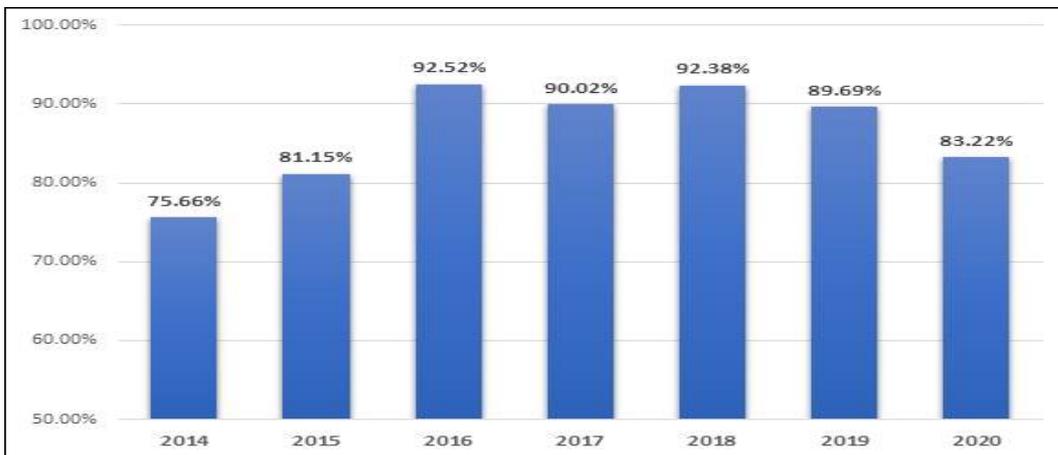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79.72점으로 '19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4년도 평가 이후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사업 범주는 평가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최근 7개년 경영관리 득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최근 7개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의 득점이 가장 낮게 나타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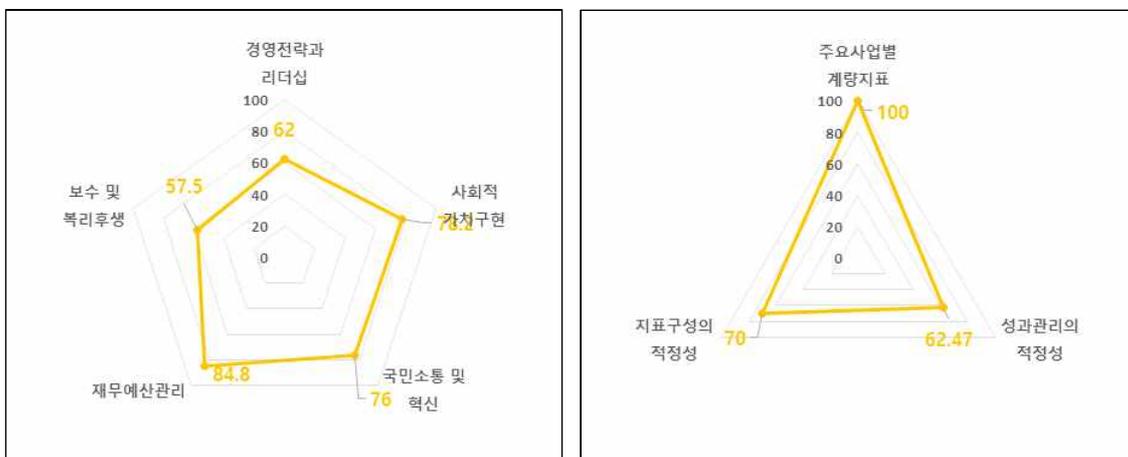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2.95/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핵심가치 의미 재설정을 통한 핵심가치의 실행력 강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구축 노력도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노력은 대체로 타당하며,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조한 장애인 채용 노력도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 지적사항이었던 공정경제로의 기반구축, 적극 행정 확산 등을 조치한 흔적이 보여 긍정적이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 지적사항인 예산편성을 위한 프로세스의 개선, 모니터링을 통한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 기존 대비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성과가 인정된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 하였으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설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성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② 주요사업(45.77/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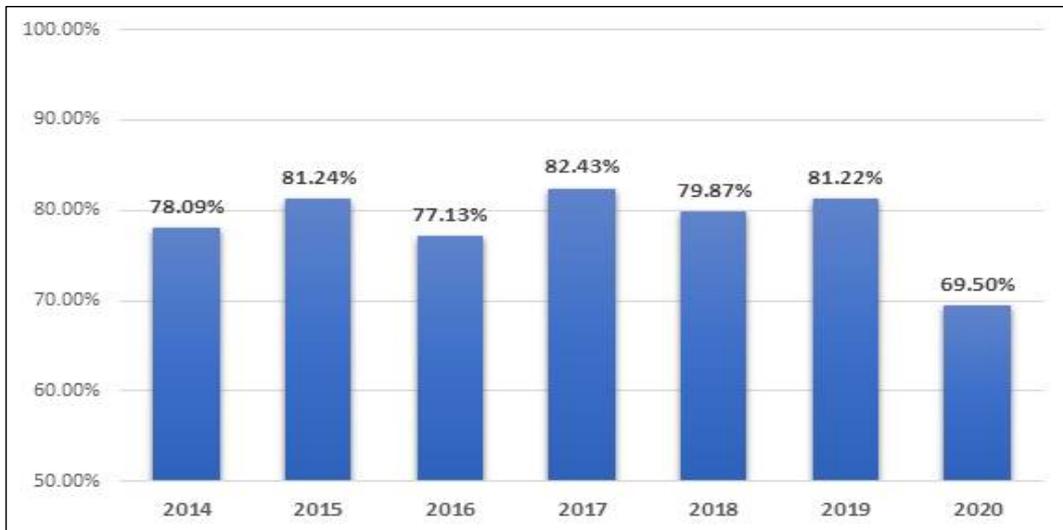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83)일 동안 현장검사 출장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검사가능일수 250일의 33.2%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으나 검사 가능 일 수가 줄어든 폭보다 검사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어서 기관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나온 실적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하고 APFS Top7 분석으로 최종적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도출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지표의 선정기준은 명확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CSF, 사회적 가치와 연계성이 있으며, 목표와 부합되어 최종 대표지표로 선정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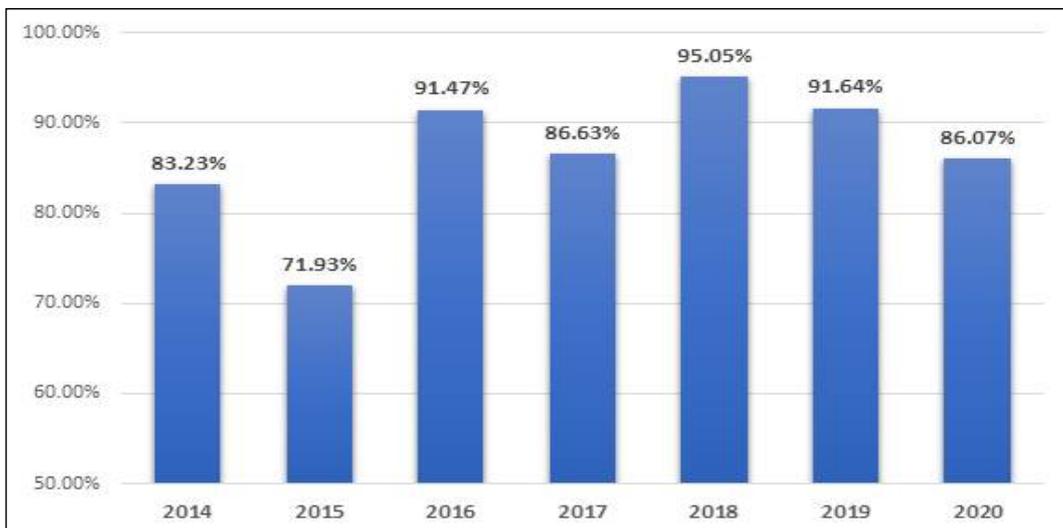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79.62점으로 '19년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및 주요사업 범주 모두 '14년 평가 이후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최근 7개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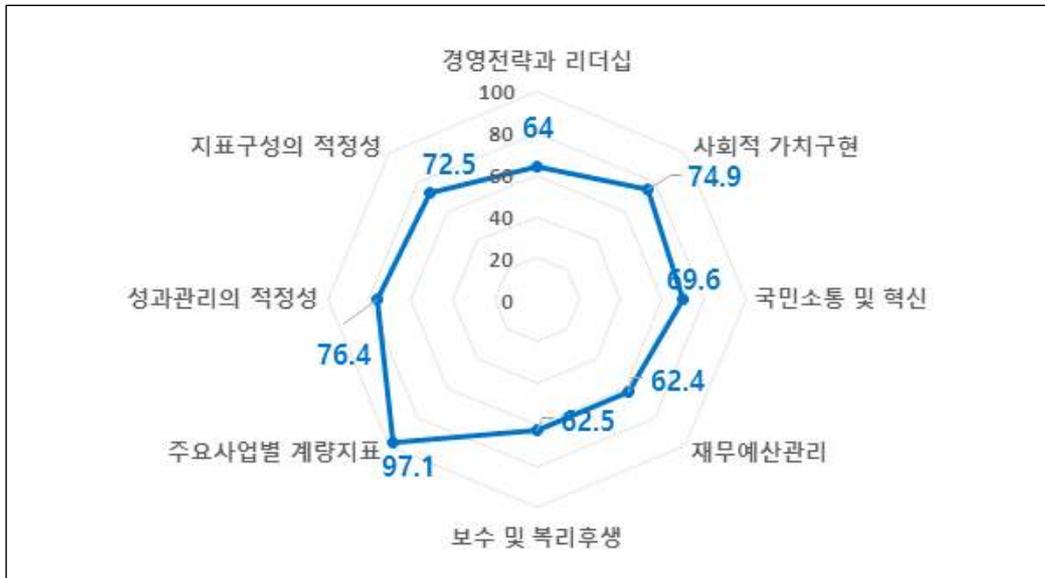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최근 7개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별 계량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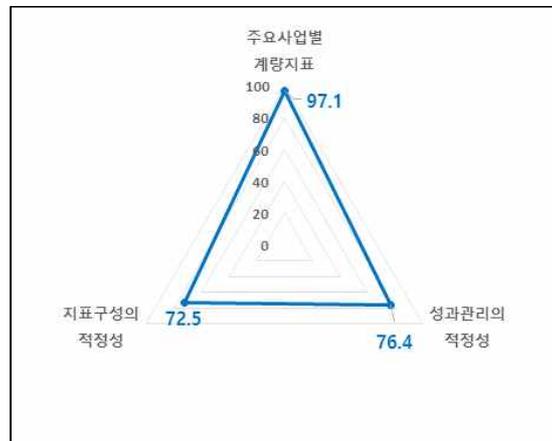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1.28/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및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비전 정의에서 인증기관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정현원차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타당하나,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가시화되도록 관리체계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공공기관 역할 강화, 국민 신뢰향상을 통한 국민소통 경영이행 등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어 긍정적이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기관의 예산운영 특성 상 불가피한 부분은 있으나, 5년 연속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계획 및 활동이 다소 느린 편이다.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과 실제 직무급 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주요사업(47.34/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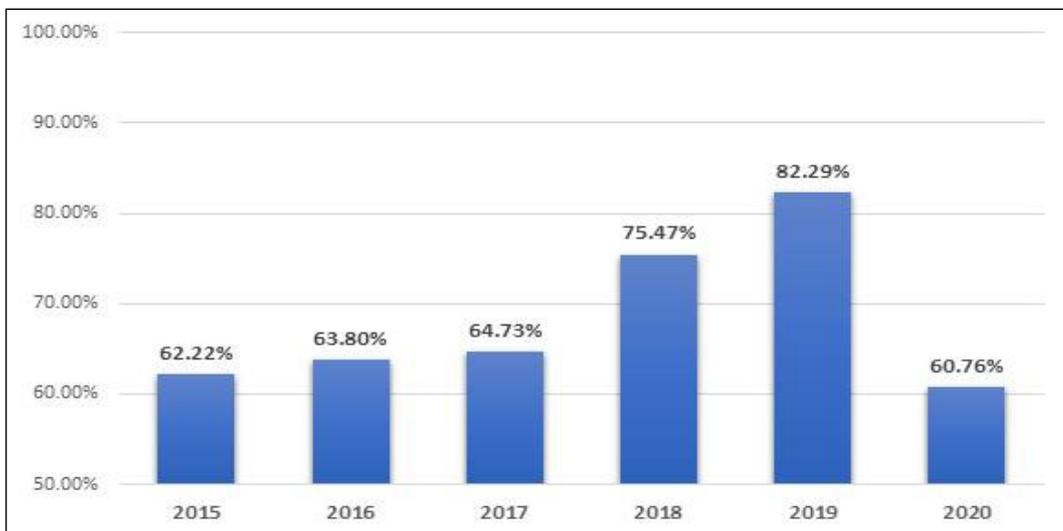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AGM대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 AGM 검출건수는 감소한 반면 난괴제거 실적이 82% 증가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기관설립 이후 AGM발생 및 방제 기록을 활용하여 DB 구축을 본격화하고 국내 발생 시기, 방제 시기, 환경요인 분석 등 다중요인 분석으로 예찰 및 방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지적사항이던 상대국 AGM검출지표의 배점을 낮추고 안전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지표별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각 지표의 수집(데이터의 신뢰성)방법이 명확하다.

4 한식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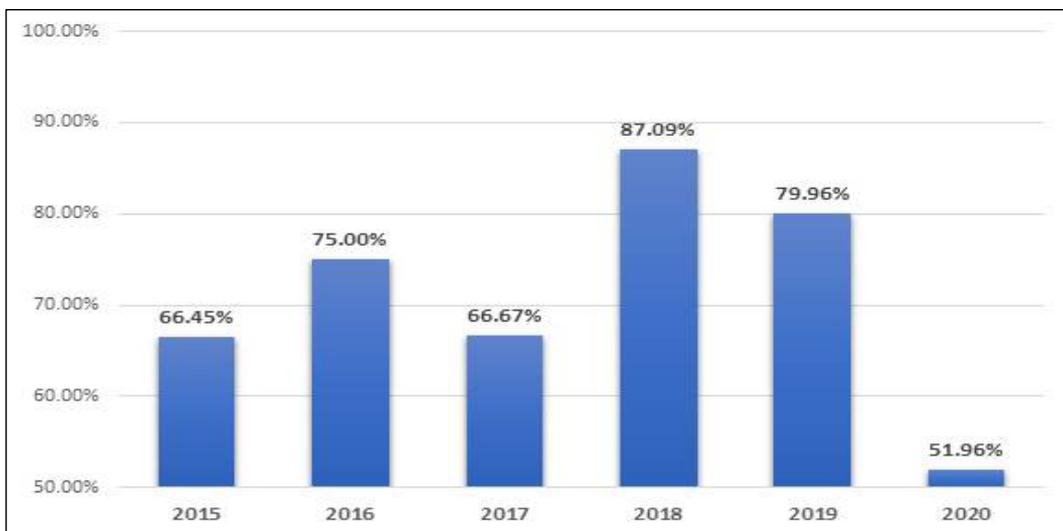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55.92점으로 '19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5년도 평가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19년도 평가에서는 타 기관 대비 준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범주는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량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 최근 6개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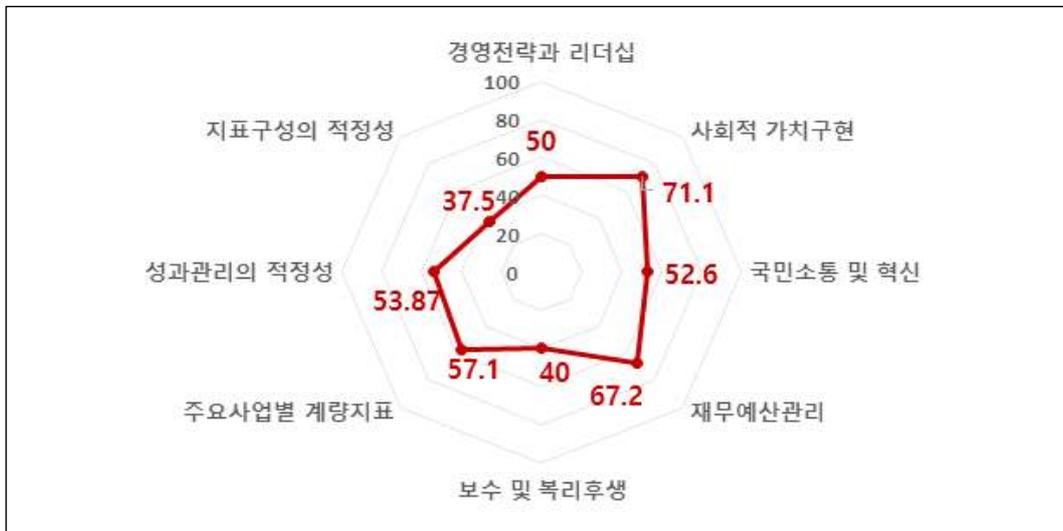
<한식진흥원 최근 6개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득점으로 나타나 지표구성 및 성과관리에 노력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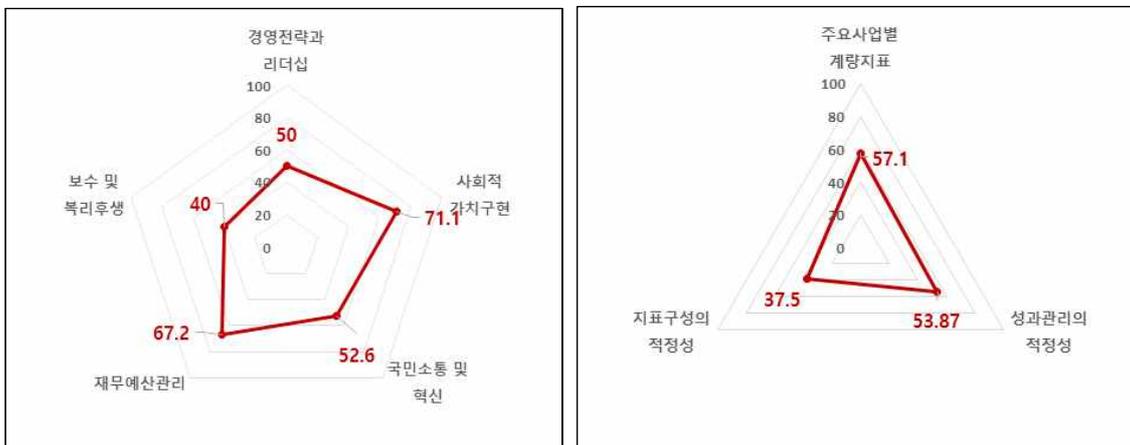
<한식진흥원 '20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한식진흥원 '20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27.34/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한 경영상의 개선 및 부분적 프로세스 간소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음.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 등을 동반한 개선대안 도출 및 개선안 선정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한식진흥원은 한식진흥법령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한식진흥 정책 중장기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To be)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외국 및 국내의 여건 등을 분석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흥원의 역할을 정립한 점이 긍정적이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4/4분기 집행률이 40% 이상인 것이 확인되어 계약잔금 등이 12월에 집중되는 점이 고려되더라도, 3분기까지의 집행률이 낮은 편이므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9단계 직무급제 구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기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특성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28.58/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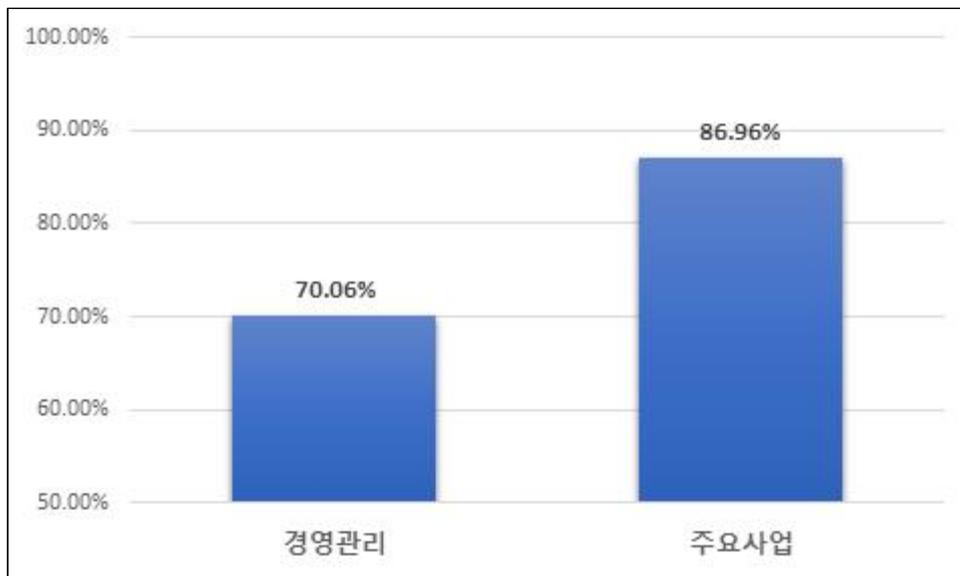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한식 인지도 확산 추진 성과(3점 만점), 한식 정보분석 조사·연구 결과 활용도(3점 만점),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6점 만점)의 경우 허위 경영실적 보고 시 조치에 해당하여 해당 지표 0점 처리되어 0점을 획득하였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관리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성과지표개발, 주요사업 도출 및 선정 process가 미흡하므로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지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내용 또한 부재하다. 향후 활용하기 위한 지표일 경우 자세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79.96점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처음 받았으며,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20년도 평가에서는 타 기관 대비 준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요사업 범주 성과 또한 '20년도 평가에서는 타 기관 대비 준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년도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별 계량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 소통 및 혁신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소통 및 혁신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별 계량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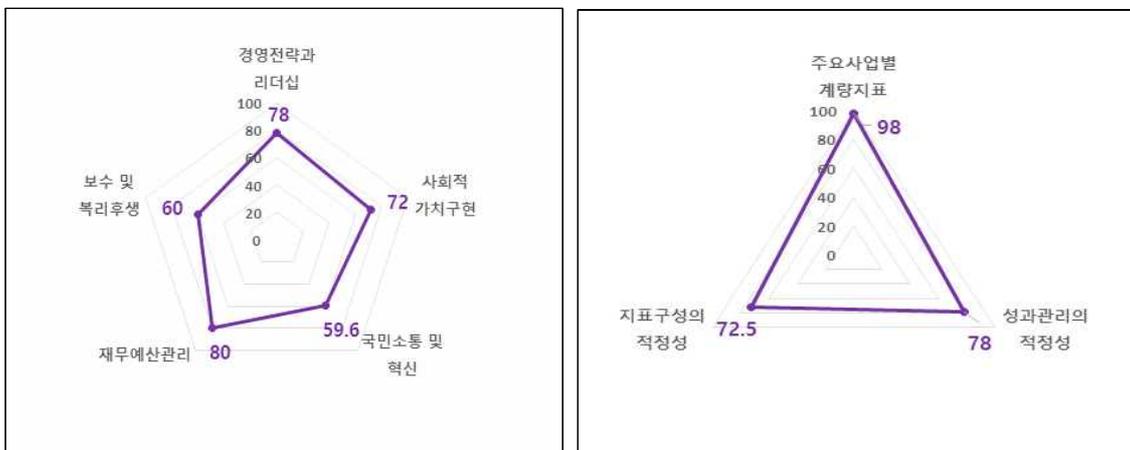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1.53/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사무규칙 개정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내, 외부의 역할분담이 적절해 보이며, 주요역할별 회의주기 등도 적절하다.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19년 대비 2배 이상 운영하였으며, 보상체계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9월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 확인하였으며, 9월 말 시점의 집행률은 54%로 나타나 계약잔금 등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공감대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47.83/55점)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축 등으로 인하여 다수기업의 투자유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3개년 평균 분양실적보다 25%나 상향해서 분양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외부지적사항인 분양기업 유치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투자유치 여건개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당해연도 분양유치목표를 초과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지표 pool을 제시한 후, 최종성과지표를 선정된 프로세스가 적절하며, 지표의 가중치 또한 사업규모, 목적 등을 고려할 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Ⅲ.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특점	가중치	특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3	B+	2.40		
	(2) 경영개선	1	B+	0.80		
	(3) 리더십	1	B0	0.70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5	B+	4.00	3	1.4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1	0.85
	(3) 안전 및 환경	5	D+/A+	4.3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D0	0.40	2	2.00
	(5) 윤리경영	3	E0	0.60		
	3.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B+/B0/ B0	2.20		
	(2) 국민소통				2	0.89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1	A0	0.90	2	1.98
	(2) 조직·인사일반(삶의 질 제고)	2	C	1.20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	2.00		
	(2) 총인건비 관리				2	2.00
	(3) 노사관계	2	D+	1.00		
경영관리 합계(31.27)		33	-	22.11	12	9.16
주요사업	1. 가축방역사업					
	(1) 시료채취(4대 질병) 달성률				8	8.00
	(2) 시료채취(AI) 달성률				4	4.00
	(3)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4	4.00
	2. 축산물위생사업					
	(1) 축산물 위생사업				7	7.00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5	4.83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2.4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8.70			
주요사업 합계(48.97)		27	-	21.14	28	27.83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0.5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0.5		
총계				81.24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비계량)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핵심가치 타당성 발전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가치체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내재화 프로세스 관리개념 및 가치공유수준진단 등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실행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노력은 타당하다.
- 다만, 기관차원의 전략과제와 연계된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개념의 명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실행관리 측면에서 PDCA의 주기 및 기능별/부서별 KPI와의 연계관리 체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차원의 비전/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SWOT 분석을 위해서는 비전/핵심가치 구현과 연계된 내부역량의 강·약점 요소의 적절성 검토가 요구된다.
- 가치체계 진단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핵심가치 구체화 노력, 가치체계 내재화를 위한 비전·가치 공유수준 진단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가치 요소별 실행성과 창출 노력, 기존 경영목표의 적정성 검토 노력, 경영목표와 연계된 전략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도출 노력, PDCA 기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다만,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과 연계된 가치개념의 명확성 제고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기관의 효율성 수준 진단/분석을 통한 비효율 요소의 구체화 및 발전방안 구체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기능별 업무특성 및 실행과제

유형별 핵심 KPI의 구체화 및 PDCA 주기 별 관리체계 정립 노력 강화, 기관의 핵심 가치와 연계된 내부역량의 강·약점 요소의 구체적 식별을 통한 SWOT 분석 체계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비계량)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식별 및 혁신성, 공공성, 생산성 측면에서 사업/기능의 타당성/적절성 평가를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며 신성장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 등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지속적 강화 및 발전을 위한 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현 관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업무프로세스 혁신은 신기술의 활용, 일하는 문화 및 방법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사항이므로, 기관의 기능별/조직별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타당성 측면에서 진단/분석 및 관리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관이 도출한 경영개선 핵심과제의 구현 및 지속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장 상임화 또는 하부조직 관리체계 혁신 등의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 환경분석을 통하여 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의 필요성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노력, 기관의 혁신/신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을 통한 경영개선분야 식별 및 경영개선

분야 세부과제 도출 노력,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하는 방법 및 문화의 혁신 측면에서 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체계 정립, 기관장 상임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 및 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하 조직에 대한 현 관리체계의 적절성/타당성 진단/분석을 통한 조직구조 발전 방안 정립 필요성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3) 리더십(비계량)

③ 리더십(비계량)

- 경영계약 이행 노력·성과,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중기계획을 통한 경영계약 이행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성과지표와 연계된 측정방법의 충분성, 타당성 측면에서는 발전이 요구된다. 핵심가치 구현, 업무혁신, 업무보상 등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주요 현안과제 식별 범위의 확대 및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비상임 이사진의 전문성 제고 및 경영참여 확대 등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부분적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의 역할 대비 현 역할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대응방안별 기관장의 대응노력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기관장의 성과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설정 노력, 기관장의 동기부여 메시지 및 업무보상 실현 등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 비상임 이사진 구성, 경영제언 확대를 통한 이사회실의 실질적 역할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성과목표와 연계된 중점관리요소를 식별(계량, 비계량)하고, 성과지표별로 추구하는 실질적 목표유형의 구체화가 전제된 1개 이상의 측정 요소 또는 기준적용의 필요성 검토 강화가 필요하다. 중기 연도별 목표의 구체적 제시 및 목표설정의 구체적 논리체계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을 정착 또는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관장의 노력활동 제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현안과제 도출 배경 및 과제별 문제유형 구체화 노력 강화(기관운영, 주요 사업분야 관련 현안과제의 유·무에 대한 검토 기능 강화), 기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현 이사회실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대내·외 인식공유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B0”로 평가한다.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	-	3.00	1.44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 선택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0.5~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5~1.5), 총합계 3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였다. 2020년도 전체고용인원 1,236명 중 청년고용인원 548명으로 44.34% 달성하여 1.00점 만점에 0.44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인원 0명으로 0% 달성하여 1.00점 만점에 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정규직 전환대상 없으며,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자리로 적합한 업무의 식별 및 시간선택제(주당 15~35시간 근무) 일자리 고용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 및 주요 실행과제 선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자체, 민간부문 구분된 연도별 목표의 구체적 제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의 질 개선과 연계한 추진 전략 및 계획의 구체화 제시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가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타당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세부평가내용에 제시된 사항의 반영 노력).
- 환경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사점 도출 및 분야별 주요실행과제 도출 노력, 사전 심사제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양산방지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노력, 신규사업 발굴 등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가능한 한 연도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기관 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의 질 개선과 연계한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적 제시(제시된 사항의 지표 적합성 검토), 정현원차 비율 축소를 위한 다각적 대안수립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세부평가내용 준수), 정원확대를 고려한 채용형 인턴 확대운영 강화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선택제 근무형태의 운영 타당성 검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자체 및 민간분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분야 및 분야별 접근체계 정립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	85.00%	1.00	0.85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0 ~ 0.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0 ~ 0.5),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0.0 ~ 0.6), 총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 결과 법정 의무 고용률 대비 77.06%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39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91.17%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4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대비 77.06%,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91.67%를 달성하였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되었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노력이 대체로 타당하며,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확대 노력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도 직군별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발전노력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집/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노력, 공정채용을 위한 추진체계 및 채용 프로세스 개선 노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청년, 고졸자,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정부 기준 준수 노력, 여성관리자를 위한 중기 목표수립 노력, 경력단절 여성이 지원 용이한 직종식별 및 채용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원 임명 양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 권고사항 준수 노력이 우수하다.
- 고졸 적합업무 식별 및 업무 특성과 연계된 고졸채용 체계 정립 검토,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가능성 및 제한요소 식별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수준의 의미 정립(최소 또는 최대 목표인지 구체적 제시), 취약계층 분야별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요소의 식별 및 개선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지역적 특성 및 업무수행과 연계한 유해환경 요소의 식별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축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환경보존 추진체계 정립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조직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해환경의 공통적, 차별적 요소를 식별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환경보존 활동 유형의 식별 및 활동관리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직무와 관련된 일하는 방식 등과 관련한 환경보존 노력의 필요성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환경보존/환경정화 프로그램 참여 횟수와 환경보전의 실질적 성과간의 연계수준의 구체화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준배출량 2,144tonCO₂-eq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74tonCO₂-eq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70tonCO₂-eq, 온실가스 감축률 3.27%로 온실가스감축 목표 30% 대비 10.90% 달성하여 0.25점 만점 중 0.03점 획득하였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이행도 70 가중치 중 16.615% 달성하여 14.538점 획득하였으며, 노력도 30 가중치 중 구매비율 증감분 -74.585% 달성하여 0점 획득하여, 총점 0.25점 만점에 14.538% 달성한 것으로 환산되어 0.25점 만점에 0.03점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사항은 대체로 타당하며, 재난관리시스템의 발전,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이 발전하고 있다. 근로자 유형별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의 식별 및 대응방안 도출 노력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사고보고·관리시스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기관의 특성과 연계하여 해당되는 사항이 누락없이 제시되도록 필요활동의 도출 및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 노력, 직원 업무 중 상시 노출되는 사고 유형의 식별 및 대응방안 수립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구축으로 확진자 발생 최소화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질병 조기검색을 위한 열상카메라, 드론 도입 노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적 노력, 안전관리조직 강화 및 제도정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중대재해 미발생)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드론 운영상의 안전관리요소 및 대응 노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제시가 필요하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일대일 대응개념의 성과제시 노력 강화되어야한다. 안전점검, 진단 노력 및 결과 제시 기능 강화, 축산농가 대상 개인정보 보고서 단계별 확보 목표의 구체화 노력 강화, 근로자 내부제안 제도 운영 등 세부평가내용 관련 성과제시 노력 강화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평가편람 기준에 따라 “A+”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4~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4~0.6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5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1.0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2점 만점에 0.2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2점 만점에 0.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5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최근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의 보고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계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 적극적 참여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세부평가내용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기관의 역량을 고려한 항목별 추진방안 및 추진성과 관리방안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화훼농가 소득지원 등 코로나19 취약업종을 포함한 지역상권 소득향상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협력·위탁업체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구매 및 용역추진 규모에 대한 정부권고 기준 준수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역량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발전 등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전반적 사항에 대한 추진가능성 및 목표수준의 가시화 노력 강화, 세부평가내용별 세부항목에 대한 성과제시 노력 강화,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별 지원가능요소 식별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D0”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국회 지적사항인 임원 전용차량 운행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배차신청 - 경영지원부 승인 - 반납 - 결재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운행일지에 필요한 내용들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윤리경영의 대상범위 중 인권경영을 분리하고 갑질근절을 위한 노력과 전직원 청렴서약 및 내·외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청렴의식 고취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체감찰 및 내부건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감사실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소속기관 종합감사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였다.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20년 14건의 접수 및 처리를 완료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장직이 많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계획 및 활동에 대한 노력은 인정되나 환류 계획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20년 자체 청렴강사 2명(’19년 3

명 포함 총 5명)을 양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강사양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청렴강사 활용하여 3회의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전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 결과 32%가 갑질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환류계획은 미흡한 수준이다. 기관의 중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접근권한, 접근절차, 결재 등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환류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을 위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모니터링 주체, 대상, 주기, 방법, 결과 환류 등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농림부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 부패행위 발생 Zero,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에서 폭행, 성폭행,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 9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농림부 타 기타공공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대한 사건사고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0”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비전은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혁신목표는 국민(축산농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도입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4차산업관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적극행정 정착 및 체계고도화를 통한

국민신뢰 제고를 내세웠다. 이는 기관이 이루어야 할 비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가시적인 성과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 먼저, 드론과 연계한 언택트 방역을 실시하였는데, ‘20년 시범사업으로 인한 향후 성과가 기대되며, 관련 일자리창출(18명)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질병조기검색에 운영하였는데,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은 4차산업 관련기술 활용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으며, 취약·위험지역 등의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도입은 혁신적인 성과라 볼 수 있으며,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관장 중심의 혁신관련 TF, 외부(네트워크, 위원회 등)와의 협업도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컨설팅을 통해 기관실정에 맞는 직무체계를 도출해 개선하였다.
- 혁신아이디어를 위한 자체 적극행정 사례 공모(17건)를 통해 우수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였으며,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노력이 돋보인다.
- 아쉬운점은 혁신전략이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의 도입 등 현 시대에 맞는 4차산업기반 관련 내용위주로 되어 있는 점이다. 관련 기대효과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혁신목표가 국민(축산농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이므로 지역상생, 마중물역할, 조금 더 다양한 농가와의 소통,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시 등이 아쉽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관련 어려움이 있을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환경변화로 인한 소통문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임·직원(노조), 축산농가, 관계기관, 정부자치단체, 국민 등)별 소통채널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임·직원(노조)와는 7회의 임금협약, 19회의 단체협약 실무교섭, 축산농가에는 ASF위협농가에 야생동물 전파차단 및 겨울철 송아지방한복 지급, 관계기관, 정부자치단체와는 소통을 통해 방역 전문가 양성, 열화상카메라 자격, 소비자와는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확대(전년대비 68%) 등의 성과를 이룬점이 인정된다.
-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수집완료를 ‘21년 6월까지 진행계획에 있으며, 국민생각공모전(가축방역분야 홍보 및 디지털 기술공모(63건 접수) 등을 통

해 국민과 소통하려 노력하였다.

- 또한 축산농장 DB의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방역취약 농가 집중점검(소규모, 도서지역 농가 관리강화), 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소규모 현행화 15,739호 추가등록, 도서지역 748호 점검 및 신규등록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 국민과 소통을 위해 생산문서 목록에 월단위 정보공개(홈페이지), 임원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축산DB실시간 열람 등을 실시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로 인한 성과는 7천건 이상의 문서목록을 공개하였으며, 축산DB통계책차 활용사례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 국민생각공모전을 실시, 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가축방역분야 홍보”와 “4차 산업분야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주제를 구체화한 점이 인정된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 관련주제의 구성, 전년대비 실적 등도 함께 제시해주길 바란다. 정보공개 처리건수의 경우 ‘19년 대비 평균일수가 감소한 것을 이의신청 기간에 확인하였다. 향후 평가보고서 작성 시 3일~ 4~7일 등도 함께 제시해주길 권장한다.
- 전년 평가 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지침 제정 및 구성을 통한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례를 선정하였다. ‘20년 또한 축산농가 대상 적극행정을 실시, 농가교육과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축산농가 맞춤형 사양관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안전축산물 공급에 기여하였다. 다만, 적극행정의 경우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규정의 해석(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 등)해 직원에 전파하기를 권장하며, 소극행정 또한 유형(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을 구분해 전파하기를 권한다. 소극행정의 경우 현재 부처에서도 사례가 나오기 쉽지않은 만큼 사례발굴보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점추진과제로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4차산업혁명·한국형 뉴딜선도를 제시하였다. 드론과 연계해 기존 접근이 어려운 축사지붕 및 질병발생지역 소독의 한계를 개선했으며,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파악, 예찰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관련 일자리창출 등의 성과를 이룩했으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가축질병의 조기검색 추진이 가능

해져 농가의 재산보호 등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 전년 지적사항인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프로세스(배경→추진과제 선정 프로세스→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실적)를 제시하였다. ‘20년에는 과제 pool-과제선정 기준-선정결과를 통해 중점추진과제 2개를 선정했으며,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차년도가 기대되는 성과를 보인 것은 인정된다. 다만, 사회적가치, 미래상, SMART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혁신추진위원회(20명)와 내부부서로 중점 추진과제가 2개가 선정되었다고 제시했는데 관련 프로세스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제시된 내용으로 이해하자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17개->기관 10대 혁신과제->위원회(내부포함)->2개의 중점과제로 확인되는데, 왜 2개의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 물론, 중점과제의 제시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는 크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계량)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4.7	88.75	1.00	0.89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와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4.7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89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8.1점, 2020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4.7점을 획득하였다. 2019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96.2점, 2020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89.4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전년대비 향상도는 86.1점을 획득하였다.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기관으로 8:2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88.75점을 획득하였다.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21.5 (기관주의)	-	1.00	0.00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21.5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와 별점은 종합 별점 21.5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00점을 획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한다.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9.5%를 달성, 전년 98.8%에 비해 0.2%p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최근 4년 예산집행률은 모두 98% 이상으로 우수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환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에 가까운 예산집행률을 보인 점은 부서 및 도본부의 실수요를 기반으로 세부 실수요 검증을 통해 편성해 집행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
-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본 결과, 9월까지의 집행률은 62.7%, 4/4분기 36.8%을 기록하였다. '19년 4/4분기 집행률 44.9%보다 9%p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을 최소화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명확히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4년까지의 가축방역사업, 축산물위생사업 등의 고유사업의 예산반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환경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회계교육(6회) 등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는 점이 인정된다.
- 예산관련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으며,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획예산부는 배정 및 관리, 경영지원부는 집행 및 정산 등을 실시하며, 매월 회계자금현황을 관리하고 분기에 점검하고 있다.(자금집행 소요과약 보고서 확인)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통한 최저가업체를 선정하며, 이외 건은 공고를 통한 공정경쟁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를 "A0"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 · 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8.78	99.02	2.00	1.98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8.7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98점을 획득하였다.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비전과 전략방향, 중장기조직·인력운영방향이 잘 설계되어 있으며, 성장기(‘24년), 성숙기(‘26년)으로 가기위한 중기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 * ‘20년에 조직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 21년부터 반영이 가능
- 또한, 그간 성과평가의 문제점(조직문화 개선 및 유대감 형성)을 조사해 소속직원에게 근로동기부여를 시키고자 성과평가 개선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 방법, 대상, 성과급관련 내용, 역량평가 반영, 성과평가의 절차, 성과평가 시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명확히 기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 간부급 직위에 전문직위자 인사배치를 실시해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무·인사·복지·성과·교육 진단을 실시, 직원의 현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증인력 2명, 직무별 경력직에 14명이 채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전문인력의 경우 실적(고용인원)보다 필요성(내용은 확인)에 맞는 인원 채용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더 주안점으로 작성하기를 권고한다.
- 또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 노무·인사·복지·성과·교육의 설문(1, 2차)을 실시해 직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많은 지표에서 직원들이 현재 상황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바, 도출된 개선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차년도 성과보고서를 제시한다면 좋을 듯하다.
- 성과보고서 등이 현황만 적혀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 인사조치관련 직원설문조사가 46%라고 제시하였는데, 46%의 직원 중 실제 몇%가 인사조치 되었는지? 조사대상 46%가 적절한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발표자료).
 2. 관리자역량교육이 2회 50명, 재난안전교육이 2명에서 18명으로 제시하였는데, 숫자만 제시하면 파악을 할 수가 없음. 기관차원에서 50명의 관리자역량교육, 18명의 재난안전교육이 충실히 수행된 규모인지 등이 적혀있어야 함.
 3. 드론, 열화상의 경우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있는데, 관련 교육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되며, 드론, 열화상 등은 운영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공유하는 교육시스템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완사항이 아닌 우려사항으로는 실적으로 제시한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 인력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사업(현장중심) 인원이 ‘20년 1,200여명에서’ 24년 1,500여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중장기연구에서 실현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었는지가 우려된다. 과소, 과대한 중장기계획은 전략, 예산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21년 사업을 운영해본 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인사평가제도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이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2.7점에서 2.8점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0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만족도 점수가 낮아진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6년 연봉제에서 직무평가를 추진하여 직무등급을 부여하였고 ‘20년 4급 이상으로 직무등급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직무급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진행상황은 다소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20년에 노사합동 TF팀을 구성하여 5개 직종, 직종별 4개 등급의 직무체계를 설계하였는데, 직무의 구분이 단순하다고 판단된다. 과연 일반직/예찰직/검역직/방역직/위생직의 특성을 대부분 동일한 직무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예 : 예찰/검역/방역/위생직 모두를 총괄관리/운영관리/데이터분석/데이터수집으로 구분).
-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20년 12월에 종료되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다.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제 실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20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명, 신규채용 1명 등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2023년까지 임금피크제 재원조달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둘째, 합리적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등의 설계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요구된다.

- '20년 재택근무제를 전체 구성원 중 531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재택근무제 정착을 위해 활용결과(부서/직급/직종/성별 등 활용에 있어 제한은 없는지 등)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요구된다.
- 유사기관 대비 낮은 복리후생비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복리후생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복리후생비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80% 이하	2.73%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0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3%로 기준치 2.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3%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

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관계를 위한 소통채널별 피드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년도에도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통채널 운영에 대한 체계적 환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연차사용률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19년 68.7% → '20년 89%).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관리를 통해 일반행정직의 시간외 근무 시간의 10% 감소 실적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무원 1,164명의 시간외 근무는 증가(원인 : '20년 ASF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하였다. 공무원 인원에 대한 일·정 양립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및 성과가 요구된다.
- 소통채널 운영에 대한 체계적 환류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년 의사소통채널 만족도 평가 및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 상기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매우 양호한 소통수단의 확대운영과 함께 양호한 소통수단의 보완 개선 노력이 필요 ' 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환류방안 마련이 미흡하다.
- 기관은 ' 18년부터 연차저축제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차저축제 운영 실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9년 299명/978일 저축 → '20년 699명/2,398일 저축).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저축된 연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가축방역사업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 (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440,539	488,377	100.00	8.00	8.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채취(4대 질병) 목표치 440,539건 대비 실적치 488,377건으로 목표치 110.86%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8.00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시료채취(4대 질병)에 대한 2020년 목표치 440,539건 대비 실적치 488,377건으로 목표 이상의 실적(110.86%)을 달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도 목표치 대비 실적을 모두 충실히 달성하였다.
- 목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2) 시료 채취(AD)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 (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141,877	150,716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 예찰 검사 추진 계획’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AI)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채취(AI) 목표치 141,877건 대비 실적치 150,716건으로 목표치 106.2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시료 채취(AI) 2015년도 목표치 112,310건 대비 실적치 106,578건, 2016년도 목표치 115,345건 대비 실적치 124,270건, 2017년도 목표치 110,675건 대비 실적치 139,567건, 2018년도 목표치 131,715건 대비 실적치 146,373건, 2019년도 목표치 136,760건 대비 실적치 144,763건, 2020년 목표치 141,877건 대비 실적치 150,716건을 달성하여 2016년부터 지속해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목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3)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예찰실시결과 보고실적/ 목표(계획) 건수 X100	목표 대 실적	5,676	7,411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장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목표치 5,676건 대비 실적치 7,411건으로 목표치 130.57%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농장예찰 방역사업이 2020년 목표치 5,676건 대비 실적치 7,411건으로 목표 이상의 실적(130.57%)으로 목표 실적을 충실히 달성하였으며, 특히 질병 검색률이 2019년 67.89%에서 2020년 70.87%로 높아진 점은 예찰 품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② 축산물위생사업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보고 건수/ 도축검사 두수) x100	목표부여 (편차)	7.12	7.66	100.00	7.00	7.00

나. 평가내용

-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달성률 목표치 7.12% 대비 실적치 7.66%로 목표치의 107.58%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7.00점 만점 중 7.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2020년 목표 최고치 7.12보다 0.54% 높은 7.66%를 달성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근무자와 지방 자치단체 소속 검사관과의 업무수행에 대한 소통이 상당히 원활하여 업무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적절한 다른 지표의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상부 기관과의 논의나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새로운 지표발굴 시도를 권고한다.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 보고 건수/ 현물검사 건수) x100	목표부여 (편차)	9.01	8.94	96.55	5.00	4.83

나. 평가내용

- 현물검사(수입축산물) 이상보고 향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목표치 9.01% 대비 실적치 8.94%로 목표치의 96.55%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4.8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치의 최대에 근접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2020년도 현물검사 이상 보고율이 8.94%로 전년(8.50%) 대비 0.44 향상되었다.
- 본 평가지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축산물위생사업 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설정된 지표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형식적일 수 있다.

③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축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돼지 구제역 등 핵심 질병을 실행과제로 선정하고, 핵심성과 지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찰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확대,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을 위한 드론 활용 확대 등은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 본 기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위생사업 관련 사업별 계획수립과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축산물안전성확보를 위한 실행과제에서 핵심성과지표의 하나인 ‘HACCP 조사평가 점수’는 지표로서 적정치 않다. 본 기관의 기여와는 상관성이 없는 수치로 판단되어 따라서 다른 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 ‘HACCP 조

사평가 점수'를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총 기여시간 등으로 전환하면 어떠한 지 검토를 권고한다(예: 총 참여 인원 x 방문 횟수 x 시간/day).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B+”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예방을 위한 농장 유형분석 등 맞춤형 방역시설개선 노력,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취약요인 개선 노력 등이 인정된다.
- 도축검사 기술력을 포함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로 이행한 사업의 내용들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의 하나인 ‘HACCP운용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HACCP 관련 기초 및 도축장에서의 실무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 외에, 본 기관에서의 자체적 교육, 혹은 외부기관을 통하여 HACCP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 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A0”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가축방역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주요 가축방역사업의 2020년 성과지표 대비 실적치가 100.35% 내지 114.39%로 실적치가 적정하게 달성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A0” 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경영평가단의 권고 지적사항 주요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바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가축방역사업의 특성상 대민 활동이 주된 업무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1조 현장팀 구성 개선 등을 통하여 직장 이직률이 낮아지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 로 평가한다.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설립목적은 축산물 위생·안전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기여로서,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위생사업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지표의 선정기준은 SMART, 전략연계성, 사회적가치를 반영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축산물위생사업 모두 산출 또는 결과단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제시한 지표를 대표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사업비중 및 정책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각 계량지표의 측정변수, 데이터 수집 또한 적절하다.
- 중장기적 관점을 볼 시 ‘20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관련 성과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개체선별 과학화 반영).’ 20~‘21년 사업을 운영한 후 활용가능한 지표인지, 활용가능하다면 도전적인 목표치를 세워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 지표검증의 경우,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결과(Outcome)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지표 pool을 토대로 SMART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모든지표 pool을 차년도 경영평가 시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현 제시한 몇 개의 지표로는 대표지표의 적절성 등 파악에 한계가 있다.
- 매년 축산물위생사업 관련 성과지표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외부기관의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하기를 권고한다. 개체선별 과학화 반영지표(중장기계획)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 니즈파악, 전문가 자문, 실현가능성 등이 모두 종합되어야 한다. 차년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목표치가 부여되고 있다. 의문점이 목표부여에 있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내려오는지가 궁금하다. 이유는 전년 실적에 비해 낮은 목표치가 부여가 되고 있는데, 관련 프로세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5 가점 지표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드론팀 투자확대 및 인력확보는 가축 방역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야생조류 폐사체 수거, 방역위험 지역(논밭 등) 야생조류 활동 모니터링 등 드론의 활용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상부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사전예방 효과에 기여한 점이

있으므로, 열화상 카메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오리예찰이나 출하검사 등에 확대할 방안을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도입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축산농장 데이터 시스템의 대국민 정보제공 횟수가 2020년 2,975건수로 2019년 1,983건 대비 50% 증가하였고, 질병연구 자료로 정부기관과 대학 등에서 활용한 실적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5점” 으로 평가한다.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성금기부, 비대면 교육, 사무실 안전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5점” 으로 평가한다.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3	C	1.80		
	(2) 경영개선	1	B0	0.70		
	(3) 리더십	1	C	0.60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5	B+	4.00	3	1.6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1	0.70
	(3) 안전 및 환경	5	D+/A+	4.7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	0.80	2	2.00
	(5) 윤리경영	3	C	1.80		
	3.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B0/B0 B0	2.10		
	(2) 국민소통				2	1.70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1	A0	0.90	2	1.94
	(2) 조직·인사일반(삶의 질 제고)	2	B0	1.40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	2.00			
(2) 충인건비 관리				2	2.00	
(3) 노사관계	2	E+	0.60			
	경영관리 합계(32.95)	33	-	23.01	12	9.94
주요 사업	1. 농업정책자금 관리					
	(1)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				10	10.00
	2. 농업재해보험 관리					
	(1)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6	6.00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4	4.00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4	4.00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4	4.00	
4.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15	-	9.37			
5.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12	-	8.40			
	주요사업 합계(45.77)	27	-	17.77	28	28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0.5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0.5		
	총계			79.72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비계량)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핵심가치 의미 재설정을 통한 핵심가치의 실행력 강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구축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다만,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차원에서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노력의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기능별 업무에 대한 효율성 수준 분석/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실행 노력은 전략방향,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전략과제명 표현의 일관성 유지 포함).
- 전직원 참여를 통한 비전 및 핵심가치 설정 노력, 핵심가치 의미재설정을 통하여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 및 실천 방향의 실효성 증대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전략방향을 고려한 전략과제 선정 및 연도별 경영목표 설정 노력 또한 긍정적이다.
- 다만, 지속가능경영과 연계한 전략과제의 연도별 경영목표 가시화 노력 강화, 4개 전략방향별 경영목표의 제시 및 이와 연계된 실행노력 제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객지향 가치의 의미재설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소득안정과 성장 의미 포함 필요성 검토),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직원 성과평가체계 도입 또는 발전 필요성 검토가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비계량)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래전략과제 선정 노력은 타당하며, 전략과제별로 적절한 추진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금융원을 위한 경영개선활동 플랫폼 구축 노력은 타당하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개선 노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체감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지표 도입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변화 분석 등을 통한 미래 전략과제 Pool 구성 및 시급성, 중요성 분석을 통한 최종 미래전략과제 선정 노력(체계적 접근), 효율적 경영개선 활동을 위한 4대 경영개선 플랫폼 구축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체계 개선 노력, GIS를 활용한 검증조사 효율성 증대 노력(코로나19 대비 효과 포함)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미래 전략과제 9건에 대한 단계별 추진 필요성 검토,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결과와 연계한 현 조직기능 및 사업 종류/규모의 적절성에 기대한 평가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개선의 성과지표 개발 가능성, 타당성 검토, 절차 간소화 등 기관의 행정 또는 주요사업 관련 업무프로세스 관련 혁신방안 도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품종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보험상품 개선방안(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구체화 노력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수준 판단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를 권고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리더십(비계량)

③ 리더십(비계량)

- 경영계약 이행 노력·성과,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중장기 경영전략과 기관장 4대 역점과제와의 연계성 확보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역점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역점과제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고객만족도, 분야별 유형별 가입자수 또는 가입금액 증가 등)가 관리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핵심가치별 실천방향은 핵심가치 의미재정립 결과와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역할 정립 및 이를 고려한 대응방안 도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정부정책, 현안이슈 등을 고려한 기관장 역점과제 선정 노력 및 목표설정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사회 정례화 및 사전심의 강화를 통한 이사회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3대 미래전략과제와 기관장 4대 전략과제의 연계성, 차별성 근거의 제시 노력 강화, 도전적 목표설정에 따른 추진상의 제한요소 예측 및 대응방안의 구체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역점과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결과지표로의 개선 가능성 검토), 사회적 가치구현(책임반영)과 연계된 경영목표의 발전방안 반영 필요성 검토(주요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노력 등)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장 4대 역점과제 성과달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현안과제 식별 노력 강화, 핵심가치 공유 활동을 통한 내재화 수준 측정 필요성 검토 및 측정방안 정립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핵심가치의 의미 재설정 결과와 기관장 실천방향의 연계수준의 적절성 검토, 현 이사회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대내·외 인식공유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C” 로 평가한다.

②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	-	3.00	1.60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 선택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0.5 ~ 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5 ~ 1.5), 총합계 3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였다. 2020년도 전체고용인원 73명 중 청년고용인원 30명으로 40.00%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0.60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인원 0명으로 0% 달성하여 0.50점 만점에 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정규직 전환대상 없으며,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자리로 적합한 업무의 식별 및 시간선택제(주당 15~35시간 근무) 일자리 고용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

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평가결과의 환류사항은 대체로 타당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체계적이거나, 미래 확장 또는 신규도입 가능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타당성 분석 및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인력운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채용여력 판단 및 신규확장 사업을 고려한 확대채용 노력은 타당하다. 다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노력 측면에서 적극적 계획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추진전략 수립 및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노력, 중장기 인력운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연도별 채용여력 확보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사업 확대를 통한 채용확대 노력, 정규직 전환인력 운영 안정화 및 근무만족도 제고 노력,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활동을 통한 피투자기업 매출증대 노력(고용증대 효과)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특수목적펀드 결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신규목적펀드 도입·결성,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 노력/성과 제시(생명, 안전 등 사회적 책임 포함), 일하는 방식의 개선 결과와 일자리 창출 여력과의 연계구조에 대한 구체적 관리체계(신규제도 도입 검토 포함) 정립이 필요하다. 향후 비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무분별한 고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기관의 주요 사업 확장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의 구체화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	70.00%	1.00	0.7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0 ~ 0.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0 ~ 0.5),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0.0 ~ 0.6), 총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의무고용률 대비 40.29%를 달성하여 가중치 0.5점 만점에 0.20점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319.63%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대비 40.29%,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319.63%를 달성하였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되었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노력은 대체로 타당하며,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조한 장애인 채용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생애주기별 여성인력 육성체계 구축 노력은 타당하며, 고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발전노력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방침 준수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장애인 제한 채용실시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국가유공자 채용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여성관리자 및 여성인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설정 노력, 생애주기별 여성인력 육성체계 구축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제도 정립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되며, 여성임원비율 정부권고 기준 준수 노력, 고졸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고졸,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적합업무 발굴의 필요성 검토, 코로나19 취업난 극복을 위한 비대면 채용 노력의 지표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중기 여성관리자 목표수준(비율)의 의미정립(최대 또는 최소), 고졸자 등 취약계층 대상별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요소의 식별 및 개선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기관의 지역적 특성 및 업무수행과 연계한 유해환경 요소의 식별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종합발전계획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 업무수행시 ICT 화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활동을 통한 친환경 경영 추진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의 조직운영 특성(지역, 업무처리, 직장생활)과 연계하여 유해환경 요소를 식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환경보존활동 유형의 식별 및 활동관리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직무와 관련된 일하는 방식 등과 관련한 환경보존 노력의 필요성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준배출량 8tonCO₂-eq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tonCO₂-eq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2tonCO₂-eq, 온실가스 감축률 25.0%로 온실가스감축 목표 30% 대비 83.33% 달성하여 0.25점 만점 중 0.21점 획득하였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이행도 70 가중치 중 66.425% 달성하여 70.000점 획득하였으며, 노력도 30 가중치 중 구매비율 증감분 45.325% 달성하여 30.000점 획득하여, 총점 0.25점 만점에 100.00% 달성한 것으로 환산되어 0.25점 만점에 0.25점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사항은 대체로 타당하며, 안전관리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전사적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보험상품 개발, 본 사업전환 확대 등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전반적, 종합적 분석에 기반한 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결방안이 목표지향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채용과 연계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기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 노력, 재해 유형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력, 기업 업무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예방,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근로자 유형별 환경개선 노력(여성, 신규직원 대상 개선 노력 포함), 전사적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식별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제도정비, 내부관리 강화,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강화 노력은 우수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기반한 보험 사각지대 식별 및 단계별 해소방안 수립 검토, 장애인 안전관리/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며, 관리 대상별 재난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제안제도 정립 필요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평가편람 기준에 따라 “A+”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4~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0.4~0.6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생산물	자활용사춘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5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1.0

- 중소기업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2점 만점에 0.2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물 실적 조사 결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

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5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기술 개발생산품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다만 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종류 및 지원대상별 생산품을 고려하여, 지원혜택이 균형되게 이루어지도록 연도별 구매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기관 업무특성 및 역량과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 지향적 관리개념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노력 등 코로나19 대응 지역생산품 소비 확대 노력은 긍정적이며, 사회 복지시설 지원활동 및 지자체와의 협업 등 사회적 책임 실현 노력, 사업발주, 입찰공고 등 계약단계별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점관리 요소 식별 및 관리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교육,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중소·기술제품 구매 확대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정립 필요성 검토,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별 지원가능요소 식별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 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다양한 계획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 환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보고서 상에는 맞춤형 윤리교육 실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임직원 업무특성에 따른 맞춤형 윤리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의 구분 운영을 맞춤형 교육으로 명명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 ‘20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환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년 결과에 대한 환류계획이 21년 5월 중에 수립된다면 19년 결과에 대한 20년 환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추가 제출한 자료는 반부패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부패방지시책 평가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조직을 독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수렴한 의견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렴성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민원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2주 이내 처리원칙으로 답변율 52.2%에서 77.6%로 향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향후 답변율만이 아닌 질적인 관리체계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윤리경영 추진체계의 구체성이 미흡하다. 실적보고서의 내용과 현장평가 제출자료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 추진체계를 위해 윤리경영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명확한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진주체, 추진방법, 추진시기, 추진대상 등을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실적 및 결과 환류방안 마련이 미흡하다. 현장평가 확인 결과 전담조직 운영의 주요 실적은 양적인 내용 중심으로 확인되어 실제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무엇이 도출되었으며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반드시 맞춤형 윤리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윤리교육에 부합하려면 임직원 업무특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별성 있는 교육실시가 필요하다. 자체 시행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기관의 중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접근권한, 접근절차, 결재 등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혁신목표는 농업금융원 혁신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제고이며, 혁신전략은 사회적 가치의 성과창출,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로서, 농식품산업 소득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비전과 잘 부합된다. 특히 전년 지적사항이던 공정경제로의 기반구축, 적극행정확산 등을 조치한 흔적이 보여 긍정적이다. 공정경제의 경우,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으로 업무관련자를 배제하고 계약 체결 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협약서를 포함하였으며, 적극행정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면책제도를 운영해 지적사항을 보완하였다.

- 현장중심의 중점 실행계획 수립(농업현장의 의견수렴-> 문제점해결 가능성-> 민원처리)을 실시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구성원의 혁신동기부여, 대내외 소통체계를 강화하려는 기관장의 의지가 돋보이며, 절차,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혁신TF조직을 확대하는 등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모태펀드의 10여년간 성과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언론 등에 백서를 제작해 배포, 온라인 포럼 등을 실시해 혁신성과를 알리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 인사제도관련,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인사에서 성과위주 제도로 바뀐 점이 상당히 혁신적이다. 기타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제도로 생각되며, 자발적 혁신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기존 구성원의 불만 또한 있을 수 있으니 1~2년 운영하면서 니즈를 파악해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유관기관과 MOU체결(2건)을 실시하였으며, 체결에 그치지 않고 수행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성과제시 시 최근 MOU현황/기대효과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2건 체결이 현 상황에서 많은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다양성은 확보되었는지 등도 함께 기재하기를 권장한다.
-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국민, 협력기관, 정부, 직원 등으로 설정해 상황에 맞는 소통채널을 구축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가, 생산단체의 현장의견수렴을 13회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의 니즈파악에 신경 쓴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직원 소통의 시간, 여직원간담회, 노사협의회 등을 자주 실시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했으며, 농업재해보험 관련 검증조사를 실시해 3,14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도덕적해이 문제해결을 추진한 성과 또한 높게 평가한다.
-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참여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홍보확산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20년과 '21년의 추진성과를 함께 제시해주길 바란다.
- 현재도 잘하고 있으나 적극행정의 경우,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규정의 해석(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 등)해 직원에 전파하기를 권장하며, 소극행정 또한 유형(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을 구분해 전파하기를 권한다. 소극행정의 경우 현재 부처에서도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사례발굴보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농가, 생산단체 등 현장의견수렴, 상품개선회의, 직원소통의 시간 등을 ‘20년 건수만 제시하는 것보다 신규로 시작한 것인지, 전년대비 비교건수 등도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답변이 ‘20년 9월 이전 50%에서 이후 70% 이상 오른 것으로 현장평가 시 확인하였다. 반면, 성과보고서에는 2주 이내 답변추진만 언급되어 있다. 차년도 보고서에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주기를 권고하며, 2주 이내 또한 함께 제시하기를 바란다.
- GIS기반 축적된 DB는 향후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아쉬운점은 정보시스템 구축단계(‘19~’20)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성과위주로만 작성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초기 GIS기반 운영 시 문제점, 한계점 등도 함께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계획,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도 추가하기를 권장한다.
- 기관별 중점추진과제로 농업현장의 애로사항해결, 선제적 특수목적펀드 신규조성을 통한 투자사각지대 해소, 농업재해보험의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한 농업인 참여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로 인해 GIS를 활용해 3,174건의 부당사례 적발 및 156백만원의 금액환수, 저신용 창년 창업농의 지원(니즈파악), 농업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니즈파악)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된 점이 인정된다.
-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프로세스(배경→추진과제 선정 프로세스→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실적→환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혁신추진위원회, 외부위원회의 역할, 왜 농업현장의 애로사항해결, 투자 사각지대 해소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및 자세한 내용, 기관차원(규모, 업무 등을 고려)에서 제시한 추진과제가 왜 적절한지, 향후 기대효과 및 환류는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계량)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5.7	100.00	1.00	1.00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5.7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1.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1.0점, 2020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5.7점을 획득하였다. 2019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82.0점, 2020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91.4점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114.7점 획득하였다.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기관으로 6:4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100.00 산출하였다.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2.5	-	1.00	0.70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2.5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7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종합 별점 2.5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70점을 획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비계량, 계량)

① 재무예산 운영 · 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한다.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6.33%를 달성하였다. 사업비 집행률 실적조사결과, '17년 90.73%, '18년 93.15%, '19년 90.62%로 90%초반의 집행률이 '20년 95% 이상 수준을 보였다.
-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9월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 확인하였으며, 9월 말 시점의 집행률은 62.6%로 전년과 유사하며, 재작년 41.5%에 비해 20%p 높게 나타나 계획대비 집행달성에 문제가 없다.
- 전년 지적사항인 예산편성을 위한 프로세스의 개선(예결산분석-가이드라인-실무자논의-예산조정-심의), 모니터링을 통한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 기존대비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성과가 인정된다.
-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과정의 집행지침을 명확히 인지해 관련 지표별로 모두 준수하였으며, 자율적인 지출절감을 실시해 확보된 예산을, 모태펀드 사업, 비대면교육, 보험사업관리, 맞춤형 복리후생 등으로 예산을 재투자하였으며, 핵심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이다.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 공개, 수의계약관련 내용이 명확하며,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2회)해 5건을 지적, 정상화 조치하려 노력하였다.

- '16년 그룹웨어서비스를 도입해 결제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으며, 예산 조정·통제 사항은 기획인사팀에서, 예산 집행은 경영지원팀에서 이원화하여 관리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산편성실무협의회는 예산 총괄 부서인 경영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사업 부서 실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별 소요 예산액 등을 조정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를 “A0”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6.33	97.06	2.00	1.94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6.3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94점을 획득하였다.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19.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조함), 농금원에서 내세운 전략과 운영방향이 적합하

다. 외부전문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위원 역할 참고, 자산운용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 인사관련,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려 노력하였으며, 내부 성과평가제도 검토결과, '19년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개선하였다. 성과보상, 특별승급, 신규직원 교육 등도 명확하다.
- '20년 인사이동 시 약 60%의 직원 니즈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휴가제도 및 비대면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등이 긍정적이다. 사업특성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재해보험기금의 경우 외부위원회, 농업재해보험은 검증조사 전문인력 등)해 사업관리를 효율화시키려 노력하였으며, 순환배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인사운영에 대한 불만을 파악해 노사협의를 실시,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 기관 핵심가치 기반의 맞춤형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토론회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시한 청렴교육, 윤리경영, 사업설명회 등 참가인원은 기관규모에 비해 적절하거나 많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 특히 GIS기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전년도 교육실적, 연초 교육계획, 당해연도 실적, 개선사항 등도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 신 APFS 성과평가시스템은 '19년 1단계(조직진단), '20년 2단계(인사평가제도 혁신), '21년 3단계(재정립)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 2단계까지 기관의 목표대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 바뀐 제도는 보완사항 또는 구성원의 불만이 동반되므로 '21년 3단계 재정립단계 시 다양한 니즈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설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성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경력 비율 축소(35 ~ 50% → 17.5 ~ 25%) 등 능력중심의 승진심사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 보수체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무기계약직과 기존직원의 복리후생비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다.
- ‘20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없으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2023년까지 임금피크제 재원조달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노력(직무분류, 직무명세서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둘째, 합리적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등의 설계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요구된다. 평가를 위한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최대현장평가 및 추가자료 확인하여 평가하였지만 추가자료의 구체성도 다소 부족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80% 이하	2.08%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0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8%로 기준치 2.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8%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년도 ① 노사협의회 운영 시점 준수, ② 소통채널 피드백 강화 등의 문제가 ‘20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 노사관계를 위한 소통채널별 피드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년도에도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통채널 운영에 대한 체계적 환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사협의회는 6월, 8월, 11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나 분기 내 4차례 운영*은 하지 못하였다.

*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필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직원 복지 증진 및 인사 안정화 방안(’20년 4월)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증진 실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노사협의회 운영 주기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 19년에도 분기별 운영을 못하였으며 '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결과라 하지만 농림부 타 기타공공기관은 모두 준수하고 있다.
- 소통채널 운영의 목적은 소통채널을 통해 기관 내, 직원 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도출된 주요 안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 주체(농금원, 상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농업정책자금 관리

(1)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	목표부여 (편차)	281	281	100.00	10.00	10.00

나. 평가내용

-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 확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 목표치 281 대비 실적치 281로 목표치 100.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0점 만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은 코로나 질병 사태로 인하여 계량지표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에 대한 평가방식을 목표부여(편차) 방식에서 목표 대 실적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관은 현장검사 실시기관 수가 당초목표 348개에서 수정목표 281개로 변경되었으며 실적 281개를 달성하여 코로나 질병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상당한 경영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된다.
- 기관은 검사주기가 2016년 9.8년에서부터 계속 감소하여 2019년에는 6.5년이 되었는데 2020년에 7.0년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앞으로 기관은 검사주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간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83)일 동안 현장검사 출장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검사가능일수 250일의 33.2%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현장검사 목표 기관을 348개소에서 281개소 축소하였으며 축소율은 19.3%이다. 검사가능일수가 줄어든 폭보다

검사기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어서 기관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나온 실적이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검사계획을 9회 변경하였으며 검사 목표가 348개소에서 281개소로 축소되었다. 기관은 2020.2.21. 코리노 19 대응 조치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반’ 운영, 확진자·접촉자 발생시 대응 계획, 상황 진정시까지 정책자금 현장검사 일정 조정 등 경영활동을 조정하였다. 현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출장 제한, 출장 일정 조정 등으로 검사계획을 변경하는 대응을 하였다. 다만, 코로나 질병에 대하여 방역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넘어서 경영목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우고 경영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농업재해보험 관리

(1) 농업재해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Σ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	목표부여 (편차)	37.68	38	100.00	6.00	6.00

나. 평가내용

-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 실적 목표치 37.68건 대비 실적치 38건으로 목표치 100.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6.00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은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의 상품과 제도개선을 위한 관리 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를 단순 합계하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2020년 목표는 37.68건이었고 실적은 38건이 되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 38건은 목표 달성이기는 하지만 겨우겨우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실적이다. 기관은 목표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많은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지 제도개선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농작물 보험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이 26건으로 가축 7건, 농업인·농기계 5건에 비하여 뚜렷한 개선 실적을 달성하였다. 농작물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른 분야에서도 벤치마킹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도	2017	2018	2019	2020
개선건수	25	30	34	38
변화율		20.0%	13.3%	11.8%

- 기관은 2020년에 38건을 개선하여 전년보다 4건(11.8%)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개선건수 변화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어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 ÷ 기준연도 사업점검 횟수	목표부여 (편차)	1.86	1.88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보험사업자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점검 실적의 기준연도 대비 증가 수준의 측정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조사 결과 목표치 1.86 대비 실적치 1.88로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은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을 선정하였다. 이때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 ÷ 2015년 사업점검 횟수’로 계산하고 있어서 이 지표는 기준년(2015년)에 대한 상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표 이름을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업점검지수’라고 부르는 것이 성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020년에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2015년 대비 지수)’이 목표치 1.86을 초과하여 1.88을 달성하였으며, 사업점검 횟수도 전년 72회에서 79회로 증가하여 사업관리 점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 GIS 기술을 활용한 점검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 점검의 한계를 극복한 우수사례로 인정할 만하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구성원에 대하여 의미있는 보상을 하고, 이를 기관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2017	2018	2019	2020
사업점검횟수	57	64	72	79
횟수변화율		12.3%	12.5%	9.7%
지수	1.36	1.52	1.71	1.88
지수변화율		11.8%	12.5%	9.9%

- 2020년 사업점검횟수는 79회로 전년보다 7회(9.7%)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 증가율 9.7%는 2018년과 2019년에 비하여 감소한 값이다. 경영효율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율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전년 변화율보다 감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지수변화율도 동일한 양상이다.

3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1)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목표비율 x 100	목표부여 (편차)	221.43	233.33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지속적인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물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모태펀드 추가조성 금액 대비 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액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조사 결과 최고 목표치 221.43% 대비 실적치 233.33%로 목표치 100.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출자승수비율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19년 대비 평가 산식이 변경된 지표이다.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미달성된 지표였으나 산식 변경 이후 목표치 달성되었으며, 지표설정의 도저성 측면에서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120	126	100.00	4.00	4.00
		183	225			

나. 평가내용

- 유망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유치 역량 제고 성과측정을 위해 정부의 연간 모태펀드 운용계획 및 투자지원 사업계획 상 목표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산출결과 최고목표치 대비 100.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모태펀드 운용 계획 및 투자지원 사업 계획상 목표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18, 19년 대비 평가 산식이 변경된 지표이다. 목표 303건 대비 351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검사 기관을 당초 348개에서 281개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계획을 9회 변경하였는데 검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체계가 불분명하고 임시변통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SWOT분석을 몇 차례 실시하였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 비대면 검사 기업을 개발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것은 우수한 사례로 인정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금 관리체계를 구축한 노력과 그 성과가 인정된다.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 대출기관 귀책사유 지적금액 비율은 기존 지표가 유지되었고, 자율점검 운영체계 고도화 지표는 기존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표를 새롭게 정의하였고, 비대면 관리감독 체계 구축은 신규로 채택되었다. 비대면 관리감독 체계 구축은 코로나 19 질병에 대응하여 신규로 채택되어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 지표의 변화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성과지표는 쉽게 변경하지 말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하고 APFS Top7 분석으로 최종적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도출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GIS 기술을 활용한 검증조사와 유사한 사례를 더 개발하고 이러한 지식자산을 기관의 모든 분야에 성과가 확산되도록 공유하면 좋을 것이다. GIS 기술을 활용한 검증조사로 효율적 점검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한 우수한 사례로 인정된다.

- 성과지표 중에서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노력과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이 신규 지표로 선정되어서 환경변화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에게 바뀐 내용을 충분히 공지할 필요가 있다.
-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를 단순 합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계량적 및 경중 비교가 힘든 상황이지만 개선의 내용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B0/B0”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비대면 검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고 1단계로서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14개 기관을 시범 검사하여 2단계와 3단계로의 진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성과가 인정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금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1,963건을 조치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전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점검대상 계좌가 46,132건에서 10,818건으로 감소하여 업무부하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점검대상 계좌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이 4.3배 증가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을 대비하는 개념이므로 점검대상이 줄어든 것을 효율성 증가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 농작물 보험이 전년 대비 27.3% 증가하고 농기계 보험이 15.1% 증가하여 공적 보험의 활성화를 이룩한 성과가 인정된다. 전문가 간담회와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소통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대면 조사를 최소화 시키는 GIS 검증 시스템을 확립하는 노력과 창의성이 인정된다. 기존 방식에 비하여 검증조사 건수는 2.46배 증가하였고 적발률 5.92%를 달성하여 성과가 인정된다.
- 농업 분야는 비대면 홍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일반적 비대면 홍보로서 SNS 활용은 IT 정보기기 취약계층의 농업인에게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지면광고와 버스광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주요사업별 실행 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의 실적 관련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수행을위한 효율성 제고 노력은 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 펀드 역대 최대 규모로 선정한 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과거 최대규모를 넘어서는 농식품펀드의 성장을 견인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C/B0” 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정책자금 현장검사는 목표한 281개 기관을 모두 검사하여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비대면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차례 내부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1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금 1,963건을 정리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대출기관의 시스템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용성과를 분석하도록 지휘하여 부정수급 계좌 적발율이 1.64배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결과 보고, 사업별 필수 확인서류 등)를 기관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아 검증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5.2%를 달성하여 목표 36.0%를 크게 초과하는 성과를 낸 노력이 인정된다. 손해평가사 활용률이 37.7%를 달성하였는데 보다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담인력 운영으로 조사건수가 7.9배 증가하고 부당사례 적발률이 5.4배 증가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인정된다. 이러한 성과가 나온 원인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기관에 확산하면 좋을 것이다.
- 손해평가사 활용률이 37.7%로 목표 36.2%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 손해평가사 활용률을 더 높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부터 크라우드 펀딩 성공액까지 20년 목표대비 실적을 100% 이상 초과 달성한 점이 우수하다. 다만, 신규로 변경된 산식 및 비율의 경우 목표 설정의 도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C/B0” 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각종 회의를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내 회의와 대외 회의에서 모니터링하는 주안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실적을 함께 공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자체평가 결과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차년도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환류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전년도 경영평가단이 SWOT분석과 실행계획과의 연계성이 분명하도록 보완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기관은 사업관리부서 자체회의와 경영실적TF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조치하였다. 기관은 SWOT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이 서로 연결되도록 넘버링하여 연계성을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SWOT분석과 실행

계획의 연계성 및 그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각종 회의를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내 회의와 대외 회의에서 모니터링하는 주안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실적을 함께 공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 이외 품목의 단계별 검증조사를 GIS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혁신적 노력이 차별적 성과로 인정된다.
- 전년도 경영평가단이 SWOT분석과 실행계획과의 연계성이 분명하도록 보완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기관은 사업관리부서 자체회의와 경영실적TF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조치하였다. 기관은 SWOT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이 서로 연결되도록 넘버링하여 연계성을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SWOT분석과 실행계획의 연계성 및 그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자펀드 조기 경보 시스템, 자조합 가치평가 시스템, 투자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목적펀드 등 조성계획 확대, 투자지원 사업 체계화 및 전문화 등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양호한 환류 계획을 설정하고자 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D+/D+/B+”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추진계획 수립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항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청년 창농 및 1차 산업 투자확대를 위해 영 파머스 펀드를 도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화 펀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화 펀드의 경우 110억원의 펀드가 결성되어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조달 수요에 부응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 목표를 설정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가치 BP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향후 계획 및 자원 배분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D0/D0/B0”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목적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주요사업(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농식품펀드운용사업)의 활동이 농금융원 설립목적과 부합되고, 산출, 결과단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각 지표의 선정기준은 명확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CSF, 사회적 가치와 연계성이 있으며, 목표와 부합되어 최종 대표지표로 선정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각 지표의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을 이루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가능한 지표로 선정되어 있다. 각 지표의 가중치 또한 사업예산,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볼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사업예산 비중 및 정책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각 계량지표의 측정변수, 데이터 수집 또한 적절하다.
- 현재 제시한 지표내용은 전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모든지표 pool을 차년도 경영평가 시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현 제시한 몇 개의 지표로는 대표지표의 적절성 등 파악에 한계가 있다.

- 또한, 지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아쉽다. 현 사용되는 지표의 체계적인 조사, 니즈파악, 전문가 자문, 실현가능성 등은 제시가 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할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된다면 더욱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년에 비해 각 지표들의 환경분석, 도전적인 목표설정,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지표정의 및 산식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농금원의 성과지표는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인과 직결될 수 있어(모태펀드 출자예산 감소예상, 경영환경 악화 등) 환경분석, 니즈파악이 중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전년 지적사항이던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의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지표 산식 또한 개선이 되었다. 기존 산식의 경우, 한 개의 산식이 100% 이상 달성되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 제시한 지표산식은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타 다른지표 또한 산식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이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대표지표인 보험 사업점검 횟수증가율의 경우, 기관의 대표지표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지표로 사료된다. 점검횟수의 경우 산출단계에는 포함이 되나 결과단계의 지표로 보기 애매하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있어 기관에서 올릴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보험사업점검횟수증가율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현 농금원에서는 보험사업점검지수의 지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관련지표가 대표지표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분석하길 바라며, 산식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하기를 기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⑥ 가점 지표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수요창출, 혁신 기술개발의 업무 혁신 등의 혁신 성장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하였으며, 선제적 특성화 펀드(영과머스, 지역 특성화, 마이크로)를 조성하여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GIS를 활용하여 보험금 부당수령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점검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GIS 기술 기반의 농업재해보험 검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Agrix 연계를 통해 현장 고객의 편의성 제고 노력을 한 부분은 성과가 인정된다. 관련 혁신 노력으로 검증조사 소요 시일 70%및인력 50% 감소한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GIS 기반을 활용하고 사용자 중심의 표준화 및 통계 수집·관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재해보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부분, 농식품 모태펀드투자정보 공개를 위한 One-step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5점” 으로 평가한다.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코로나19 종합대응반을 발족하고 성과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 소외분야 전용 펀드를 결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공공입찰·계약 단계별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보증급 납부 면책의 혜택을 부여한 부분은 성과로 인정된다.
- 농식품기업에 벤터캐피탈 투자유치지원을 뉴딜로 선정하고 투자상담, 현장코칭, IR 기회제공을 통해 VC 자금투자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투자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고 98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부분은 성과로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5점”으로 평가한다.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국제식품검역인증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3	B0	2.10		
	(2) 경영개선	1	C	0.60		
	(3) 리더십	1	D+	0.50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5	B0	3.50	3	1.5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1	0.79
	(3) 안전 및 환경	5	B+/A+	4.49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	0.80	2	2.00
	(5) 윤리경영	3	C	1.80		
	3.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B0/B0 /B0	2.10		
	(2) 국민소통				2	1.38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1	D+	0.50	2	1.42
	(2) 조직·인사일반(삶의 질 제고)	2	C	1.20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	2.00			
(2) 총인건비 관리				2	2.00	
(3) 노사관계	2	D+	1.00			
경영관리 합계(31.28)	33	-	22.19	12	9.09	
주요 사업	1. 선박 아시아태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5	14.63
	(2) 안전사고 예방률				5	4.92
	2. AGM 예찰 방제					
	(1) AGM 예찰활동률				4	3.81
	3. 재식용식품검역장소 관리					
	(1) 수입재식용식품 검역장소 관리 성과				4	3.82
3.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15	-	11.46			
4.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12	-	8.7			
주요사업 합계(47.34)	27	-	20.16	28	27.18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0.5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0.5		
총계				79.62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비계량)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및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비전 정의에서 인증기관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포함한 경영목표(전략목표) 수립 및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전략과제별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개념의 명확성 제고가 요구되며, 과제별 실행관리 측면에서 PDCA 개념 적용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경영여건, 이해관계자 니즈 및 정부정책을 고려한 비전 및 핵심가치 설정 노력, 전략과제별 사업·부서 목표의 연계성 강화 및 성과지표 설정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PDCA에 기반한 전략이행 메커니즘의 체계화 노력, 업무성과의 개인평가 연계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과 연계된 가치개념의 명확성 제고 방안 검토, 기관의 효율성 수준 진단/분석을 통한 비효율 요소 및 발전방안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의 전략목표 또는 기능별 핵심 KPI의 구체화 및 PDCA에 기반한 전략이행 메커니즘의 주기별 관리(환류개념 포함)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경영목표, 핵심가치와 연계된 내부역량의 강·약점 요소의 구체적 식별을 통한 SWOT 분석의 체계성, 논리성 발전 노력 강화, 중장기 연도별 추진목표의 성과제시 방안 검토, 전략과제별 부서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계량화 지표 확대)를 권고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비계량)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과 연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기관의 사업포트폴리오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로드맵 수립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요인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노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2대 경영개선과제와 경영관리 분야의 연계결과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환경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단계별 추진로드맵 수립 노력, 문제점 진단을 통한 12대 경영개선과제 설정 및 이행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상의 장애요인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노력, 재식용식물 검사결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환경변화 분석과 연계하여 현 기관의 조직, 기능의 적절성 검토 기능 강화(기관 고유업무에 대한 소요 변화 연계 분석 포함), 외부 전문가 또는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발전 방안 모색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가능성 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범위 확대 노력 강화, 세부 평가내용에 적합한 성과제시 노력 강화(지표적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영관리 분야별 경영개선 과제의 연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3) 리더십(비계량)

③ 리더십(비계량)

- 경영계약 이행 노력·성과,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중장기 연도별 목표치 설정을 통한 경영계약 이행이 수행되고 있으며, 문제해결 중심의 목표설정 및 이행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인력 증원 및 전문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노력은 기관의 여건상 타당한 노력이다. 다만, 리더십 분야의 성과제시는 기관의 전반적인 측면에서(12대 과제 포함), 기관의 핵심가치가 일상업무에 내재토록 하는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는 체계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관의 여건 대비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역할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대응방안별 기관장의 대응노력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선박 AGM검사 선진화 방안 마련 노력, 중·단기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인력운영 효율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원 확대 노력,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 및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확대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평가편람에서 제시하는 평가내용에 따른 성과제시 노력 강화(중장기 연도별 목표수준)가 필요하며, 기관의 전략과제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에서 성과제시체계 재정립 필요성 검토, 비전 및 핵심가치 내재화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조사 체계 필요성 검토, 핵심가치별 동기부여 노력사항의 적절성, 충분성 검토(12개 전략과제에 대한 핵심가치 반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사항의 연계 타당성 검토)를 권고한다. 현 이사회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대내·외 인식공유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D+” 로 평가한다.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	-	3.00	1.50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 선택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0.5~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5~1.5), 총합계 3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였다. 2020년도 전체고용인원 51명 중 청년고용인원 17명으로 33.33%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인원 0명으로 0% 달성하여 0.50점 만점에 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정규직 전환대상 없으며,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자리로 적합한 업무의 식별 및 시간선택제(주당 15~35시간 근무) 일자리 고용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

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평가결과 환류사항은 대체로 타당하며, 중기 연도별 일자리 창출노력은 타당하다. 정현원차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타당하나,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가시화되도록 관리체계 발전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 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중기 연도별 목표설정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신속한 채용을 통한 정현원차 관리 노력, 소통을 통한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과제 발굴 노력은 우수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사전심사제 운영 노력,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범위의 적절성 검토(생명, 안전 등 사회적 책임),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의 구체적 제시(현 제시내용의 지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며,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직접적 민간 일자리 창출과 간접적 지원을 통한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안 검토 또한 필요하다. 인권영향평가 용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지표적합성 검토(평가편람의 세부평가내용 기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노력의 지표적합성 검토(세부평가내용 기준)를 권고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	79.00%	1.00	0.79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0 ~ 0.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0 ~ 0.5),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0.0 ~ 0.6), 총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 결과 법정 의무 고용률 대비 57.35%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29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300.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대비 57.3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300.00%를 달성하였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되었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노력은 대체로 타당하며,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노력도 수행되고 있으나, 고졸 적합업무 발굴노력의 가시화,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노력, 차별적 요인 배제를 위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 확보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내부환경 분석 및 중장기 인력 소요 분석을 통한 3대 채용 추진방향 정립 노력, 청년, 지역인재, 사회통합 측면에서 정부기준 준수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여성인력의 구조적 문제극복을 위한 여성인재 양성전략 수립 노력,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한 직무발굴 노력, 고졸자, 여성, 청년인턴 등 대상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처우개선 노력은 우수한 부분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립을 통한 비정규직 운영 합리화 노력, 임원임명 양성평등 수준제고를 위한 정부 권고사항 준수 노력 또한 긍정적이다.
- 고졸 적합업무 발굴 및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체계 발전(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기관의 대응논리의 구체화), 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수준의 구체화 노력 강화(중기차원)가 필요하며, 취약계층(고졸자, 무기계약직, 여성 등) 대상별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요소의 식별 및 개선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구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대국민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설정한 노력은 타당하며, 고유사업 및 Green 활동과 연계한 추진과제 설정도 바람직한 접근방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각 과제추진의 구체적 방안 및 접근 수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한 환경보전 개념 정립 및 추진과제 도출 노력은 긍정적이며, 기관 고유사업 강화를 통한 자연상태계 보호 노력, 일상업무 수행시 직원 저탄소 문

화활동 확산 강화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고유업무 강화의 수단에 대한 구체적 대안수립 노력 강화, 행정업무,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또는 대안의 모색 노력 강화가 필요하며, 환경유해수준이 높은 선박에 대한 인증비용 차별화 등 제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우대조치 방안의 타당성 및 공식적 제도마련 방안 검토(간접적 기여방안 측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준배출량 112tonCO₂-eq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05tonCO₂-eq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7tonCO₂-eq, 온실가스 감축률 6.25%로 온실가스감축 목표 30% 대비 20.83% 달성하여 0.25점 만점 중 0.05점 획득하였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이행도 70 가중치 중 15.893% 달성하여 13.907점 획득하였으며, 노력도 30 가중치 중 구매비율 증감분 0.000% 달성하여 0점 획득하여, 총점 0.25점 만점에 13.91% 달성한 것으로 환산되어 0.25점 만점에 0.04점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내용도 타당하다. 기관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 개념 정의’ 노력은 바람직하며, 사이버 보안진단 등 정보보안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다만,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한 항목별 대응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 개념’ 정의 노력, 중장기 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설정 노력, 안전중점조직 구축을 위한 안전경영체계 구축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검사원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노력,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한 시설 관리, 점검체계 구축 노력, 개인정보보호 관리활동 강화를 통한 관리수준 향상 노력은 우수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 대국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 인프라’ 지원은 바람직한 노력이나, 본 평가 지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지표적합성 검토(사회재난 측면에서 판단)가 필요하며, 근로자 내부 제안제도 운영,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평가편람 기준에 따라 “A+”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4~0.6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4~0.6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5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1.0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 ·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5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최근의 상생 · 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의 보고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② 상생 · 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협력 · 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

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노력이 접근개념의 정립, 추진과제 도출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접근 가능한 다양한 대안의 모색 및 효과성을 고려한 최적의 활동대안 선정 등 기관의 노력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분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설정 노력, 보유자원 기반 AGM 합동예찰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산림자원 보호 노력,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시스템 구축 등 공정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한 동반성장 추진방향 및 추진분야별 실천과제 정립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정보개방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전략 이행 메커니즘 운영체계 정립 노력은 우수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 다만, 지역사회를 위한 기관 시설이용 가능성/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렴 ZONE 설치 운영, 청렴자가진단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상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내부제재시스템 및 자체감사를 통한 의견 및 조치 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환류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관차원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실시는 긍정적이나 결과에 대한 환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년 내외부 고충신고처리 건수는 0건이다. 0건의 의미가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실제 워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질행위 등 부패방지 점검을 위해 면담, E-mail 설문 외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연초 부패방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생애주기별/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갑질 설문조사 시점 및 결과 환류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년 갑질 설문조사를 ’ 21년 1월에 실시하였다. 조사 시점을 10월 이후로 설정하고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직접 갑질 경험자에 대한 환류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내부직원만이 아닌 외부고객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년 대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가 향상되었지만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이 관리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비전은 세계가 신뢰하는 아시아매미나방 전문검사기관으로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목표, 혁신방향, 9대 주요과제 및 세부추진과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공공기관 역할 강화, 국민신뢰향상을 통한 국민소통 경영이행 등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어 긍정적이다.
- 새로 제시한 혁신방향인 사회적가치 중심기관 운영, 내수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확보는 현 시점에 맞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웃돕기 성금, 집중호우 피해지역 돕기 등), 꽃소비활성화 활동 등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혁신 전담조직의 추진체계는 기관장-성과관리점검단(국민참여혁신단)-혁신실무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및 노사협의회 실시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구성원의 사기를 위한 보상체계(아이디어 공모전 포상, 직원 성과평가 시 마일리지 점수 등)도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무부처,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 혁신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체계 또한 PDCA관점에서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아이디어 33건 발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으며, 입상자의 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혁신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전략목표는 검사·예찰·방제시스템고도화, 미래성장동력확보, 식물병해충전문인력양성, 사회적가치창출로 구성되어 있음. 혁신방향은 사회적가치중심 운영, 내수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확보, 국민신뢰제고로 이루어져 관련 12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인 전문인력양성이 12개 세부추진과제로 이어지지 않은 바(인적자원개발노력의 경우 미래성장동력확보에 포함), 전략목표와 세부추진과제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다(전문기간제 확대채용 등 관련 내용은 확인함).
- 가치생산, 가치창출, 가치영향, 가치연관 등의 소통유형을 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임직원, 국민, 정부 및 지역사회, 전문가 및 유관기관)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통채널을 통해 임직원(기관장 현장방문 11회, 노사협의회 5회 등), 국민

(인권경영위원회 1회, 고객만족도 조사 2회 등), 정부(신규업무수탁회의, 농촌만들기 캠페인 2회 등), 유관기관(합동예찰 6회, 이사회 3회 등) 다양한 대내외 맞춤형 소통 채널을 강화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제도 등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검역장서 양정체결 창고를 신청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민원이 발생해 홈페이지 내 약정체결 창고현황 게시판을 신설해 정보를 제공(133건)하였으며, 사무소 단위에서 민원인 애로사항이 발생해 자체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과 소통을 개선하려 한 점이 긍정적이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전공표, 주기에 따라 갱신한 최신정보를 국민에게 제공(정기 35, 수시 28건)하였으며, 중요문서의 정보공개, 항만별로 예찰트립 포집수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
- 전년 지적사항이었던 적극행정의 경우, 기관에서 제시한 타기관 사례전파(홈페이지 내)는 적극행정을 위한 추진노력으로 보기 힘들다. 적극행정의 경우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규정의 해석(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 등)해 직원에 전파하기를 권장하며, 소극행정 또한 유형(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을 구분해 전파하기를 권한다. 소극행정의 경우 현재 부처에서도 사례가 나오기 쉽지않은 만큼 사례발굴보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 요구증대에 맞춘 사회적책임경영, 국민중심혁신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청렴·윤리·인권경영강화를 위해 내부정기감사, 일상감사, 복무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인원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해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창출되었다. 또한 지역농산물구매,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을 실시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점도 인정된다.
-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프로세스(배경→추진과제 선정 프로세스→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실적→환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혁신추진위원회, 외부위원회의 역할, 왜 사회적가치중심과 국민중심혁신노력이 중점과제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기관차원(규모, 업무 등을 고려)에서 제시한 추진과제가 왜 적절하지, 향후 기대효과 및 환류는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계량)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9.6	98.45	1.00	0.98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9.6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98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9.0점, 2020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9.6점을 획득하였다. 2019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98.0점, 2020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99.2점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95.5점 획득하였다.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기관으로 8:2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98.45점을 산출하였다.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10	-	1.00	0.4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10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4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종합 별점 10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40점을 획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한다.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9.5%를 달성, 전년 98.8%에 비해 0.2%p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64.0%를 달성하여 전년 74.5%에 비해 10%p 이상 감소하였다. 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기관의 예산운영 특성 상 불가피한 부분은 있으나, 5년 연속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 현 제시한 주요 사업의 집행질적에 대한 분석, 주요전략목표, 예산의 중점현안, 예산으로 인한 핵심성과 등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 실무진 검토 및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예산쟁점사안의 신속한 공유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도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환경적 요인도 있겠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기존 문제점 등의 분석-수요확인-편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기존 지적사항이던 기관장 주관의 예산편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제시했으나 이는 '21년 2월에 시행된 것이다(본 평가는 '20년 평가임). 차년도 예산관련 평가결과가 기대되며, 대처가 요구된다.

- 결제시스템이 전산화되어있는지, 예산결제가 이원화되어 점검이 되는지, 편성과정에서 과거 예산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과정에서 문제있는 사업의 추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담당자에게 어떻게 알람을 주는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이 불명확하다. 관련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를 “D+” 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비 실적	100.00	64.0	71.20	2.00	1.42

나. 평가내용

- 사업비집행을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64.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42점을 획득하였다.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비전, 전략목표, 담당조직을 검토한 결과, 조직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 또한 체계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회적가치 창출실현을 위해 '20년 7월에 TF팀을 신설해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식물병해충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 식물인증원의 HRD목표는 전문역량을 갖춘 글로벌 검사인력 양성이며, 관련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매년 교육예산을 확대해 전직원의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확인하였다.
- 기관의 성과평가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PDCA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제시한 직원성과평가계획보고서를 통해 계량, 다면평가결과 및 성과급지급 등을 확인하였다. 점수반영 기준이 명확하고, 평가등급에 따른 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개방형 계약직제, 전문직위제 등의 미도입사유를 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계획 또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차년도 평가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문인력의 경우 실적(고용인원)보다 필요성(내용은 확인)에 맞는 인원채용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더 주안점으로 작성하기를 권고한다.
- 상호존중의 날을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친화 재인증을 추진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된다.
- 중장기 합리적 인력배분 계획을 확인한 결과, 중장기 인력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은 이해되나, '24년까지 검사·예찰·방제시스템고도화에 7명, 식물병해충전문인력양성 2명 등 총 11명의 인력이 증대되어야 할 계획/이유 등이 부족하다. 왜 중장기적 인력배분 시 관련분야에 인력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경영전략 달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경영자문을 수시로 받았다고 제시했는데, 확인결과 중장기관련 자문이 아닌 '19년(전년도) 경영평가를 받기위한 컨설팅 자문내용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장기전략 및 인력배분 관련 외부자문을 통해 인력운영방향 등을 검토하길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계획 및 활동이 다소 느린 편이다.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과 실제 직무급 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년 완료된 ’ 승진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 연구 ‘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및 적용이 필요하다.
-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타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타기관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직급별 인상률 개선, 신규직원에 대한 경력산정 기준 세분화 및 환산을 확대 등 공정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복리후생 분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계획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20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없으며 ’ 25년 최초 발생한다.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 25년부터 ’ 27년까지 임금피크제 재원조달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둘째, 합리적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등의 설계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요구된다.

- 6급 퇴사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퇴사자 면담 등을 통해 퇴사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80% 이하	2.73%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0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로 기준치 3.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3.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지적사항인 소통결과의 피드백 강화에 대해 소통결과제도화(통합관리체계 구축)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적보고서 및 현장평가 확인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사무소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방안 마련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조사된 항목별/조직별/경력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환류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정기 노사협의회 4차례, 임시 노사협의회 1차례를 운영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3월, 7월, 10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나 분기 내 운영을 위한 시점 준수가 필요하다.
- 노사관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교육대상별(경영진/중간관리자/노무실무자/노사관계자/일반직원)로 교육목표, 필요역량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직원의 고충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희망근무 수요조사 및 조치(순환근무)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소통채널 확대·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게시판, 신년하례식, 아이디어공모, 주간회의, 노사협의회, 연찬회 등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특성, 구성원 특성,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인증원만의 소통채널 구축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 기관은 연차저축제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차저축제 운영 실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연차저축제의 시행은 그만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국내 AGM 검출실적 - 상대국 AGM 검출실적) / 국내 AGM 검출실적 X100	목표 대비 실적	100	96.188	97.558	15.00	14.63

나. 평가내용

-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 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상대국에서 신속 통관을 위하여 상대국 AGM 검출 예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조사 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97.56%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 중 14.6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AGM대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 AGM 검출건수는 감소한 반면 난피제거 실적은 82% 증가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현장 직접 조사 및 난피제거 수행해야하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했다고 평가된다.
-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 대발생한 AGM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감염증명서에 검출내역을 명시하여 상대국에서의 검사를 강화토록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다.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간제 검사인력의 전문성 미흡을 보완할 노력이 필요하다.

(2) 안전사고 예방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안전사고 발생 건수 / 선박 검사 건수	목표 대비 실적	100%	97.879	98.303	5.00	4.92

나. 평가내용

-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안전사고 예방률 조사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98.30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9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승선하기 전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원에 대한 직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검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연령,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
- 검사건수가 3,000건 이상 수행되고 있음에도 경상 1건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기관의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 인정된다. 다만, 2014-2018년도 5년간의 무사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이다.
- 현장 업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내용 중 “선박 AGM검사 안전지침서”의 안전수칙을 승하선시 검사인력에게 재차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사고 후 처리 매뉴얼에 따라 즉각조치한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사고예방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② AGM 예찰 방제

(1) AGM 예찰 활동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AGM 예찰 활동률*	목표 대 실적	110%	103.564%	95.319	4.00	3.81

* (평가연도 AGM 트랩설치 수/목표 트랩설치 수X0.5)+(평가연도 AGM 트랩조사 수/목표 트랩조사 수X0.5)

나. 평가내용

- AGM 고위험기간 중 향만 및 향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트랩설치 조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목표대비 AGM 트랩 설치 수 조사 결과 목표치 110% 대비 실적치 103.7%를 달성하였고, 목표대비 AGM 트랩 조사 수 조사 결과 목표치 110% 대비 실적치 103.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3.81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매년 AGM 예찰 활동율을 조사하여 시기에 따라 경유선박들의 잠재 오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AGM 대발생이 지속되는 환경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개정 및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의 도입은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모든 트랩을 폐로몬으로 이용하고 있고 매년 꾸준한 설치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다.
- 살충제 살포, 난괴제거 등 항구 주변 AGM 빈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GM의 대발생 및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대책 또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GM 검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험기간 검사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활용 가능한 인력풀의 확대가 요구된다.
- 선박유입 외래해충 모니터링 R&D 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비즈 니스 모델 창출 노력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폐로몬 트랩 수가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항구 주변 AGM의 활동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트랩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한된 인력으로 매년 늘어나는 트랩에서 AGM의 검출을 확인, 비교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활동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국제적 경쟁력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제 평가원 채용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R&D 공동 참여를 통한 선박유입 외래병해충의 지속적인 모니터 링 및 토착화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AGM 유사종의 국내 유입 및 정착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 예측 자료 및 대처방안 확보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AGM 발생빈도 변화 예측 및 선제적 방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지난 평가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AGM의 경우, 특히 성충인 경우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항구 주변 AGM 예찰 활동 틀이나 항만 주변 2~3 km 내에서 진행되는 난괴 제거 작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추후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난 2년간 난괴 제거 작업 증가 및 살충제 살포 면적 증가 등의 활동을 꾸준히 했음에도 AGM 검출빈도수가 증가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 따라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항구 주변 외 지역에서의 활동을 확인과 난괴 제거 작업이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동연구 수행 등 R&D 과제 발굴에 의한 진행이 되면 그 효과가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③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1) 수입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목표부여 (일반)	120%	113.346%	95.564	4.00	3.82

나. 평가내용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실적과 병·해충·금지품 발견을 통해 검역장소 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수입재식용 검역 장소 관리실적 조사 결과 목표치

120% 대비 실적치 104.33%를 달성하였고,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 건수 조사 결과 목표치 120% 대비 실적치 117.2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3.8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관리업무는 외래 병해충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업무이다. 병해충 금지품 발견실적 및 검출률 등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 전문인력 채용에 의해 전년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비율은 관리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모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지원 확대 및 차체 사업 발굴 등의 방편에 의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업무 수요에 따라 기간제로 전문가를 활용한 부분은 인건비 절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나 업무연계성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 기간제 인력 활용이 아닌 전문인력 고용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향상되지 않은 제한적인 인력 풀의 활용 현실에도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서 외래 병해충 발견 빈도가 증가하고 병해충들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한 방제조치들을 취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은 우수하다.
- 수입재식용식물 병해충 및 수입 금지품 발견에 대한 년도별, 품 목 및 컨테이너 유형별 자료의 DB화 및 AI 기반 정보 활용 및 응용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관련 특정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비한 대처가 요구된다.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AGM 검사 신뢰도 제고 및 환경변화에 대한 검사 대응 등 평가대상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이면서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다. 해양안전교육의 정원대비 참여율을 100%로 설정하여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GM 검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험기간 검사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활용 가능한 인력풀의 확대가 요구된다.
- AGM 예찰트랩 운영을 확대하여 국내 AGM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박내 발생억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검역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규정 개정으로 AGM 대발생에 따른 검사시스템을 보강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AGM 검출 건수 목표치 설정과 관련, AGM이 전년 대비 급격히 대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매우 낮은 목표치 설정 산식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예: 5년 평균치 --> 5년 이상 기간으로 설정). 현재의 목표치는 2018년도 이전의 발생건수가 낮고 2019년부터 대발생하면서 검사건수가 대폭증가하여 목표치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설정되고 있다.
-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해충 모니터링 관련 연구에 참여하여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한적인 가용 인원 및 수입물량의 증가 및 코로나 바이러스 대 감염 등의 상황에서도 재식용 식물의 수입 시 동반 유입이 가능한 외래병해충 등의 유입 및 정착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방제 및 비산 방지조치 등은 우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종자 및 구근 등 수입물량의 증가에 의해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AGM 검사선박 물량이 많은 기간에는 기간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식물검역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전년 의견과 동일함).
-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요구되는 교육 등을 진행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발생하는 불만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0/B+”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AGM 대발생이 지속되는 환경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개정 및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의 도입은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검사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기간제 인력의 운영은 긍정적이며 정규인력의 추가 보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늘어나는 업무량 및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정규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 고위험 검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성 높은 정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한정된 인력과 특별 검사기간 확대 운영으로 검사자의 피로도가 높고 검사의 질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 AGM 대발생에 대응하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AGM검사 및 예찰은 대발생 시 현장 업무 인력이 대폭 증가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발생이 심한 지소의 인력충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년간 훈련된 전문성 높은 직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예: 연봉체계 보완 등).
- 검사인력 추가채용으로 검사수행 효율을 제고한 점, COVID-19 대감염 상황에 검사 현장에서 감염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검사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없이 검사를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획일적인 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함에 의해 관리 효율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외부 민원을 반영하여 고객 및 직원들의 시각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식용 수입식물에서 해충 검출 시 적절한 장비를 활용한 긴급방제 및 요구되는 행정조치 등을 바로 취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식용 수입식물 병해충 현장 검증 및 동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또는 사업 추진과 검역관련 일부 권한 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C/B+” 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국내 AGM 검출건수를 최근 5년 평균치로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전년도 실적과 비교 (2056건 검사, 321건 검출)하면 크게 향상된 실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년도별 편차가 큰 현황을 감안하여 목표 실적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제시한 목표치들을 대비하여 거의 모든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한 중복업무 생략 및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간제/기간제 직원들의 활용으로 검사시간 지체없이 요구되는 검사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AGM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2019년 이후 예찰 강화 및 방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약제살포횟수의 증가, 전용약제 사용, 약제살포 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방제 전략이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GM 예찰강화, 난과제거 건수의 대폭 증가 등은 노력으로 인정된다. AGM 발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화하여 정밀한 정보 분석이 발생예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AGM 대발생 예찰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 업무량이 특정기간에 몰리는 특성상 사고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방교육과 모의 훈련 등을 진행한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률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한 것은 우수한 실적이다. 검역병해충 검출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관리업무 및 품목별 검사방법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 또한 우수하다. 다만, 고객만족도 실적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고객만족도를 제고 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0/B+” 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지적 사항이었던 선박의 위험정도 차등화 및 이에 따른 기준을 탄력적으로 반영 조치하여 운영한 점은 긍정적인 운영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예방훈련 횟수를 늘려서 시행하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차년도에 2020년 평가가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 기를 기대한다.
- AGM 예찰결과를 고위험기 선박검사 시 활용하여 선박검사 효율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AGM 밀도 저감을 위해 난괴제거 작업 확대, 규정 개정 등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난괴제거, 약제살포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AGM 대발생 및 발생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 개발이 요구된다.
- 기관 설립 이후 AGM발생 및 방제 기록을 활용하여 DB 구축을 본격화하고 국내 발생시기, 방제시기, 환경요인 분석 등 다중요인 분석으로 예찰 및 방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GM 발생이 높게 검출되는 항만에 대한 예찰, 방제 강화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 검역 미필 품목 교차 확인 및 품목, 컨테이너 유형별 차별적인 검사의 시행에 의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관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 유지 또는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정부 자원 확보 등에 의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요구되는 사업 및 환류 활동들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전문가를 고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검사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재식용식물 대상 병해충 검사 중 검역관련 병해충 발견 시 즉시 검역 처분 조치하여 병해충들의 외래유입을 차단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 고객의견 회수율 증가 방안 및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검역대상 병해충의 비생물적 경로 유입 가능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C/B+”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기간제 평가원 채용에 의한 고용 증가는 긍정적인 노력이다. R&D 공동 참여를 통한 선박유입 외래병해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토착화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제 살포 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COVID 19 상황에서 안전한 조직 관리 역량이 돋보인다. 검사비용 인하를 통하여 수출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선박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검사비용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정규인력 충원으로 AGM 대발생에 대비하고 검사업무의 양적, 질적 목표를 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 AGM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해 지속적인 R&D 발굴 필요하다. AGM 대발생 및 발생밀도, 빈도 증가 상황 및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약제방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 원활한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안전한 검사환경 조성, 예찰방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규칙한 검사 요구량에 현재까지는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인력과 재원에 의해 신속한 검사 등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탄력적인 인력활용에 의해 하계기간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여 적시적기 선박 검사를 수행하여 상대국에 신속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협조 방안,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B+/B+” 로 평가한다.

⑤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설립목적은 아시아메미나방 검사로 국내수출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3대 주요사업은 선박AGM검사, AGM예찰·방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이다. 관련 계량지표 검토결과, 모두 결과단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지표로 설정되는데에 문제가 없다.
- 지적사항이던 상대국 AGM검출지표의 배점을 낮추고 안전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지표별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각 지표의 수집(데이터의 신뢰성)방법이 명확하다.
- 지표검증의 경우,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결과(Outcome)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지표 pool을 토대로 SMART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모든지표 pool을 차년도 경영평가 시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현 제시한 몇 개의 지표로는 대표지표의 적절성 등 파악에 한계가 있다.

- 바뀐 가중치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바꾸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바꾸었다고 하나, 평가지표 가중치의 경우 배점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대표지표는 사업과 직결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임계치에 다다른 지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되고 있는 예비, 보조지표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예비,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활용한다면 실현가능성은? 지표관련 외부전문가 및 연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도전성을 확인한 결과, 각 지표별 장애요인 파악 후 실정에 맞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부분 지표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⑥ 가점 지표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선박유입 외래해충 모니터링 R&D 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노력은 긍정적인 요인이며,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AGM 난괴제거 효과를 증대하고 전년 대비 82%의 제거 성과를 달성함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미래 수요 대비 데이터 관리, 분석, 현장 적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그간의 AGM 발생, 환경 등의 분석결과를 활용하고자 노력함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5점”으로 평가한다.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기관 내 확진자 발생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성과급 일부 기부 및 수수료 인하 노력 등은 긍정적인 고통분담 노력이며 또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기관장의 인센티브 10%를 기부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한 점이 인정되며,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코로나바이러스 대감염 상황에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들을 수행했으며, 또 한 단 1건의 감염 사례도 없이 검사들을 진행한 것은 관련 사업 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단히 우수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5점”으로 평가한다.

4. 한식진흥원

❖ 한식진흥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3	D+	1.50		
	(2) 경영개선	1	D+	0.50		
	(3) 리더십	1	D+	0.50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5	C	3.00	3	1.7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40	1	1.00
	(3) 안전 및 환경	5	B0/A+	4.6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0	0.70	2	2.00
	(5) 윤리경영	3	D0	1.20		
	3.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D+/D 0/E0	1.10		
	(2) 국민소통				2	1.5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0.70	2	1.86
	(2) 조직·인사일반(삶의 질 제고)	2	D0	0.80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E0	0.80			
(2) 충인건비 관리				2	2.00	
(3) 노사관계	2	E0	0.40			
경영관리 합계(27.34)	33	-	17.20	12	10.14	
주요 사업	1.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3	0.00
	(2) 한식정보분석 조사·연구 결과 활용도				3	0.00
	(3) 한식당 지원 성과				4	4.00
	2. 음식관광활성화 실적					
	(1)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국내 내수 경제 촉진				3	3.00
	(2)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 성과				4	4.00
	3. 전문인력양성 실적					
	(1)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				5	5.00
	4. 한식해외확산 실적					
	(1)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6	0.0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8.08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4.50			
주요사업 합계(28.58)	27	-	12.58	28	16.00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0.00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0.00		
총계				55.92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비계량)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을 고려한 비전 및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나 핵심가치와 연계된 성과제시결과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 변화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으로 추진전략이 설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사업의 조정여부를 평가하여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전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경영목표 및 단계적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설립목적을 고려한 비전 및 핵심가치 설정 노력, 효용성 있는 사업평가를 통한 기관 관련 사업의 실행력 제고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과 연계된 가치개념의 명확성 제고방안 검토, 기관의 효율성 수준 진단/분석을 통한 비효율 요소의 구체화 및 발전방안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성: 한식의 미래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분석하고, 단계별 역량강화 요소에 대한 성과제시 체계로 발전 필요하다. 기관장(기관)의 경영목표, 경영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관련사항 제시노력 강화, 4대 사업추진전략별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한 세부사업 평가체계의 타당성 검토를 권장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비계량)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한 경영상의 개선 및 부분적 프로세스 간소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을 통한 기능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전달성을 위한 관련분야별 요구역량 대비 기관의 역량수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주요 사업지표 채수립 노력, 조직운영 문제점 진단을 통한 구조개편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한식에 대한 정부관련 정책,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등의 정책환경, 한식자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여부,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인식변화 등 기관의 고유사업과 연계한 환경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한식의 미래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역량확보 및 사업추진방향이 환경변화 분석/예측을 통해 도출되는 체계 검토). 기관의 모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의 제거나 정보화 가능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가능성 검토를 권장하며, 타 기관 벤치마킹 강화가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3) 리더십(비계량)

③ 리더십(비계량)

- 경영계약 이행 노력·성과,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

가하는 지표로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와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부분적으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노력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안과제 및 정부정책 방향 분석을 통한 경영전략 수립 노력, 핵심가치체계 강화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역할 정의 노력은 긍정적이며,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상임이사 선임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장 경영계약 해당사항은 없으나 기관에게 주어진 임무수행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기관의 주요과제, 연도별 목표수준, 주요과제별 관리지표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관리책임자 주관). 세부평가내용에 적합한 성과 관리 및 제시체계 발전 필요하다. 기관의 4가지 핵심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노력 강화, 상급 기관장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이사회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우수기관 벤치마킹 강화가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D+” 로 평가한다.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	-	3.00	1.75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 선택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0.5 ~ 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5 ~ 1.5), 총합계 3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였다. 2020년도 전체고용인원 42명 중 청년고용인원 21명으로 50.00%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0.75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인원 0명으로 0% 달성하여 0.50점 만점에 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정규직 전환대상 없으며,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자리로 적합한 업무의 식별 및 시간선택제(주당 15~35시간 근무) 일자리 고용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 등을 동반한 개선대안 도출 및 개선안 선정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노력은 타당하며, 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고용의 질 개선대상 범위가 직원의 생명, 안전과 연계한 노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세부평가내용에 적합한 성과제시로 제시된 성과의 지표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노력,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인사복무관리기준 정비 노력, 정현원차 비율 100% 달성 노력, 한식 전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범위의 적절성 검토(생명, 안전 등 사회적 책임)가 필요하며,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추진성과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의 구체적 검토(현 제시사항은 고용의 질 개선에 근접한 내용임)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필요시 무분별한 고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입의 필요성 검토(사전심사제), 직접적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의 구분제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의 일자리 창출효과 제시내용의 지표적합성 검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세부평가내용(기술혁신, 신규사업 발굴 등) 반영 노력 강화를 권장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	100.00	1.00	1.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0 ~ 0.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0 ~ 0.5),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0.0 ~ 0.6), 총합계 1점).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155%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지표 가중치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155%를 달성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되었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차별적 요인배제 등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20년 정규직 청년 비율 80%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노력도 수행되고 있으나, 고졸 적합업무 발굴 및 채용계획 수립 등은 발전이 필요한 사항이다.
-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고용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고졸자, 여성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요소 해소는 차별없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요소의 식별을 통한 개선대안 수립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자체 채용 프로세스 정립 노력, 청년채용에 대한 정부 권고기준 준수 노력, 청년고용 활성화 강화기반 마련 노력,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지원 등 여성인재 활용 및 육성을 위한 노력, 보수, 복리후생, 인사채용 등의 분야에서 차별없는 평등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노력, 임원 임명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여성임원 비율 50% 이상 운영 중)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평가결과의 핵심사항을 고려한 환류노력 강화가 필요하며, 고졸 적합업무 발굴 노력 강화, 저소득층,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강화(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한 성과제시체계 발전)를 권장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적합업무 검토 및 시간선택제 등 적절한 근무방식 활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고졸자,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별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요소의 식별 및 개선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환경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존 노력 강화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환경보존 지역행사 참여 등의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식자재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현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되나 기관 환경, 업무 특성 및 업무수행방식을 반영한 환경위해요소 식별 및 요소별 관리체계 정립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준배출량 5tonCO₂-eq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tonCO₂-eq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3tonCO₂-eq, 온실가스 감축률 60.0%로 온실가스감축 목표 30%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하여 0.25점 만점 중 0.25점 획득하였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이행도 70 가중치 중 0.000% 달성하여 0점 획득하였으며, 노력

도 30 가중치 중 구매비율 증감분 -15.100% 달성하여 0점 획득하여, 총점 0.25점 만점에 0% 달성한 것으로 환산되어 0.25점 만점에 0점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사항은 대체로 타당하며, 사전예방, 사후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개선 활동은 타당하다. 다만,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조, 재난/안전관리 유형별 관리전략 등 관리체계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 위험요소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위험성 평가 노력, 사무 환경 및 사업운영 방식 개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력, 한식문화관 임직원 및 이용객이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 행동지침 마련 노력,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안전진단 시행 노력,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외주용역 분야에 대한 위험성 평가 노력,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사이버위협 대응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정의하는 재난/안전관리 대상 및 대상별 관리중점 요소, 재난통제/지휘체계 재난관리체계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 세부평가내용과의 적합성 검토를 권장한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재해방지 노력 강화(근로자 내부 제안제도 운영 포함),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분적으로 제시된 성과의 지표적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평가편람 기준에 따라 “A+”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4~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0.4~0.6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5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 중소기업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2점 만점에 0.2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5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은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최근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의 보고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식당 지원, 소비촉진행사, 해외 협의회 공동구매 등 프로그램 운영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국산식 재료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계약서 적극활용을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은 타당하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접적 기술지원방안의 타당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제시된 성과의 지표적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내 한식당 국산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해외 한식당 협의회 국산식재료 공동구매사업 지원 등을 통한 국산식재료 구매율 제고 노력, 화훼농가 소비 촉진, 독거노인 국산식재료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노력,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을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노력, 코로나19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 한식당 지원, 한식전문인력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노력,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확대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이용 편의성 제공 등 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한 편의성 제공 가능성 검토, 온누리상품권 소비독려의 지표적합성 검토,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별 지원가능요소 식별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다년간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20년 감사역실을 감사실로 개편하여 ’ 20년 처음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내부건제시스템으로 감사실과 함께 시민청렴감사관제를 운영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 20년도에는 위촉만 했을 뿐 실제 활동내역이 없다. 감사업무계획, 감사매뉴얼, 감사지침 등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및 결과 환류방안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환류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렴정책 참여 확대 점수가 6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실적보고서 상 적절한 내용 및 실제 활동만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① ‘20년 시민청렴감사관제는 위촉만 했을 뿐 활동 내역이 없다. ②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사업비 적정집행 및 예산 절감 실적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평가 결과 내부 정산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재정산 사례로 확인되었다.

- 윤리경영 모니터링체계를 모니터링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환류 등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직원 의견수렴 활동은 의견수렴 - 분석 - 환류계획(조치)의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관의 중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접근권한, 접근절차, 결재 등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0”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한식진흥원은 한식진흥법령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한식진흥 정책 중장기방향을 제시하였다. 한식진흥정책 활성화방안 보고서 검토 결과, 기존(As is) 정책목표, 한식산업경쟁력, 국내외확산, 진흥원역할 재정립 등을 돌아본 후 향후(To be)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외국 및 국내의 여건 등을 분석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흥원의 역할을 정립한 점이 긍정적이다.
- ‘20년도 혁신추진체계를 확인한 결과, 관련 추진단 및 자문단, 이해관계자 채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불용예산을 활용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재택근무 자료집 제작, 딜어요챌린지 영상제작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진흥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과를 보인점이 인정된다.
- 선호도 조사, 내부직원투표 등을 통해 밥돌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국민에 조금 더 친숙한 진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한식홍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긍정적이다.
- 보다 체계적인 혁신전략과 과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식진흥원의 비전은 한식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삶의 질 향상이며, 제시한 주요정책과제는 한식진흥기반조성,

한식산업경쟁력강화, 한식국내외확산, 진흥원역할 재정립이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와 과제의 연계성, 이를 추진하기위한 목표 및 성과, 환류체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혁신추진조직의 가시적인 ‘20년 성과확인(경영, 학계, 산업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의 역할, 조직의 니즈파악 등)이 명확하지 않다. 혁신추진동력강화를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했는데, 기관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니즈, 성과, 환류체계 등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로 밥돌캐릭터를 제시했는데, 밥돌캐릭터로 인한 향후 파급효과는 인정된다. 다만, 직원과 함께하는 캐릭터 개발 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시한다면 더욱 좋을 듯하다.
- 한식진흥원은 소통강화를 위한 온라인 채널(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홍보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친근히 다가설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이다. 유튜브 채널운영 등으로 국민과 소통에 수월하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년도 밥돌캐릭터를 개발해 보다 더 친숙한 기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다.
- 새로 신설된 조사연구관련 업무부서는 향후 국민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한식당 지원, 관련프로그램 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고객의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 전화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추진, 내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식포털사이트 개선으로 인한 고객이용 편의증진(DB정보 등)이 개선되는 등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아이디어, 업무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 한식진흥원은 기관특성 상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많은 문의가 있을 수 있는 기관이다. 제시한 성과 검토결과,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 전화응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원창구의 경우 일원화 또는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활용자가 드문 편이다. 현장평가결과, 홈페이지에 적힌 담당자 전화로 거의 다 문의를 해서 문

제가 없다고 하나, 기관의 홈페이지 문의 또한 활발히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담당자가 매일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문제점(회의, 휴가, 출장 등)도 있으므로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다른 창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년간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총 33건 응대).

- 한식업계 종사자, 정부, 지역사회 등과의 대화(니즈파악)->문제점 파악 및 성과->환류체계도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현 보고서와 답변서에서도 어떠한 니즈가 파악이 되었으며, 환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 전년 지적사항이었던 적극행정의 경우,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규정의 해석(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 등)해 직원에 전파하기를 권장하며, 소극행정 또한 유형(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을 구분해 전파하기를 권한다. 소극행정의 경우 현재 부처에서도 사례가 나오기 쉽지않은 만큼 사례발굴보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식진흥원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보통 준정부기관 수준의 중점추진과제수는 2개 정도이며, 1개로 봐도 무방할 수도 있다.여기에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프로세스(배경→추진과제 선정 프로세스→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실적→환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수법인화, 사업개편, 제도개편, 기능개편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기대성기도 모호하다.
- 중점추진과제 프로세스 및 자세한 내용, 기관차원(규모, 업무 등을 고려)에서 제시한 추진과제가 왜 적절한지, 향후 기대효과 및 환류는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D+”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D0”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E0” 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계량)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4.0	92.84	1.00	0.93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4.0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9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2.2점, 2020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4.0점을 획득하였다. 2019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84.4점, 2020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88.0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100.1점을 획득하였다.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기관으로 6:4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92.84점이 산출되었다.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3.1	-	1.00	0.60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3.1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6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진흥원의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은 종합 별점 3.1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60점을 획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비계량, 계량)

① 재무예산 운영 · 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한다.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9.5%를 달성, 전년 98.8%에 비해 0.2%p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1.87%를 달성하였다. 사업비 집행률 실적조사결과, '17년 95.48%, '18년 91.46%, '19년 97.20%를 보였으나, '20년 91.87%로 약 6%p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확산으로 해외기반추진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9월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 확인하였으며, 9월 말 시점의 집행률은 51.42%, 4/4분기 집행률이 40% 이상인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잔금 등이 12월에 집중되는 점이 고려되더라도, 3분기까지의 집행률이 낮은 편이므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실적점검에 따른 예산조정, 일시중단된 사업의 검토, 정책반영 사업 관련 확인 후 편성하였으며, 집행단계에서는 월간점검(8회)을 실시해 집행계획 대비 실집행액을 관리한 점이 긍정적이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발생한 바(해외사업 축소 등), 관련 예산을 코로나19대응 신규사업 추진으로 활용하였으며, 관련 프로세스 또한 명확하다(한식진흥원 회계규정).

- 보조금의 목적 외 집행사례가 없도록(기존 국회지적) 사업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회계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진 점이 긍정적이다. 예산편성 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서류확인체계도 명확하며, 우선구매 대상기업 적극활용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 편성과정에서 과거 예산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편성심 의위원회 등의 최종결정권자가 기관장인지, 집행과정에서 문제있는 사업의 추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담당자에게 어떻게 알람을 주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1.087	92.870	2.00	1.86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1.087%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86 점을 획득하였다.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20년 12월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으며, 바뀐 조직에 대해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평가는 ‘20년의 조직 및 인적자원, 성과관리체계 구축관련 평가이므로 제시한 내용으로 ①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②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 책임설정이므로 제시한 내용으로 평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에 기존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유추는 가능하므로 관련 평가를 실시하였다.
- 기본적으로 부서별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조직설계 검토결과, 경영기획팀은 지원부서 기능중심으로, 사업기획팀은 기획관련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 조사연구팀은 조직내 석박사급 인력배치를 통한 전문성강화 등 조직인력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재택근무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를 시행(사전안내-희망직무 등록-인력배치)해 전년 조직을 개편하였다. 새로 바뀐 부서(팀)의 ‘21년 성과가 기대된다.
- 조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법정 의무교육, 공통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숫자 제시도 중요하나, 숫자만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진흥원 차원에서 관련 교육을 왜 실시했는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어떤 니즈를 파악해 실시하는지, ‘20년 목표 대비 몇 명의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19년 대비 교육성과는 어떠한지도 함께 제시해주길 권장한다. 또한, 인사조치관련, 인력배치 시 니즈 반영률(원하는부서인원/배치부서인원)도 함께 제시가 되어야한다.
- 새로운 조직 검토결과, 조사연구팀이 신설되었으며, 5명의 석박사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식관련 정보제공 및 분석, 새로운 수요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판단되며, 현장평가 시 부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가 되었다. 다만, 현 기관규모 상 왜 조사분석에 다수의 인원이 포함되었는지 등이 명확히 기술되지 못해 아쉽다.
- 기관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전문직위제 운영 등이 추진개요는 있으나(인사교류절차포함) ‘20년에 몇 명을 어떠한 이유로 채용했는지, 채용하지 못했는지 등 관련 운영을 확인할 수 없다. 기관의 성과평가시스템(부서 및 개인 KPI)이 명확하지 않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D0” 로 평가한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실적보고서, 현장평가, 추가자료 등에서 기관의 1년 운영 실적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양한 계획 및 활동에 대한 내용만 제시할 뿐 계획 및 활동에 대한 결과 및 조치 등 환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직무급제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급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 9단계 직무급제 구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기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특성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준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와 관련한 내용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0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명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 권고안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 임금피크제 재원조달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실적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편람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가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실적보고서 상 확인하기 어렵다.
-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둘째, 합리적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등의 설계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0” 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80% 이하	2.57%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0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57%로 기준치 2.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57%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을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내부직원 의견수렴에 대한 분석 및 결과 환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미흡하다.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다.

- 조직 구성원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8년, ' 19년 대비 기혼자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용품 지원/육아휴직 기간 증가 등). 기관의 연차사용률은 91%로 높은 편이다. 다만 저사용자(부서별/직급별)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요구된다.
- 실적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실적보고서 상 소통의 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환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인식조사/의견조회/순위조사/요구사항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은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0”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1) 한식 인지도 확산 추진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 인지도 확산 성과	목표 대 실적	75.52	74.10	98.12	1.50	0.00
		1,497,432	1,542,675	100.00	1.05	0.00
		360	386	100.00	0.45	0.00

나. 평가내용

- 진흥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의 확산 및 활용 노력에 의한 한식 인지도 향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 인지도 조사 결과 목표치 75.52점 대비 실적치 74.10점으로 제시되었다. 한식 콘텐츠 노출도 목표치 1,497,432건 대비 실적치 1,542,675건으로 제시되었다. 한식콘텐츠 배포 수 목표치 360건 대비 실적치 386건으로 제시되었다.
- 다만, 제출된 실적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의제기로 총괄위원회 운영 결과에 의한 경영실적 보고가 인정되어 해당지표 0점 처리되었다.

다. 평가 의견

- 한식 콘텐츠 노출도는 '20년 목표 대비 45,243건 많은 1,542,675건을 달성했으며, 특히 홈페이지 페이지뷰의 증가로 인한 한식인지도 확산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식 인지도 조사의 경우, 별도의 조사가 아닌 해외 한식소비자 조사표에서 일부 한식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설문항목이 복잡하고 한식 인지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인지도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 한식 콘텐츠 배포수 386건의 내역을 확인할 결과, 한식콘텐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공고, 단순 안내사항, 뉴스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량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업 취지인 한식인지도 확산에 부합하는 콘텐츠 배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식 콘텐츠 배포 수의 경우, 기관의 의지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평가산식에서 한식 콘텐츠 배포 수의 반영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2) 한식 정보분석 조사·연구결과 활용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 정보분석 조사연구결과 활용도	목표 대 실적	18	18	100.00	2.10	0.00
		59	69	100.00	0.90	0.00

나. 평가내용

- 진흥원이 추진한 조사·연구결과와 활용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조사연구결과 인용 건수 목표치 18건 대비 실적 18건으로 제시되었다. 조사연구결과 배포 수 목표치 59건 대비 실적 69건으로 제시되었다.
- 다만, 제출된 실적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의제기로 총괄위원회 운영 결과 허위에 의한 경영실적 보고가 인정되어 해당지표 0점 처리되었다.

다. 평가 의견

- 조사연구결과 배포수의 경우, 기관의 의지에 따라 쉽게 조정 가능하므로 평가산식에서 조사연구결과 배포수의 반영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 인용건수 18건의 내역을 확인할 결과 14건이 온라인뉴스이며, 2020년 전통장담그기 향유포럼 열린장독대 개최 3건(동일 내용) 등 조사연구결과 인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량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연구결과 인용건수는 가능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을 실적으로 산출함과 동시에 조사연구결과 배포기관과 인용건수와의 상관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3) 한식당 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당 지원 성과	목표 대 실적	85.76	89.77	100.00	2.80	2.80
		18	72	100.00	1.20	1.20

나. 평가내용

- 한식당 지원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당 지원 사업 수혜대상 만족도 목표치 85.76점 대비 실적 89.77점으로 목표치 100%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80점 만점에 2.80점을 획득하였다. 한식당 지원 사업 지원 수 목표치 18건 대비 실적 72건으로 목표치 100% 초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20점 만점에 1.2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당 지원 사업 수혜대상 만족도는 '20년 목표 85.76점 대비 89.77점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식당 지원 사업 지원 수의 경우, 예산책정에 따라 쉽게 조정 가능하므로 평가산식에서 한식당 지원 수 30%의 반영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한식당 지원 수(22건)의 산출에 있어 협의체 수, 국가 수 등 산출단위가 서로 달라 산출단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 본 지표의 정의가 한식당 지원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식진흥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지원받은 한식당의 양적·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측정산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② 음식관광활성화 실적

(1) 음식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국내 내수경제 촉진	목표 대비	237	237	100.00	2.10	2.10
	실적	95	96	100.00	0.90	0.90

나. 평가내용

- 국내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 촉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음식관광상품 판매 지원 수요도 목표치 237개소 대비 실적치 237개소로 목표치 100%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10점 만점에 2.10점을 획득하였다. 음식관광 연계 업체 지원 수 목표치 95건 대비 실적치 96건으로 목표치 대비 100% 초과 달성하여 지표가중치 0.90점 만점에 0.9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본 지표의 측정산식은 지원 수요도에 따른 지원실적으로 지표 정의인 국내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 촉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데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 신규지표로 기준치의 설정 근거가 부족하다. 즉, 음식관광상품 판매 지원 수요도 기준치 237의 근거가 되는 250의 설정 이유, 음식관광 연계 업체 지원 수 95의 근거가 되는 100의 설정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음식관광 연계 업체 지원 수는 예산책정에 따라 쉽게 조정 가능하므로 평가산식에서 30%의 반영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2)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도	목표 대비	84.63	91.55	100.00	2.80	2.80
	실적	65.76	66.90	100.00	1.20	1.20

나. 평가내용

- 한식문화관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선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한식프로그램 만족도 목표치 84.63점 대비 실적 91.55점으로 목표치 대비 100% 초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80점 만점에 2.80점을 획득하였다. 외국인 체험객 비율 목표치 65.76% 대비 실적치 66.90%로 목표치 대비 100% 초과 달성하여 지표가중치 1.20점 만점에 1.2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19년 경영실적보고서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지표를 추가하고 방문·체험객수 지표를 한식문화관 설립취지에 맞는 외국인체험비율로 평가산식을 개선하였다.
-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만족도는 2020년 신규지표이나, 목표치의 설정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며, 목표치 “71.3%”는 도전성이 부족한 낮은 수치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오프라인 체험프로그램 만족도의 경우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차년도에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외국인 참여비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③ 전문인력양성 실적

(1)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	목표 대	85.76	89.72	100.00	3.50	3.50
	실적	118	148	100.00	1.50	1.50

나. 평가내용

- 한식전문인력 지원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전문인력 지원사업 만족도 목표치 85.76점 대비 실적치 89.72점으로 목표치 100.0% 초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

치 3.50점 만점 중 3.50점을 획득하였다. 한식전문인력 지원 수 목표치 118건 대비 실적치 148건으로 목표치 100% 초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50점 만점 중 1.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한식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대면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속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식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본 사업이 당초 설정한 사업 성과지표인 ‘한식전문인력 지원 사업 만족도’와 ‘한식전문인력 지원 수’가 목표치를 각각 달성하였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또한, 타 기관(국립외교원 등)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와중에 비대면 취업 컨설팅·상담 교육을 마련함으로써 한식인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추진하였다는 점도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이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조직 및 예산 상의 한계, 코로나19와 같은 여건·환경 변화로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면 방식의 교육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면 방식의 교육과 병행하여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한식인력 취업 확대를 위해 취업컨설팅·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을 계발하고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 당면한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초에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치 달성이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적 지표(한식전문인력 지원수)와 질적지표(한식전문인력 지원사업 만족도)를 혼용하여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도는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상당히 주관적(한식전문인력 지원사업 만족도)이거나, 전문인력 지원 수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적 확대만을 의미할 뿐,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장기적·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양적 효과와 질적 효과와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점검과 환류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소규모 프로그램이며, 다소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틀을 벗어나서 이 사업에서 집중해야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보다 집중적/장기적/체계적인 사업 추진(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4] 해외 한식화산 실적

(1)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목표 대	5	5	100.00	3.00	0.00
	실적	250	250	100.00	3.00	0.00

나. 평가내용

-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식 콘텐츠 개발·배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목표치 5개 대비 실적치 5개로 제시되었다. 한식프로그램 수요자 수 목표치 250명 대비 실적치 250명으로 제시되었다.
- 다만, 제출된 실적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의제기로 총괄위원회 운영 결과 허위에 의한 경영실적 보고가 인정되어 해당지표 0점 처리되었다.

다. 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 한식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대면 교육을 기본으로 설계된 사업이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렵게 됨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식 체험 밀키트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여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식 체험 수단(밀키트)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는 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성, 창의성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사업 성과를 위해 설정한 성과지표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한식프로그램 수요자 수’는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지표를 통해서 사업이 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또한 해외 한식 확산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충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 온라인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밀키트를 제작하여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해 성과를 달성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해외 한식 확산이 이 사업의 핵심목표라는 점에서 양적 성과의 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식 확산을 통해 경제적, 산업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생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효과·성과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또는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향후 프로그램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참여자 만족도에 대해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성과지표의 성과로서 제시되는 것 이외에는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단순한 만족도가 아닌 프로그램 전반 또는 세부 과정/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환류할 경우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까지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추후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등 모집 중)가 아시아권, 동구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일본, 중국의 경우 한식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한식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도시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고민해볼 문제이다.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성과관리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성과지표개발, 주요사업 도출 및 선정 process가 미흡하므로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목표치 설정의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며, 자원배분 계획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체계화·정규화된 사업 수립 및 추진 절차/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 “한식진흥법” 수립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제11조)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한식진흥법” 상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수립(계획)되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내용에서 장기적·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전략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
- 한식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 질적성과 지표(한식전문인력 지원사업 만족도)와 양적성과 지표(한식전문인력 지원 수)를 동시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지표의 특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식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추진된 사업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점검하여 향후 사업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관장 과정(배우자) 교육, 한식 교강사 교육, 취업컨설팅·상담 등의 경우 사업 추진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느 정도 완전(충분)하게 부합되고 있는 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문인력 양성의 본연의 취지·목적이 한식산업 진흥 발전, 한식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에 부합될 수 있는 정도로 본 사업의 교육 대상, 프로그램(내용) 구성, 교육 인원이 설정되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 취업 컨설팅/상담 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사업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전문인력 양성과 어떤 측면에서 부합되는지, 또한 이러한 사업이 한식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수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수행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해외 한식 확산실적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과지표가 양적지표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의 중장기적인 수행과 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정하게 하고, 이를 환류하여 사업 개선·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에 직면하여 프로그램 추진 방식을 적정하게 변경하였으며, 또한 한식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한식프로그램 수요자 수는 한식 해외 확산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단순한 확산보다는 이러한 한식 확산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제대로 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경우 향후 사업의 정성적 성과, 절차/과정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E+/E+/B0/B+”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 및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으나 대응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추진 활동과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과 전략을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 인력, 예산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요소)도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의 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제반 여건들이 근본적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향후 이 사업 및 기관 전반의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라는 중대한 환경변화와 장애요인에 직면해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수단을 활용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업별 또는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도 당초 제시한 소기의 성과목표들은 달성하였다.
-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을 반영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궁극적으로 사업의 취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사업인지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 설립의 목적, 한정된 예산, 조직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기관이 집중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수정/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실시된 국내 직접 교육 세부사업(활동)들의 경우 20~4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정도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기관의 사업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취업 컨설팅·상담의 경우 코로나19 등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업의 취지는 공감되는 바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그리고 지원 내용이 적절한 수준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공관장 과정 교육도 동일함).
- 한식 해외 확산 사업은 당초 한식 정책의 출발점인 한식세계화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본 사업의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 한식 해외 확산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특히 해외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예산을 재배치하고, 사업(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대응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도 달성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및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등 해외 유관기관도 적절하게 활용(협력)하였다. 변화된 여건·환경에 대응하여 주어진 예산·조직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과 목표치도 달성하였다.
- 추진 활동 실적이 양적 실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와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추진과 실적 달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한식해외 확산이 단순히 양적 확산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한다. 이미 한식에 대한 저변과 관심이 넓은 지역의 중요성도 해외 한식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하나,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사업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E+/G+/B0/B+” 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가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핵심가치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제시된 성과목표 및 목표치는 모두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자체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경영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활동(사업)들이 기관의 설립 목적(경영목표)을 모두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한정된 인력·예산과 코로나19라는 중요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프로그램)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완(변경)한 점도 성과 달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성과로 제시된 내용을 통해 판단할 경우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러한 성과목표가, 그리고 성과목표의 달성이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설립 목적과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양성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중장기적인 설계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식 해외 확산 사업에서 제시된 성과목표 및 목표치는 모두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지표로 구성된 현재의 성과지표만으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한식의 해외확산이라는 목표를 질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를 위한 과정/절차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라 해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 달성을 위해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프로그램) 내용, 전달 방법 등을 변경하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후 한식 해외 확산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성과목표와 목표치 달성 정도로는 한식에 대한 체험(인지) 수준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지 등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E0/E+/B0/B+” 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성과관리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자체평가 및 환류 process가 미흡하다. 특히,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해연도('20) 사업성과에 대한 보완 및 향후 계획 등도 제시되어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 한식 교·강사를 대상으로 희망 교육 및 실습내용, 교육형태, 시기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각종 국제행사에서 활용되는 한식에 대한 외교 분야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외교관 공관장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일련의 수요 조사,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추진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전반적인 사업성과 창출에도 기여하였는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부합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 사업 환류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단편적으로만 활용 가능하

다. 사업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여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할 수 있는 절차/방법/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비대면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의 기존 사업 추진 영역이 아닌 한식 밀키트 라는 한식 산업 영역으로 신규 진입하였으며, 수요기관과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다양한 의견/평가를 반영하여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자체 평가가 어느 정도 실질적·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프로그램) 추진에 활용하고,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해외 사업 추진 후 이에 대한 수요자에 의한 사업 평가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 측정 등 사업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예정 상태). 향후 다각도로 사업에 대한 평가(효과 측정)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E0/C/B0/B+”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 교육 및 컨설팅 대상 세분화 후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기관 차원에서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세분화하여 추진한 부

분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 추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시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업 대상과 내용 등이 제한적이다.

- 비대면 체험 키트 개발로 국산 식재료 해외 확산·홍보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밀키트 업체 해외 수출 제고를 통해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체험 키트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산 식재료에 대한 실질적(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적·산업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성과(기회)를 창출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지속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상당한 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이러한 요소(체험 키트)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E0/E+/B0/B+” 로 평가한다.

⑥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설립목적은 한식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비전은 한식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한식전문 공공기관, 전략목표는 음식관광활성화 선도

역할 강화에 있다. 이에 성과목표를 ① 한식진흥 기반강화, ② 음식관광활성화, ③ 전문인력양성, ④ 한식해외인프라구축을 제시하였다.

- 먼저, 전년지적사항이 핵심성과지표를 SMART분석을 통해 뽑았다고 했으나 의문이라고 했는데, ‘20년 평가또한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성과지표는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지표 pool을 제시한 후, 최종성과지표를 선정한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산출, 되도록 결과단계에서 제시해야 한다. 지표의 가중치 또한 사업규모, 목적 등을 고려하고 AHP, 기타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 현 제시한 대표지표를 검토한 결과, 한식정보분석조사연구가 포함되었는지 의문이다. 본 지표의 내용은 과정지표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표성과지표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있다. 지표명 그대로 한식정보분석은 한식당지원, 음식관광활성화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다른 대표성과지표의 경우 사업목적과 연계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연계성에 대한 설명, 지표의 명확성 등을 볼 수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
- 지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내용 또한 부재하다. 향후 활용하기 위한 지표일 경우 자세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 사용되는 지표의 체계적인 조사, 니즈 파악, 전문가 자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제시, 더 나아가 로드맵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표의 데이터구축관련(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실현가능성 등) 내용도 명확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D0”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각 성과지표의 환경분석, 도전적인 목표설정,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지표정의 및 산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각 지표별 환경분석을 통한 문제점, 목표치 설정 근거 및 도전성에 대한 내용을 보기 힘들다.

- 대표지표의 산식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① 한식인지도확산추진성과의 경우, 만족도 점수의 보통이상 비율 점수의 기준, 페이지뷰수 및 SNS조회수가 적절한지? ② 한식정보분석조사연구결과활용도의 경우, 인용건수의 기준이 학술연구 등의 인용이 아니며, 배포수가 왜 포함되는지? 배포수는 기관에서 늘릴 수 있는 건수이며, ③ 한식당지원성과의 경우 지원 수의 가중치는 30%나 만족도가 70%인 이유? ④ 음식관광활성화 기반구축의 경우 음식관광판매지원수, 컨설팅 수 등 산식이 매년 도전적이 가능할지?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 ⑤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개선도의 경우 외국인체험비율 30%, 만족도 70%의 기준, ⑥ 한식전문인력 지원성과 또한 지원수는 30%이나 만족도가 70%, 해외인프라구축성과의 경우 운영도시수와 수요자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바뀐 지표(산식)의 기준치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식해외인프라구축성과의 한식프로그램 수요자수를 목표치는 250명, 실적치는 250명, 달성도 100%로 제시하였다(대부분의 지표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서 목표치 250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체계적인 조사,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실적을 250명으로 기재해 100% 달성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결과 5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조사수를 명확히 기재한 후 차년도 목표설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E+”로 평가한다.

7 가점 지표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대부분이 웹사이트 개선이나 콘텐츠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혁신성장을 위해 최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DB

재설계 추진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추가적인 노력인지 또는 기존에 기관 발전을 위해 당연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사안인지는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 한식당 지원을 위해 개발된 한국적 이미지 물품 배치 적용 상태 등을 미리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3D 이미지 구축하였으나, 혁신기술 융합성으로 보기에선 부족하다. 해외 한국적 이미지 구축 사업 시행,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한식당 지원용 한국적 이미지 브래딩 패키지 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 농림축산식품부 오픈 API를 통해 안심식당 DB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선 부족하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 한식 콘텐츠 DB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대응 안심식당 DB를 구축하여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국민 요구를 반영한 DB를 구축하고 선제적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한 DB 구축과 제공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이어졌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데이터 배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청년인턴 채용 및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년 인턴 2명 채용, 한식포털 DB 개발 데이터 품질 확인 및 조사사업 데이터 실측 등 수행).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청년 인턴 채용은 장기적/정규적인 일자리의 창출은 아니며, 이러한 인턴의 업무가 적절한 수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과 부합하는 정도의 사업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점”으로 평가한다.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국내·외 한식당 대상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해외: 한식당 1,360개소 대상 마스크 72.8천장, 한식당 1,360개소 대상 손소독 티슈 74.8만장; 국내: 국내 우수한식당 96개 방역·위생물품 지원) 방역물품 지원이 국내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식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K-Culture 페스티벌 연계 한식 행사 운영으로 외식업계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한식당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 코로나19 발생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국내 한식전문인력의 원활한 해외 파견 및 오프라인 한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체험 밀키트 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디지털 뉴딜 실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코로나19에 대응한 단기적인 대응인지 또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대응인지 모호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점”으로 평가한다.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3	B+	2.40		
	(2) 경영개선	1	B+	0.80		
	(3) 리더십	1	B0	0.70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5	B+	4.00	3	1.6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1.00	1	0.15
	(3) 안전 및 환경	5	C/A+	4.42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	0.80	2	2.00
	(5) 윤리경영	3	C	1.80		
	3.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B0/B0/ C	2.00		
	(2) 국민소통				2	0.98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0.70	2	1.90
	(2) 조직·인사일반(삶의 질 제고)	2	B0	1.40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0	1.60			
(2) 충인건비 관리				2	2.00	
(3) 노사관계	2	C	1.20			
경영관리 합계(31.53)	33	-	22.82	12	8.71	
주요 사업	1.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8	8.00
	2. 기업 성장지원 사업					
	(1)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6	6.00
	(2)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5	5.00
	(3)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3	3.00
	3. 新인프라 구축 사업					
	(1)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5	4.43
(2) 안전사고 예방 실적				1	1.00	
4.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15	-	11.70			
5.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12	-	8.70			
주요사업 합계(47.83)	27	-	20.40	28	27.43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0.1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0.5		
총계				79.96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비계량)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가치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내·외 공유·확산 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핵심가치 내재화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략체계를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은 바람직하며, 국정과제 등 핵심 정부정책과 연계한 경영전략 추진체계 재정립 노력도 타당하다.
- 다만, 핵심가치의 의미에서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에 관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으며, 실행관리 측면에서 PDCA의 주기 및 기능별/부서별 KPI와의 연계관리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차원의 비전,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SWOT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전,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도출된 내부역량의 강·약점 요소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요구된다.
- 가치체계 진단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핵심가치 재해석 노력, 가치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노력, 핵심가치 추진체계 내재화 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전략체계 보완 노력, 주요 핵심업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한 신규 3대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 설정 노력, 국정과제 등 핵심 정부정책과 연계한 경영전략 추진체계 정립 노력은 우수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내부역량 분석시 현 상황을 만들어낸 근본적 요소의 발굴 노

력 강화가 필요하며,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과 연계된 가치개념의 반영방안 검토를 권장한다. 기관의 효율성 수준 진단/분석을 통한 비효율 요소의 구체화 및 발전방안 구체화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과제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의 타당성 제고(충분성 측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비계량)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대외변화를 고려한 기관의 중점 추진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고려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 조직, 인력 및 예산운영 방향 설정, 신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능성식품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기능성 원료 은행 구축사업 추진은 타당하며, 내·외부 의견수렴,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적이고 유사한 업무의 일원화 접근은 타당하며,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챗봇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다만, 기관의 전반적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개선의 필요성이 조직진단,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 거시환경 및 산업전망 분석을 통한 조직의 기능조정 및 발전 로드맵 수립 노력,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운영 방안 및 푸드파크, 원료은행 등 신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발전방안(‘19), 입주기업간담회, 외부 컨설팅을 통한 경영목표설정, 입주기업 지원확대, 주요사업 핵심지표 개선 등의 노력,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 강구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차원의 개선 노력은 우

수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지원사업 통합공고 등 반복적이고 유사한 업무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노력, 챗봇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운영을 통한 고객편의성 향상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다만, 기관의 전반적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필요성 검토 또는 단계별 검토체계 정립, 일하는 방법 및 문화의 혁신측면에서 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3) 리더십(비계량)

③ 리더십(비계량)

- 경영계약 이행 노력·성과,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중기계획을 반영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체계 도출, 핵심과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 특성에 부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현 지표의 대표성 또는 충분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핵심가치 내재화, 조직 및 인사 혁신 등의 조직 구성원 동기부여 활동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나, 주요 현안 식별 범위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현안과제별 장애요인의 극복도 주요 현안으로 볼 수 있음). 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문그룹 구성을 통한 경영참여 확대 등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의 역할 대비 현 역할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대응방안별 기관장의 대응노력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경영목표를 고려한 핵심 현안과제 도출 및 과제별 관련 성과지표 적용 노력, 현안과제별 장애요인 식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신가치체계 내재화를 위한 대내 공유 및 대외 확산 노력,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조직 및 인사혁신 노력, 운영 내실화, 비상임이사 경영참여 확대, 경영제언 환류프로세스 정립 등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노력은 우수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비상임이사에 대한 경영혁신, 비즈니스 등 4개 분야 전문그룹 구성 노력 또한 긍정적이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B0”로 평가한다.

②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	-	3.00	1.68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 선택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0.5~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0.5~1.5), 총합계 3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였다. 2020년도 전체고용인원 80명 중 청년고용인원 36명으로 45.00% 달성하여 1.00점 만점에 0.68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인원 0명으로 0% 달성하여 1.00점 만점에 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정규직 전환대상 없으며,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자리로 적합한 업무의 식별 및 시간선택제(주당 15~35시간 근무) 일자리 고용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 및 주요 실행과제 선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도별 목표의 구체적 제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기관자체, 민간부문 구분). 또한, 고용의 질 개선과 연계한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화 제시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가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타당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세부평가내용에 제시된 사항의 반영 노력).
- 환경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사점 도출 및 분야별 주요실행과제 도출 노력, 사전 심사제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양산방지 노력, 민간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노력, 신규사업 발굴 등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가능한 한 연도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기관 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시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고용의 질 개선과 연계한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적 제시(제시된 사항의 지표 적합성 검토), 정현원차 비율 축소를 위한 다각적 대안 수립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	85.00%	1.00	0.15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0 ~ 0.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0 ~ 0.5),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0.0 ~ 0.6), 총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 결과 법정 의무 고용률 대비 30.59%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15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대비 30.59%,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0%를 달성하였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되었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고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별 적합업무 발굴을 통한 채용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불합리한 차별해소나 처우개선 노력은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요소의 식별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전형별 검증방법 강화 노력, 여성관리자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 노력, 차별요소 자체진단을 통한 제도 제정 및 개선 노력, 임원임명 양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 권고사항 준수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정부권장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 대상별 적합업무 발굴 및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세부평가내용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형평적 차원의 채용 대상 고려)를 권장하며,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설정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노력 강화(적합업무 발굴 등), 고졸자,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별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요소의 식별 및 개선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 특성 및 단지 내 역할과 연계하여 유해환경요소의 식별 및 대내외 차원의 대응체계 구상 등 종합관리대책수립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 R&D 친환경 조성, 환경오염방지 등 기관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환경보존 노력, 단지 내 환경정화 활동 및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캠페인 실시는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직무와 관련한 일하는 방식 등과 관련한 환경보존 노력의 필요성 검토 강화,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한 협약 등 기관의 역할 가능분야 식별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준배출량 3,448tonCO₂-eq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258tonCO₂-eq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190tonCO₂-eq, 온실가스 감축률 5.51%로 온실가스감축 목표 30% 대비 18.37% 달성하여 0.25점 만점 중 0.05점 획득하였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이행도 70 가중치 중 33.500% 달성하여 29.313점 획득하였으며, 노력도 30 가중치 중 구매비율 증감분 0.000% 달성하여 0점 획득하여, 총점 0.25점 만점에 29.31% 달성한 것으로 환산되어 0.25점 만점에 0.07점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이 대응해야 할 재난유형을 정의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등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과제식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과제 등의 도출노력은 타당하다. 다만,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요소의 구체적 식별 및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재난유형을 고려한 안전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도출 노력, 안전 컨트롤타워 구성 및 예산증액 노력, 비상대책반 운영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노력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되며, 입주기업, 지역주민, 고객 등 대상별 안전서비스 제공 노력, 산업안전, 시설안전, 재난안전 등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용역근로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규정 개정 노력,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노력, 건성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력은 우수하며, 정보보안 사고유형의 분류 및 이를 고려한 전략과제 도출 노력,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스팸메일 관리 강화 노력이 긍정적이다.
- 근로자 피해방지를 위한 내부제안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부분적으로 성과로 제시된 세부사항의 지표적합성 검토(시스템 기능개선분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평가편람 기준에 따라 “A+”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4~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4~0.6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5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1.0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5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최근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의 보고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사무규칙 개정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확산 노력, 창업-벤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노력은 타당하며, 전국 중소 식품기업 대상 기반기술 지원노력은 지역별, 분야별 시급요소의 분석 등을 통하여 단계별 지원계획의 구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북 식품기업 대상 기술지원 활성화 등 기관의 핵심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노력, 기관보유 시설 지역주민 대상 개방 및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사무규칙 개정 노력, 전국 중소 식품기업 대상 기반기술 지원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시제품 지원 등 창업-벤처 지원강화를 통한 식품경쟁력 확보 노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입주기업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확산 노력이 우수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술 및 육성 지원 노력, 사회적 기업 수의계약 확대 등 제도마련 노력도 긍정적이다.
- 부분적으로 제시된 성과내용의 지표적합성 제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별 지원필요사항 식별 및 지원강화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

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20년 첫 기타공공기관 평가 기관으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없다. 전반적으로 계획 - 집행 - 환류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 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해 ‘20년 감사규정 제정, 일상감사 지침 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지침 개정 등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년 갑질근절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불공정·갑질 요인 점검 및 조치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징계 감경제한 관련 규정 벤치마킹을 위해 다양한 기관을 분석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해 ‘20년 감사팀을 신설(이전에는 기획/경영팀에서 겸직)하여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계획 및 활동은 물론 결과 환류방안까지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 직원 대상 갑질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회수율이 저조(32.2%)하며 결과에 대한 환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갑질 피해가 있는 15%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내부 갑질조사도 중요하지만 향후 외부고객 갑질조사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시 및 환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식품진흥원의 비전은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경영목표는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신인프라 13개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관련 16대 전략과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4년의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올해 첫 기타공공기관 평가기관에 포함되었는데, 제시한 전략을 토대로 노력하게 되면 향후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내, 외부의 역할분담이 적절해 보이며, 주요역할별 회의주기 등도 적절하다.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19년 대비 2배 이상 운영하였으며, 보상체계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대내외 혁신네트워크 검토 결과, 현장즉시상담(36회)을 통해 투자유치 노력을 제고하고, 창업유관기관과 협업, 건강기능식품 GMP협의체 운영, 친환경 농산물구매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
- 공정경제를 위해 계약사무규칙 개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일상감사 적용을 통한 계약 투명성 강화,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품진흥원에서 제시한 15대 혁신전략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전략 9번)과 해외수출 유관기관 연계, 판로지원 채널확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 전략이 기업성장을 위한 전략인지, 판로개척을 위한 전략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금 더 체계적인 전략체계를 구축하기를 권장한다.
- 대국민(시민·국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고객,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별 소통채널 및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독자 등이 큰 폭 상승하였으며, 화상회의를 통해 입주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우수혁신과제를 배포하는 등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정보공개운영지침 개선('20년 2월)을 통해 공개범위 등이 명확화 되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에 국민참여실명제 창구를 신설해 사업을 공개하고, '19년 0건이던 중소기업 입찰이 '20년 66건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 신규 기타공공기관 지정임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규제혁신)의 업무를 이해하고 반영하려고 한 점이 돋보인다. 관련 성과 또한 창출된 것이 확인되어 향후가 더욱 기대된다.
- 적극행정의 경우, 타기관 사례공유, 우수사례 선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 규정의 해석(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 등)해 직원에 전파하기를 권장하며, 소극행정 또한 유형(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을 구분해 전파하기를 권한다. 소극행정의 경우 현재 부처에서도 사례가 나오기 쉽지않은 만큼 사례발굴보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이 구축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성과제시 시 '19년 대비 어느정도를 실시했는지, 계획대비 실행률 등도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차년도 평가 시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참여실명제 창구의 답변률 및 답변기간도 보고서에 함께 제시해주길 바란다.
- 준정부기관 수준의 중점추진과제를 확대해 2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청년식품창업 Lab확대운영, 공유형 시설장비지원을 제시하였다. 청년창업 Lab의 경우, 전담인력이 부족해 '20년 3명으로 확대하고 20종의 신규장비를 도입해 '19년 대비 높은 창업사업화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경제상황 상 청년고용, 특히 창업의 경우 고용률, 생존률이 낮을 수 밖에 없어 '20년 성과 자체가 가시적으로 보인다. 본 사업의 목적은 창업지원에 있으나 향후 생존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기존성과가 유지된다면 기관 우수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세중소식품기업을 위한 공유형 시설장비지원의 경우, 기업입장에서 크게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하도록 관련 홍보에 더욱 신경쓴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기업의 장비활용으로 인한 매출증대 등)는 부족할 수 있어도 파급효과는 클 수 밖에 없다. '20년 제시한 성과보다 '21년 제시할 성과가 기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계량)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78.3	78.3	1.00	0.78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202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78.3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78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2020년 처음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게 된 기관으로 전년도 기획재정부 만족도 조사 실적이 없으므로 평가연도 실적 78.3점에 가중치 1.00점을 적용하였다.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19.5	-	1.00	0.20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0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19.5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2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종합 별점 19.5점으로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20점을 획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한다.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3.86%를 달성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지원시설 구축의 이불용금이 높게(공사관련) 나타났는데, 이를 제하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불용금이 포함된다면 74% 정도의 사업집행률이다. 확인이 필요하다.
-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9월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 확인하였으며, 9월 말 시점의 집행률은 54%로 나타났다. 계약잔금 등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 '20년도 예산집행 효율화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예산집행추진단을 운영해 전년 대비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 벤처센터 임대료 감면 및 시험분석 등 자부담률 축소를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외부협력사업 확대 및 수입재원 다각화(소스사업 추가)로 인해 전년대비 21.6%의 매출성과를 달성하였다.
- 보조금 정산흐름 및 정산기준에 대한 실무교육을 1회 진행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관리 프로세스(기준마련)가 수립되어 있다. 여비 지급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를 도입 지침을 마련하였다.
-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시 변경추이에 따라 기관장의 최종 결제 후 편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산을 통해 부정수급 관련 상시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부서의 감사 등을 통해 공정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내

용을 경영평가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길 바라며, 회계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다양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3.86	95.09	2.00	1.9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3.86%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90점을 획득하였다.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식품진흥원의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 인프라구축, 산업생태계 활성화단계에 맞게 조직인력 구성방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프라단계에 맞게 기술인력 19명, 건설인력 2명 등을 채용하였으며, 신규사업 수주로 인한 융복합클러스터 청사진이 마련되는 등 현 상태에서의 운영방향이 적합하다.

- 시험분석장비가동, 생산시설 작업자 안전 확보 등의 업무관련, 인프라, 창업 등 조직신설재배치 등 변동사유와 추진성과가 확인되었으며, 기존 각 부서에서 처리된 민원사무가 총괄부서로 이관, 창구일원화로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창출되었다.
- 환경변화에 맞는 비대면 학습공간 조성, 블렌디드 교육, 리더십교육 등 교육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1년 미만 입사자의 퇴사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 건설사업 관리감독, 인증인력, 직무별 경력직 등은 주무부처(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채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중간점검회의 및 1/2이상 외부평가위원 구성, 신규직원의 수습평가제도 등 관련제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확대 등 업무관련 근무관행 개선 성과가 확인되었다.
- 단계적 조직개편 시 인사 운영 수용성을 높이고 순환보직에 관한 불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근무 공모를 추진한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고서 제출 시 직원니즈반영률, 세부내용 등도 함께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 핵심업무강화를 위한 조직, 인적자원 배분을 보면, 증원, 조직재배치 등의 변동사유는 명확하다. 반면 증원, 재배치인원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보기 힘들다. 향후 보고서 제출시 증원, 조직재배치 인원 설정근거 등도 함께 제시하기 바란다.
- 연차사용률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88.4%의 연차사용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20년 첫 기타공공기관 평가 기관으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없다. 합리적 보수체계를 위한 직무급제 전환은 초기단계이다. '20년 사전 준비단계 - '21년 직무권설정 - '25년 직무급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확인하기 어렵다.
-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공감대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정부 권고안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영, 신규채용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직무급제 전환을 위한 기관의 로드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둘째, 합리적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등의 설계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요구된다.
- 임원 복리후생비의 기본복지금액이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리후생비 편성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0”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80% 이하	△7.52%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0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7.52%로 기준치 2.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0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7.52%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80% 이내에서 조정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20년 첫 기타공공기관 평가 기관으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없다.
-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다. 노무교육 대상자별(관리자/인사노무담당자/노동조합간부) 맞춤형 노무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관의 연차사용률은 88.4%로 보통 수준이다.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안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환류방안을 마련한다면 노사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주체(진흥원, 상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구성원간 공유가 필요하다.
- 감사팀에서 연말 자체복무점검 시 임직원 연차사용률을 조사하고 이를 차년도 연차사용의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부결’, ‘추후 재논의’ 등 미해결 사항에 대한 사유 구성원간 공유가 필요하며, 추가 조치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1분기 ‘지역경제 활성화(안)은 추후 재논의 결정하였으나 4분기 노사협의회까지 재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대상자별 노무교육의 만족도, 전문성 향상 등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분양실적/분양목표)×100	목표 대 실적	132,000	133,386	100.00	8.00	8.00

나. 평가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노력을 통한 분양면적 목표 달성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분양성과 목표치 132,000㎡ 대비 실적치 133,386㎡를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8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분양기업 유치’ 지표는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현재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측면에서 볼 때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대표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축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제 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 여파로 다수기업의 투자유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3개년 평균 분양실적보다 25%나 상향해서 분양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총 15개사 133,386㎡의 분양실적을 달성해 목표대비 약 101%의 실적치를 나타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7개사의 이탈기업이 발생한바, 분양실적도 중요하지만 이탈기업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② 기업 성장지원 사업

(1)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운용률	목표 대 실적	40.0	44.0	100.00	6.00	6.00

나. 평가내용

- 기업의 R&D, 제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운용률 목표치 40.0 대비 실적치 44.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6.00 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장비지원성과면에서 19년 대비, 20년 실적이 증가한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현장 평가에서 이루어졌으며, 19년에서 20년으로 오면서 예산감소에도 성과 확대가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 18-20년 예산집행자료의 검토 결과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하며, 비율면에서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수치를 초과하여 지속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주요 사업의 지표 구성 및 관리를 포함한 기업 성장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이 대체로 인정된다. 현장 평가 확인사항 답변자료 기업 성장 사업 부문 8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장비, 보조장비, 상시 운용 장비로 잘 구분하여 제시된다.
- 국내 박람회 및 해외 박람회 참가에 따른 질적 고도화노력이 필요하다. 장비 지원 사업은 긴요한 사업 분야이나, 지표상으론 식품 사업의 특성 상 지표가 정제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지표 개선 방향성과 계획을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비즈니스 역량 강화 실적	목표 대 실적	42.68	45.06	1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판매채널, 각종 홍보 등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실적 목표치 42.68 대비 실적치 45.06을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비즈니스 역량 강화 부문에서 소비자 교류 지원 성과가 19년 대비 대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푸드 마켓 지원 성과가 크게 증가치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국내 국외 박람회 지원으로 인하여 지원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 예산 미집행액은 낙찰 차이로 인한 불용액으로 농수산부의 승인하에 이월하는 것으로 현장 평가 시 답변을 제시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으로서 해당년도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필요성 있다.
- 푸드 마켓 지원 성과가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며, 푸드마켓 기능 다각화 체계화 노력도 잘 제시되었다. 신규 참여 업체 및 기존 기업의 입점 제품이 전년 대비 34% 확대된 점도 잘 된 점으로 판단된다.
- 식품인증지원도 필수적인 지원으로 잘 진행되었다. 중기부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 연계된 사업 아이템 발굴도 긍정적이다.
- 중기부 사업과의 연계를 늘리고, 이를 위해 중기부에서 활용되는 용어들과 통일 또는 연관도를 제고할 필요성 있다. 실제로 중기부 정책에 연계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사례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목표 대 실적	283.00	285.53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사업을 통해 창출된 창업 연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실적 목표치 283.00 대비 실적치 285.53을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기업지원확대, 지속성장 식품생태계 조성, 기업편의 중심 지원기반 구축의 성과지표 달성과 내용은 긍정적이다. 수요자 맞춤형 벤처, 창업기업 성장 지원 환경 마련도 잘 된 점으로 판단된다. 청년 창업 사업화 연고별 예산이 지속 증가한 점 또한 잘된 점으로 판단된다.
- 농업분야 청년 벤처 지원과 현장 밀착 실무지원에 착안한 점도 긍정적이다. 중기부의 성장 사다리 등 지원 사업과 연계된 창업 사업화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성장 사다리 모형이 도입된 점은 인정되나, 입주 기업들과 관련된 예들의 제시와 중기부 사업에 지원하여 수혜 되는 사례 등을 같이 제시할 필요성 있다.
- 창업 이후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가 되었으므로, 이에 연동되는 사례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창업자 초기시장 진출지원 로드맵에서 1,2,3단계의 판로지원 용어들 간에 중첩성이 크고, 단계별 고도화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新인프라 구축 사업

(1)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목표 대	40.80	34.98	85.00	2.25	1.91
	실적	80.90	77.16	91.49	2.75	2.52

나. 평가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연계 사업추진 공정률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상반기 新인프라 구축 진척도 목표치 40.80% 대비 실적치 34.98%로 85.00%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2.25점 중 1.91점 획득하였다. 하반기 新인프라 구축 진척도 목표치 80.90% 대비 실적치 77.16%로 91.49%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2.75점 중 2.52점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기업지원 新’ 인프라 구축 ‘ 지표는 기업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현재 구축 중인 시설에 대한 구축 공정률에 대한 성과평가이므로 기관의 주요사업 대표 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년 인프라 구축대상을 2개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농식품원료 중계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형센터의 공정률 미달성으로 목표치 대비 88.57%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해당지표는 기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우며, 조달청, LH 등 유관기관의 부지용도변경, 인허가 등의 행정처리가 필요한 만큼 해당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안전사고 예방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안전사고 예방 실적	목표 대 실적	100%	100%	100.00	1.00	1.00

나. 평가내용

- 인프라 구축 공정 과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안전사고 예방실적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0%로 100%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점 중 1.00점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안전사고 예방실적’ 지표는 기업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 주요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표로 기관의 중장기 목표와의 연계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대표 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인프라 구축 공사 시 발생한 안전사고는 ZERO로 목표치 100%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은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시 설립목적과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대표성을 검증과정을 거쳐 성과목표 및 실행과제를 도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투자유치가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12%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우수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 ‘클러스터 활성화’라는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pool을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성과 연계성, 구체성, 측정 가능성, 적합성 등 타당성 검증을 통한 지표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더욱 다양한 성과지표 pool을 개발하여 지표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성과목표-지표 체계는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잘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 지표 별 목표 수준도 중장기 경영 목표에 근거하여 20년 목표가 잘 제시되어 있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마련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식품연구원과의 협업은 긍정적인 실행으로 판단되며, 답변 자료집에 공무 등 증빙도 잘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76면의 SWOT 분석에 근거하여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이 잘 제시되어 있다. 장비 지원 등 일부 부문의 지표 성장성면에 독특함이 있어 대비 필요하다.
- 기관 설립 목적 및 비전과 연계하여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주요사업에서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목표와 과제 등을 설정하는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신인프라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5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다.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P-SMART 방식, 전략연계성, 통제 가능,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더욱 다양한 성과지표 pool을 개발하여 지표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B+/C”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조특법 개정을 통한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 연장, 전북도 투자보조금 지급기준 완화 등 투자여건 개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자금 지원 혜택 확대 및 기업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 기존 홍보사업 추진시 발생한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내부 투자유치 내부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투자유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유관기관협업 투자유치드림팀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기존 대면 투자상담회에서 비대면 온라인설명회 투자상담 전환으로 321백만원의 예산절감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 홍보로 투자연계성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으나, 비대면 홍보의 경우 검색노출 광고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주요 사업 추진 체계구추과 모니터링 평가 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으며, 모니터링의 분야가 각 분야별로 잘 선별되었고, 실적 점검 및 방법, 주기도 적절히 제시되어있다. 20년 세부 사업별 실행과제의 경우, SWOT분석의 내용과 추진 전략 그리고 세부사업간 매칭이 잘 되어있다.
- 비대면 사업 확장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책도 필요하다. 19년에서 20년으로 이동하면서, 예산 일부가 감축되었고, 동 시기에 인력은 증가형 전체적인 조직 운영상의 밸런스를 조정하여, 조직의 운영 합리성이 예산과 업무량으로 연계되는 것이 제시될 필요성 있다. 당장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기 보다 탄력적 운용을 하는 점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중기부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하다.
- 기관은 ‘신인프라 구축사업’ 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수요조사에 기반한 인프라 설계, 현황조사를 통한 창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기능성식품제형센터는 시설구축 전에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운영소를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협업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 재분배 및 기능조정을 통해 의견조율 기간을 단축하였고, 통합 사업관리를 통해 2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B+/A0”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비계량성과 달성의 경우, 비계량지표 4개의 달성도는 대부분 완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분양기업 맞춤 애로해소를 통해 착공기업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의 추진 성과가 2025년까지 분양완료라는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과 기관의 설립목적에 적절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3개 지표 모두 전년대비 110%로 도전성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계량지표 달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균등 기회, 생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제시한 점, 해외 판매 지원을 개척한 점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사후 관리로 발로 뛰는 핀포인트 지원은 내용면에서도 잘 제시되고,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동종 유사 업종별 교류 부족은 클러스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를 파악하여 작업지킴이 배치, 노사안전협의회 활성화, 사전안정성 강화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무사고, 무재해 건축현장 성과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신규사업 인프라구축 사업은 부지용도변경, 인허가 등의 행정처리가 필요한 만큼 해당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B0/A0”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은 계획수립(Plan), 실행(Do), 모니터링(Check), 환류(Act)관점에서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가운데, 입주기업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평가와 외부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및 개선 조치도 적절히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부지적사항인 분양기업 유치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투자유치 여건개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당해연도 분양유치목표를 초과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류에 있어 내부 환류시스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환류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요구된다.

- 제도 개선 노력과 환류 활동이 잘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본 보고서 82면에 제도적 개선 효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낸 점은 긍정적이다. 통합공고, 통합 지침 등 문제점 인식과 제도적 해결책 마련 노력이 잘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 80면에 제시된 성장 단계별 지원 노력 세분화는 긍정적이다. 임대료 등 코로나 관련 기업 지원도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장비 운용 실적은 식품 산업 특성상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표 발굴 등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자체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 맞춤형 시설구축’ 과 ‘동반성장 사업추진’ 의 세부사업별로 계획, 실행과 운영, 점검과 평가, 환류를 적절히 추진하였다. 전년도 既시설 하자 발생원인 및 사례를 분석하여 신규 시설 건축단계부터 피드백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류에 있어 내부 환류시스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환류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B+/C”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지역 균형발전”,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성과목표와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집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본 보고서 75면의 성과지표 개발 및 선정 부문에서 성과지표들과 사회적 가치가 연계되도록 설계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돈버는 기업, 공정 환경 조성, 기업 지원 기반 강화의 개 성과목표와 이에 연동된 지표 체계가 잘 제시되어있다.
- 보고서 85면에서 설립 목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도 관련하여 상세한 제시가 된 점은 긍정적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발주 정보 제공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 ‘신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과지표별로 일자리창출, 국민안전,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신인프라 구축사업’의 집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건설공사현장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해 3년 연속 무사고 연속달성으로 국민안전을 실현하였고, 건설공사 하도급 상생 노력으로 동반성장 추진 및 신규인프라 설계 시 국민과의 소통강화로 건축설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B+/A0”로 평가한다.

⑤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식품클러스터 육성, 참여기업의 활동지원으로 식품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주요 4대전략목표는 식품선도 명품단지 육성,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 판로개척을 통한 전진기지 도약,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구축에 있다. 제시한 주요 성과목표는 ① 클러스터활성화, ② 기업성장지원, ③ 신인프라구축이므로 제시한 대표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에서 활동하는 지표 pool을 제시한 후, 최종성과지표를 선정한 프로세스가 적절하며, 지표의 가중치 또한 사업규모, 목적 등을 고려할 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지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내용이 아쉽다(로드맵 설정을 제시했으나 명확성이 부족함). 식품진흥원의 경우, 현 제시한 기반구축관련 지표가 몇 년 내로 활용할 수 없는 지표이므로, 향후 활용할 지표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 사용되는 지표의 체계적인 조사, 니즈파악, 전문가 자문, 실현가능성 등은 제시가 잘 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다.
- 또한, 4대 전략목표로 판로개척을 통한 전진기지 도약을 제시했는데, 기반구축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계획(전략, 지표 등)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현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도 잘 작성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의 고민이 포함되면 더욱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 지표의 내용을 보면, 측정가능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24년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긍정적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방법도 명확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각 성과지표의 환경분석, 도전적인 목표설정,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지표정의 및 산식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 각 지표별 환경분석을 통한 문제점, 목표설정 근거 및 도전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식품진흥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로는 ‘첫 해’이므로 매년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과 다양한 환경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고객의 니즈파악 등이 동반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반구축관련 지표의 경우 명확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성과지표 검토결과, 안전사고 예방실적의 산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 제시한 지표도 타 공공기관의 유사사례를 적용해 문제는 없으나, 실적점수(건별)로 안전사고를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건수와 발생인원 등이 종합된다면 더 좋은 산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진흥원의 판단에 맡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6] 가점 지표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린뉴딜,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기관 고유업무에 따른 5대 혁신사업을 발굴한 노력과 실제 예산확보를 통해 혁신 수요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특히 HMR센터, 기능성원료은행, 고령친화산업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시장에 대응하여 식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혁신 성장 사업 진행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한 점은 긍정적이다.
- 코로나 19로인해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 비대면 수출상담, 온라인 판로지원서비스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이 접목하기 어려운 스마트 HACCP, 로봇기술 적용을 통해 식품제조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스마트 팩토리 등 시책 내용이 긍정적이다.
- 기관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원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사업기획 촉진을 위해 장비교육 영상제작, 기능성 체형DB, 소스정보 공유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식품산업의 뉴딜선도를 위해 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체계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1점” 으로 평가한다.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코로나10 고통분담을 위해 ‘피해기업 직접적 지원책’, ‘지역사회 안전예방 강화’, ‘지역상생협력 추진’ 으로 구분하여 임대료 감면, 기술지원사업의 기업 자부담금 감면, 산업단지 내 철저한 차단방역 체계 마련 등을 마련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입주기업과 함께 익산식품대전에서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식품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기관에서 수행하는 고유사업과 연계하여 국민공감형 활동을 추진하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 노력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며, 추가적인 노력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점검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월별 점검하고, 수의계약확대, 선금 지급비율 확대, 대금지급 기간 단축, 검사점수 기간단축 등을 전개한 노력이 인정된다. 진흥원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며, 이 부문에서 기업들의 수요는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식품진흥원형 뉴딜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추진과제별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뉴딜 추진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수요자 맞춤형 벤처, 창업기업 성장 지원 환경 마련도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5점” 으로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IV.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1. 정책제언

- 평가지표 개선 등 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선사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에 관한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영평가 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평가편람 수정 및 보완 필요

- '20년도 경영평가 편람상 일부 계량지표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표준화된 평가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표임에도 산출 방식이 기관 별로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20년도 평가의 경영관리 범주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구현' 범주 중 일자리 창출 지표 세부항목에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평가 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관마다 적용 산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편람 상 산식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사회적 가치구현' 범주 중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세부항목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평가항목의 경우 세부 지침에 제시되지 않아 기관마다 적용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편람 상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에 관하여 함께 배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년도 경영평가 편람 내 해당 사항이 없는 지표의 경우 점수 산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지표가 발생할 시 평가방안 명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세부항목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평가항목과 같이 매년 해당 사항이 없는 기관이 다수 발생하는 항목의 경우 지표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거나 감점 지표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경영관리 지표의 ‘총 인건비 관리’ 지표에서는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총인건비 인상률은 모든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통으로 매년 100%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공통으로 동일한 득점이 발생하는 바, 지표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거나 감점 지표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경영관리 지표의 ‘안전 및 환경’ 범주의 환경보전 지표의 경우 세부 평가내용은 계량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비계량 지표로 표시되어있어 피평가기관에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지표의 경우 측정하는데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피평가기관에 지표에 대한 자세한 평가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준수 및 작성역량 개발 유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20년도 실적보고서의 경우, 전체 분량에 제한이 있었으나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패널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고서 분량 제한을 준수한 기관이 전체 5개 기관 중 1개 기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제한된 분량 안에 많은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량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근거를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아 원활한 평가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실적보고서 분량 제한이 기관 간 형평성, 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피평가기관의 보고서 작성 역량을 고려하여 분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5개 중 대부분 기관이 기관의 주요 성과를 실적보고서에 가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는 서면평가에서 다량의 추가확인 사항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추가확인 사항에 대한 실적자료 또한 평가위원이 의도한 성과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실적보고서 작성 지침 하달 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평가기관이 실적보고서 작성 시, 경영실적 평가의 관점에서 기관의 주요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 역량을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 및 개발 필요

-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인해 피평가기관이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신규 개발·적용 또는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의 운영 비전 및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기존 지표와 비슷한 지표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축산물위생사업 지표에 대한 적절한 개발 필요성이 작년에도 지적되었으나 지표 변경 없이 ‘20년도 평가가 진행되었다. 축산물위생사업 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대표지표인 보험사업 점검 횟수 증가율 지표는 기관의 대표지표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지표로 나타났다. 점검 횟수의 경우 산출단계에는 포함이 되나 결과단계의 지표로 보기 애매하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있어 기관에서 올릴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대표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진흥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의 확산 및 활용 노력에 의한 한식 인지도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 세부 산식으로 한식 인지도 조사 결과, 한식 콘텐츠 노출도, 한식 콘텐츠 배포 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정지표로 홍보의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 인지도 조사의 경우 별도의 조사가 아닌 타 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활용하여 한식 인지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설문 항목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며, 한식 콘텐츠 노출도 및 한식 콘텐츠 배포 수의 경우 기관의 의지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지표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목표 달성으로 아무리 좋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운영을 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영평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구성의 적절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성과의 목표치와 성과 측정방법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목표치와 측정방법이 잘못 정해진 지표가 존재하였다. 이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하였음에도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순히 지표명을 변경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설정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측정방법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 난이도 및 도전성에 따른 배점 고려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년 대비 단순 수치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며, 환경분석 및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설계를 선행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표 구성의 적정성 항목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발행일 : 2021년 05월

편집인 :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www.3pe.re.kr, 02-6925-0460)

발행인 : 농림축산식품부

※ 본 보고서는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무단인용이나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